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 건문록 VI



광주문화재단
Gwangju Cultural Foundation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 견문록



꽃향기 좋은 봄날 전통문화관에서 시작된 광주문화재단 제6기 문화관광
탐험대의 한 해 동안 활동을 망라한 광주견문록 여섯번째 책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세상에 그 열매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탐험대 대원들이 광주의 자랑, 숨은 보물을 발굴하고, 때로는 탐험대원
각자 자기만의 산책로까지 숨기지 않고 내놓았습니다.

문화관광탐험대의 자랑은 전문가가 아닌 광주를 사랑하는 일반 시민이라는
점입니다. 전직 공무원, 간호사, 교장, 지하철역장, 사진작가 등 평범한 시민들이
탐험대원으로 참여해 자신의 영역에서 얻은 독창적인 시선으로 광주의
아름다운 공간, 의미 있는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탐험의 결과를 엮어 '원도심의 기억을 걷다', '모던스트리트, 문화를 쫓다',
'시대를 건너온 선물', '가슴 답답한 날에는 이곳으로',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동네에서 만난 예술', '최고의 여행은 사람여행' 같은 글 제목들이
나왔습니다.

광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대원들의 속마음이 한줄 한줄 글에 드러납니다.

얼마나 멀리, 많이, 넓게 발품을 팔았는지 전해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생생한
현장감이 글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말이지요. 한여름 띄약벌에서도 우리 지역
문화 현장을 누비고 발굴해 낸 대원들의 수고에 머리 숙여 감사할 따름입니다.

1년 간 열정과 발품을 한 장 한 장의 책갈피에 꼭꼭 눌러 담아낸 문화견문록은
앞으로 광주를 알리는 자원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 지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 청소년들에게 광주문화탐험의
교과서로 쓰여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문화관광탐험대 6기 대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영진

Contents

탐험 01 원도심의 기억을 걷다

- 14 서석초등학교
- 20 동명동 마실길
- 24 오아시타 호텔 게스트 하우스
- 26 화가의 집 게스트하우스
- 30 미소리 한옥 게스트하우스
- 34 선술집 연우
- 38 계림동 경양마을
- 42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박물관

탐험 02 모던 스트리트, 문화를 품다

- 4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54 광주국제아트페어
- 56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 60 광주 물총축제
- 64 뮤지컬 전우치
- 68 속삭이는 마당
- 72 광주천 전통 등축제
- 76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청춘극장
- 80 아트시내버스

탐험 03 시대를 건너온 선물

- 88 비움박물관
- 92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95 무등도요
- 99 한너울 한복체험관
- 103 한지갤러리 우리
- 106 국립광주박물관
- 110 조선대학교 박물관

탐험 04 가슴 답답한 날에는 이곳으로

- 114 무등산국립공원 생태문화동산
- 118 광주벚꽃명소
- 123 신창지구 용수마을
- 127 풍영정천
- 131 도심 속 정원 매곡텃밭
- 135 신암마을 당산제
- 141 월계동 장고분
- 146 송화마을 만오정



Contents

탐험 05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 152 알암인권작은도서관
- 156 오월어머니집
- 160 국립5·18묘역 조형물
- 165 5·18민중항쟁 알림탑(꽃 현화퍼포먼스)
- 168 애꾸눈광대 이세상
- 172 소심당 조아라 기념관
- 176 서은(문병란) 문학연구소
- 180 백범기념관

탐험 06

동네에서 만난 예술

- 186 '화사한 마을극장, 화사한 마을극단'
- 189 광주아버지합창단
- 192 외할머니댁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난타공연
- 195 통기타 그룹 농장다리
- 199 시화마을 금봉미술관
- 201 노대동 송화난장음악회

탐험 07 최고의 여행은 사람여행

- 208 김치준 도예가
- 212 고려인마을
- 216 새날학교
- 220 다문화종합지원센터
- 224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228 광주힐링가든센터휴
- 232 아름다운가게 헌책방
- 236 찾아가는 아름다운 십시일반 밥차





원도심의 기억을 걷다

서석초등학교 *

동명동 마실길 *

오아시타 호텔 게스트하우스 *

화가의 집 게스트하우스 *

미소리 한옥 게스트하우스 *

선술집 연우 *

계림동 경양마을 *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박물관 *

근현대 공공교육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곳

오늘 우리 문화관광탐험대는 올해로 개교 120주년이라는 긴 역사와 2002년 우리나라 등록문화재 17호로 지정되어 당당히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이 된 전통의 명문 광주서석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자칫 가까이 있는 오랜 것들에 대해서 홀대하고 개발을 위해서는 낡은 것으로 평가하여 파괴해버려도 된다는 나쁜 생각을 가졌던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낳고 품어서 길러준 이 귀한 것들을 아끼고 길이길이 보존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14 _ 광주견문록VI

서석초는 광주 근대사와 함께해온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학교이며 우리나라 교육 수난사와 역사적 상징성을 한 몸 에 지닌 특색 있는 문화 공간으로 한 때(1967년)는 학급 수 112학급에 학생수가 10,170명에 달하는 명실공히 광주 제일의 초등학교였습니다. 졸업생만 해도 2016년 2월 105회에 이르기까지 53,000여명을 배출한 매머드급 초등학교로서 교육목표는 예절이 바르고 감사할 줄 아는 어린이(도덕인·德), 깊이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어린이(사고인·知), 몸과 마음이 강하고 굳세게 단련하는 어린이(건강인·體), 소질을 개발하고 스스로 가꾸는 어린이(기능인·技) 육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이끄는 세월의 힘은 도심을 비우면서 2016년 올해 10학급에 전교생 수는 모두 190명이란니 참 놀라운 일이지요.

정문을 들어서서 학교건물을 마주하면 우측으로 ‘어린이 현장탐’이 왼쪽으로는 ‘개교백주년 기념비’가 방문자에게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잘 말해줍니다. 후문으로 들어서면 우선 훤히 트인 넓은 운동장이 눈에 들어오면서 건물들 사이로 저 멀리 무등산이 보이고 느낌으로는 팔을 힘껏 쭉 뻗으면 닿을 듯 잡힐 듯 가깝습니다. 본관 건물이 화재를 입었던 상처 때문에 본관보다 나이가 많은 체육관(1930년 건축)과 1935년에 건립된 본관 건물은 건물 외벽이 모두 붉은 적벽돌을 이용하여 근세풍이면서도 고색이 완연했습니다. 24시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정을 지키던 학교 뜰 안 히말라야시다 나무의 위용도 학교의 교령과 버금갈 만큼의 그 담은 세월이 키보였습니다.

서석초는 도심공동화 영향으로 소규모 학교로 변모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색사업들은 요즘도 알차게 꼼꼼히 챙겨지면서 그 명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야구부는 300명에 달하는 전천후 실내 연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1950년대부터 각종대회에 참가하여 명예를 떨친 바 있고 평소 훈련 시 구슬땀을 흘리면서 미래의 국가대표나 프로 야구선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투수는 더욱 집중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회마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선발과 주축 선수를 기용하고 있으며 내외야 포지션도 두세 가지 중복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한 결과 최근에도 2010년, 2015년 전국소년체전 우승, 2016년 유소년야구대회 우승에 이르기 등 해마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큰 꿈을 꾸는 작은 학교’를 지향하는 서석초는 교실 한 칸 크기에 ‘역사관’을 마련하여 장한 성과물과 발자취를 모아 전시해두고 학생 교육자료로 활용하면서 오늘도 빛나는 전통계승을 위하여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뛰면서 머물고 싶은 도심공원학교의 역할을 다하는 행복충전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 공교육의 흐름을 보고 싶으십니까? 학교 자체가 박물관이 된 120년 역사를 가진 학교의 모습과 더불어 지금은 작지만 큰 교육을 이루어가는 학교경영의 현장을 마주하고 싶으십니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교육의 힘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광주 서석초등학교 방문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 한응섭 🍃

광주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도보로 5분이면 광주 최초 근대식 공립학교로써 위엄 있고 고풍스런 모습을 당당하게 간직한 서석초등학교를 볼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에 있는 서석초등학교는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공포된 소학교령에 따라 설립된 광주지역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이다. 광주 도심에는 1896년 서석초등학교에 뒤를 이어 주로 일본인들이 다녔던 중앙초교(1907년), 수창초교(1921년), 지산초교(1923년), 효동초교(1929년) 등 개교를 하여 광주 교육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 중 우리가 탐험하고자 하는 서석초등학교는 건물부터가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적 공간이다. 1930년 건물 내부에는 기둥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특징으로 건립된 체육관, 1935년 본관 건물과 1943년 별관 건물이 등록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다.

1970년대 산업화 영향을 받아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을 때는 1967년 112학급에 10,170명에 달하는 광주 제일의 초등학교였다.

하지만 도심공동화가 진행되면서 학생 수가 급감하기 시작하여 현재 전교생 수는 173명, 교사 수는 21명으로 지난 날의 번창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근대문화유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을 관광객들이 찾아온다면 어떤 것들을 보며 느낄 수 있을까?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교육박물관을 설립예정에 있어 연구용역을 한 결과

서석초교, 중앙초교, 전남여고 3개 학교가 후보지에 올라 있는데 서석초교가 가장 유리하다고 하시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이다.

현재 본관 2층에 역사관이 있는데 소규모로 작고 허술하지만 정비를 하면 아주 훌륭한 교육 역사의 흔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신다. 역사관에는 초창기부터 쓰던 탁자와 책상, 처음 보는 풍금 그리고 아코디언 등이 눈길을 끌며 승리의 상징인 트로피, 학적부, 땡땡종 등 오래되고 신비한 물건들도 준비하다.

본관 건물에서는 벽돌의 질감, 조적의 정교성 등 일제 강점기 조적식 구조의 조형미를 엿볼 수 있다. 당시 광주지역의 시범학교 건물로 외국에서 수입한 일등품 목재와 광주 교도소에서 제작한 큰 규격의 특수 벽돌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관 부분은 붉은 벽돌로 영식(英式)쌓기를 했다. 벽돌에서 오는 딱딱한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전면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처리를 했고 부분적으로 둥글게 '내쌓기'를 하여 장식적인 측면을 고려했다. 현관 2층 부분에는 4개의 벽돌 기둥을 관통하는 슬래브를 만들어 3개의 계양대를 설치했다.

등록문화재인 강당건물 밖에 붉은 벽돌을 이용해서 둥그런 기둥을 세운 기술이 특이해 보였고 예쁜 모습이었다. 옛 모습 그대로의 국기계양대, 시계탑, 바위돌 등은 관광객들의 호기심과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 같았다. 🌿 김영희 ✍



서석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동구 재봉로 82번길 6

☎ 교무실 : 062 220 8100 ☎ 행정실 : 062 220 8190 🌐 <http://seoseok.es.kr/>

달리며 숨바꼭질 하곤 동남에 마실 길



해가 기울어는 오후 4시, 팀원들이 모여 동 박 마실 길 탐험에 나섰다. 한 때 2년 정도 동명동에서 살았기에 잘 안다고 자부하며 골목길 탐험을 시작했다. 길은 변함없이 있는데 새로운 건물로 바뀌고 가게들이 들어섰다. 내가 알던 그 길이 아니다.

그새 깊어진 계절에 담벼락 너머로 만발한 초록과 형형색색 꽃들이 고개를 내밀며 사람들을 바라본다. 탐방을 하자고 권유했던 김영희 선생님께서 해설을 해주셔서 미처 몰랐던 형무소 자리며 동명동에 잘 산다 싶은 부자들이 들어온 계기를 말해주신다. 알고 걸으니 모든 풍경이 다 새로운 길이다.

이제 시작하는 작은 도서관 「수」를 만나 목을 축이고 옛 형무소가 있던 자리를 한번 살펴본다. 최초의 해군 창설을 건의했던 고려 말의 충신 정지 장군의 사당이 있던 자리 (동명동 74번지)의 주택을 본다.

역사, 문화에 대한 나의 무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채찍질을 해본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살 던 동네라서



불거리도 많다. 다음은 꽃바람 대문으로 조광석 작가가 나뭇결과 무늬를 그대로 살려내어 잡지에 실릴 만큼 유명한 대문이며 사진이라도 찍어보고 싶지만 검정 세단이 부티를 내며 턱하니 가로 막고 있으니 주변이 보인다. 달린 문양 옆으로 금 목서, 은 목서 나무가 숲처럼 울창하게 길까지 그늘을 만들어 주어 보기 참 좋다.

동명동 골목길은 조경이 잘 되어 있어 가는 길에 눈이 호강한다. 길을 건너 동남에 마실 길이라는 안내판이 보인다. 정지 장군의 캐릭터로 프로젝트 설명이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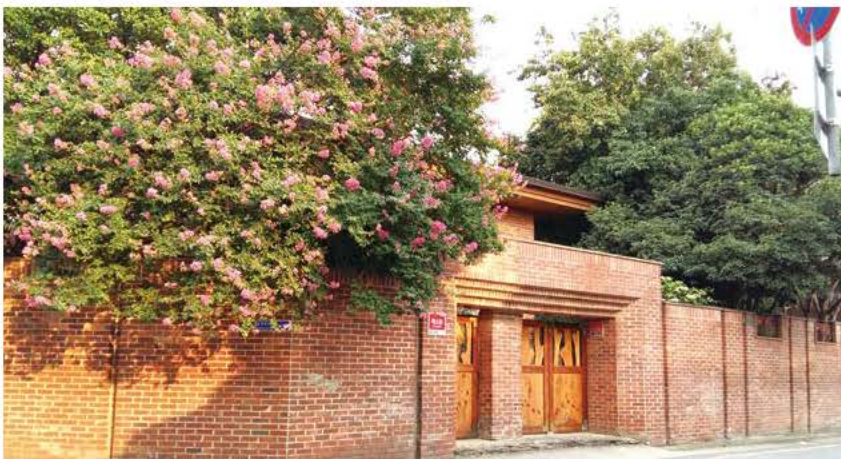
길을 따라 걷는다. 두 사람이 지나면 꼭 차 마주 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앞뒤로 줄 지어 가야할 듯 좁은 길이며 리어카도 작은 리어카만 지나갔으리라. 벽에 예전 골목길에서 하던 놀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개구진 아빠가 아들 기를 꼭 죽이게 100개 넘도록 제기 차는 모습, 엄마가 능숙하게 주구장창 공기놀이해서 아들 눈이 치켜 올라간 모습, 예전에 남자 애들만 잘 갖고 논다는 구슬을 벽에 빛으로 디자인하고 우물터에 애기 업고 빨래하던 모습, 구불구불 길게도 이어졌다.

왠지 이곳에 오면 숨바꼭질해도 되리라. 친구 영화처럼 신나게 달리면 여러 대문 안에서 다양하게 찾아대는 개소리가 들릴 것이다. 🌱 이영화 🍃

꽃바람대문 등 곳곳에 숨은 명소

아시아문화전당 인근 동명동(동박)은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카페거리로 알려진 곳이다. '동박에 마실길'은 동명동을 도보관광 코스로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여행의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프로젝트다. 그 숨은 관광 자원을 찾고자 탐방길에 올랐다.

'동박에 마실길'은 현재 동명동에 있지만, 예전에는 평주읍성의 동문 밖에 있었다 하여 '동박에라' 했고 동계천가에 있어 '동계'로도 불리다가 1946년 동명동이라 칭하였다.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고급주택가로 중앙도서관, 노인복지회관 등 교육 및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도심 기반시설이 취약한 관계로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계림5거리 부근 나무전거리에는 목재상 50여 개가 밀집되어 있으며 중앙로를 사이로 대인시장과 인접한 지역이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걷다보면 타 지역과 차별화된 모습들을 볼 수 있으며, '마실길'이라는 주제로 1. 추억의 마실길 2. 역사의 마실길 3. 문화의 마실길로 구성되고 있어 관광객들이 선호도에 따라 다양하게 둘러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엔 다양한 먹거리, 테일러, 뷰티크, 미용실, 패션, 문화체험, 공연, 놀이 등을 즐기며 쇼팽이나 숙박 등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이 진행 중이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마실길이 여행객의 발길을 이끌기 위해 특색 있는 관광 상품과 어울리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건축과 자신만의 개성을 간직한 독창적인 점포들이 예쁘게 형성되면서 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다.

동박에 마실길을 돌아다니다 보니 독특하게 나무로 모양을 내어 설치된 대문을 보게 되었다. 경기도 교과서 <미술 창작>에 게재된 바 있는 아름다운 대문이라는 꽃바람 대문이 눈에 들어 왔고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모퉁이를 돌아 차고지 문도 나무 문양이 아름답다. 김영희



동박에 마실길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26번길 13(동명동)

☎ 062 608 3530(동명동 주민센터)

🌐 <http://cafe.daum.net/dongmyeongdong>

푸른 정원이 아름다운 도심 속 오아시스

초콜릿 빛깔의 벽돌담 중앙에 아치형의 고급스런 대리석 은색 스텐 대문으로 오른쪽 작은 시각 간판 위 작은 글씨를 확인하고서야 오아시타 호스텔을 찾아냈다. 정원엔 푸른 향나무와 종려나무가 아름답다. 빼곡히 들어찬 칠죽나무들과 4층 건물보다 더 높게 하늘로 뻗은 야자수 나무는 저택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는 듯하다. 오아시타 호스텔은 35년 전 건축가인 주인이 직접 설계하여 지은 집이다.



지금은 배미경 대표님이 오아시타라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여정의 쉼터로 만들었다.

옛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여행객들의 안락함과 편리함을 먼저 생각하는 공간을 꾸민 것이다.

광주 동명동 도심 속 오아시스처럼 여행객들의 편한 쉼터가 되어주는 오아시타 호스텔, 광주의 시내 중심지와도 가까운 동명동에 위치하고 있어 광주 여행의 만족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김민숙 ✍

정원수가 아름다운 여행자들의 집

입구에 있는 1981년 8월 24일이라는 정초석이 인상적이다. 원 주인의 애정과 자부심도 엿보였다. 광주사람들이 좋아하는 해태상을 지나 멋진 나무들의 환영을 받으며 집안으로 들어갔다.

살짝 열려있는 문사이로 예쁜 방이 보였다. 편안함과 단정한 객실, 포근해 보이는 이부자리와 원목의 예쁜 침대, 도미토리룸의 귀여운 테이블과 이층침대로 올라가는 발받침대가 아기자기 예쁘다.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정원이다. 그리 크지 않은 단아한 정원이다. 예쁜 인공 연못과 멋진 정원수에서 가벼운 산책하기 좋다. 🌿 최정오 ✍



오아시타 호스텔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20번길 20 (동명동 75-20)

☎ 010 4145 9965

외국어에 능통한 매니저가 있어 더 좋다

화가의 집 계단으로 올라가니 주인장이자 화가이신 최재영님이 큰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신다.

최재영 작가님은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였으며 국제아트페어에 참여하는 등 창작활동으로 분주하다. 어느 가정집처럼 편안함과 안락함이 느껴지는 분위기, 객실에 놓인 정갈하면서 단정한 침실, 여러 사람들과 문화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커다란 테이블, 작가가 직접 그린 다양한 그림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화가의 집 게스트하우스가 이루어졌다.



3분 거리인 예술의 거리에는 작가의 작업실이 따로 있으니 이곳 화가의 집 게스트하우스는 문화와 예술을 서로 나누는 커뮤니티 공간인 셈이다.

무엇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외국어 통역이 가능하신 매니저님이 계셔서 외국인 여행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김민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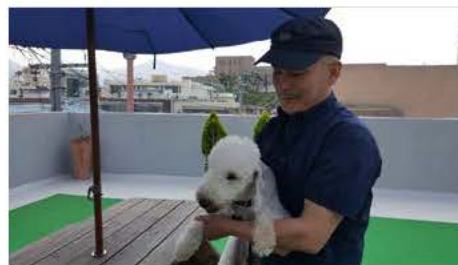
예술이 일상이 되는 특별한 공간

하늘은 맑지만 약간은 무더운 날, 대인시장만 알면 찾아가기 쉬운 화가의 집의 현관에 모였다. 현관 한쪽 벽면에 화가의 집 주인장 최재영 화가가 직접 그린 그림이 포토존처럼 인상 깊다. 무언가 소곤거리는 듯 다양한 표정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2층에 객실이 3개 있는데 너무 적다. 대체 이 주인장은 게스트 하우스 운영마인트를 갖고 있는 걸까 의심이 갈 정도로 딱 객실 3개이다.

“제 주업은 화가예요. 우연찮게 대인시장에 예술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걸 보며 이 사람들을 재우고 싶고, 오신 분들과 미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수익을 얻고자 게스트하우스를 만든 건 아니에요”

각 방에는 여러가지 표정을 가진 머리 큰 아이그림이 있다.

그 중 고풍 방에는 주인장 아버지가 찍어놓은 사진이 걸려 있는데 밀레의 만종 느낌이 물씬 풍긴다.



흑백으로 찍힌 5~60년대의 현재 전남대 자리 들판에서 아저씨와 누렁소가 있는 풍경이 고즈넉하다.

위로 올라가면 옥상 휴식처가 멋들어진다. 바비큐 파티가 충분할 정도로, 맘씨 좋은 주인장님, 오늘도 해맑은 웃음 지으며 화가의 집에 오신 고객들에게 반가운 손님 대하듯 하신다. 🌿 이영화 🖋



화가의 집

광주광역시 동구 중영로 232 10 (장동 13 13)

☎ 062 224 7700

🌐 <http://colour33.madoo.at/>

“세월이 지날수록 빛을 더하는 한옥처럼...”

편리하게 새롭게 탄생한 한옥! 한옥은 ‘불편하다 낡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미소리는 편리하게 현대식으로 재탄생한 새로운 한옥이다.

외관은 옛 전통가옥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어 한옥의 단아함과 운치를 살렸고, 객실 내에는 온돌방과 냉 난방기 그리고 현대식 욕실을 갖추어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곳, 게스트하우스 미소리는 현대와 과거가 만나는 지점에 와 있는 것 같다.



미소리 게스트하우스도 주인장이 미술가다. 예쁜 그림들이 전시된 갤러리와 함께 하는 아담하고 편안한 휴식처로 커뮤니티 키친 등 편의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미소리 갤러리에서는 상시적으로 전통문화 관련 전시를 연다.

투숙객들이 문화의 향기를 공유할 수 있고 투숙객을 위해 마련된 한복 입기와 김치 담기, 전통공예 등 전통 문화 체험도 가능하다.

마당에 놓아둔 전통놀이 기구도 추억 만들기에 한 몫 할 것 같다. 예향의 도시 평주의 중심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가깝고, 문화의 향기가 넘치는 공간 미소리에서 평주의 멋과 맛, 그리고 예술의 향기를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집은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그늘 같은 집입니다. 미소리에서 일상에 지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잠시나마 편안해지셨으면 합니다. 정서적으로 풍족하고 여유와 쉼이 공존하는 ‘미소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빛을 더하는 한옥처럼 윤이 나는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미소리 주인장의 인사말이 정겹다. 🌿 김영희 🖋

옛 기차길 옆 소박하고 낮은 집

널리 밝은 이치라는 뜻의 편액이 박태후 작가의 분위기를 제대로 보여주며 걸려 있는 곳, 전통 한옥에 오묘하게 현대적 감각을 덧붙여 게스트하우스로 만든 곳, 미소리다. 1990년대 이후 폐선 부지에 나무를 심어 푸른길이 된 이곳.

옛 기차길 옆 집은 소박하고 낮지만 살림집이 갖는 단출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다. 문살도 '아'자형 옛 문짝 그대로다. 이웃집도 낮은 담으로 되어 있어 정겹다. 지붕선과 푸른 하늘이 그대로 보여 외갓집에 온 듯 푸근한 마음이 든다.



거실형 주방에는 언제나 신선한 샐러드와 비빔밥이나 막걸리 등이 준비되어 있다. 일정 인원이 채워져 예약을 하면 실비로 만끽할 수 있는 먹거리도 마련될 수 있다. 머무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남도의 밥상을 즐길 수도 있어 늘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전통주택에 어울리는 이불도 좋고 비치된 자전거로 푸른 길을 달릴 수 있어 더욱 좋다. 바닥에 앉을 수 있게 해 놓은 주방의 소박한 찻상에서 서가에 꽂힌 '윤동주의 시집 두 권'에 눈을 둔다면 이 보다 편안한 시간이 다시 올까 싶은 곳이 '미소리'이다. 🌿 김현숙 🖋

 **미소리 한옥 게스트하우스**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67번길 14-1 (지산동 679-1)
☎ 062 222 3753 🌐 <http://www.misoriguesthouse.com/>

선술집 연우 ●●●

정에 취하고 예술에 취하고

오늘처럼 하늘이 흐리고 비가 뿌리는 날에 더 분위기가 좋은 동명동 연우는 식당 같은 분위기지만 밥도 팔고 술도 파는 정이 넘쳐나는 곳이다.

한지 벽에는 연필로 어느 화가가 그렸을 법한 탐스러운 꽃그림과 흥겹게 판을 벌인 풍물패들의 그림들이 생생한다. 금방이라도 컷가에 장구, 북, 췌파리 소리가 흥을 돋울 것만 같다.

주인의 맛깔스런 상차림엔 시원한 물김치와 제철 반찬, 잘 발효된 시원한 막걸리, 돌판 제육볶음이 식욕을 돋운다. 우리도 서로에게 힘을 실어 막걸리 잔을 부딪쳤다.



34 _ 광주견문록VI



막걸리와 함께 입안에서 살살 녹아 넘어가는 제육볶음 맛은 땀지도 짜지도 않게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 제격이었다.

여기저기 식당 안에는 사람들 이야기소리가 술잔을 부딪치는 소리와 함께 화기애애하다. 음악과 문화,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종종 들러서 라이브 콘서트도 연다고 한다. 낭만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일상 속 작은 쉼터 같은 휴식의 공간, 동명동 연우다. 🌱 김민숙 🍴

사는 것에 지칠 때 마음을 풀어놓는 선술집

동명동 네 갈래 길이 펼쳐지는 곳.

은행나무 가로수가 울창한 이 길가에 나뉘진 길은 사람들이 오고가며 만나는 재미를 준다. 길 건너엔 전시공간으로 재회갤러리와 주변에는 짧은 주점도 들어서 있다.

큰 길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선술집 '연우'를 방문해 보면 지인이 가지고 있던 소장품을 과감하게 선물했다고 하는 진공판라디오가 먼저 손님을 반긴다.



36 _ 광주견문록Ⅱ



매달 통기타 그룹 '농장다리'가 들려 가끔씩 품앗이로 기타 치며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주인장이 직접 풍물도 잡으며 놀 줄 알기에 노래패 회원들이 자주 공연을 하며 함께 노니는 곳이다.

이 주점은 본래 숨쉴 좋은 주인장에게 주변 사람들이 주점 겸 식당으로 열기를 종용해 작은 주택에서 시작된 곳이다. '술집'이란 소리가 부담스러웠던 주인이 스스로 나이 먹기를 기다려 본인이 놀기에 부담 없이 늘그막에야 문을 연 집이라고 하니 이채롭기도 하다.

우리는 호기롭게 막걸리를 주문하고 앉아 이 집 벽에 그려진 민중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노란리본'이라는 제목의 시화를 들여다보면서 남도가 지닌 풍류의 한 자락을 맛보았다. 남쪽의 식당 다방에는 산수화 한두 점은 기본으로 걸려 있었다면 70~80년대의 모습처럼...

이런 어우러짐은 요란스럽지 않고 주인장이 끓여 내온 바지락 탕의 맛처럼 시원하고 감칠맛나는 풍류의 맛이 이렇게 아닐까 싶다. 🍃 김현숙 🍴



선술집 연우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로 12-1(동명동 207-62)

☎ 062 233 3632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경양방죽 옛터

어린 시절 철없이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님 손을 잡고 놀러 갔던 곳 경양방죽은 나의 관심에서 멀어진 채 오랜 세월이 흘러왔다. 탐험하기 전까지는 가보았던 곳으로만 생각을 했을뿐 별로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말뚝말뚝한 귀여운 지식 손을 잡고 갔던 골프장과 경양방죽에 담긴 그 시절 추억을 말씀은 안 해도 가슴속에 담고 계셨을 것이다. 경양방죽 탐험을 하니 60여 년 전 부모님과 함께 놀러왔던 그 시절의 아버님이 생각난다. 지금은 계시지 않아 아련한 마음으로 추억을 더듬고자 탐사 길에 나서며 세월이 많이 흘러갔음을 느낀다. 오늘 탐사 덕분에 그 깊은 과거를 관심 있게 알아볼 기회를 갖게 됐다.



경양방죽은 광주 도시개발로 그 흔적마저 없어지고 건물과 주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 방죽모습을 남긴 곳은 광주 동구 계림동 광주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홈플러스 계림점 옆길까지 반원형으로 만들어진 저수지가 경양(景陽)방죽 터다.

옛날 이 저수지는 거울같이 맑았다 하여 경호(鏡湖)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호수로서 문인들이 풍광을 노래하고 길손들이 쉬어 갔다고 한다.

이 저수지가 만들어진 역사와 유래를 살펴보면 세종대왕 때 빈번한 가뭄으로 이 지역에 흉년이 들자 중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사를 지을 저수지를 만들라고 전라도 관찰사 김방에게 지시하여 1440년에 착공을 해 3년 만에 65,000여평의 인공호수를 만든다. 이 호수는 전담 4백정보(120만평)의 농업용수로 활용되었으며 경양이란 이름은 고려 때 부터 조선 말기까지 교통시설로 운영한 경양역(景陽驛)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양방죽에는 수양버들이 많은 두개의 작은 섬이 있었다. 고기가 많아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았으며 뚝방에는 아름답드리나무들이 즐비하게 있어 쉽터나 유원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기도 했다고 한다. 🌿 기원종 🌿



스토리텔링으로 되살아난 경양마을

계림동 홈플러스 옆길에 접어들자 커피마을이라는 간판이 눈에 띈다. 일반적인 커피숍 분위기와는 다르게 컨테이너를 조립해서 만들어져 서민적이다. '계림1동 추억이 깃든 경양마을 만들기 주민협의회'에서는 경양마을 사료관을 만들고, 이곳에 2011년 경양방죽 스토리텔링을 통해 되찾은 경호정을 소박한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우리 탐방 팀은 '경양마을 사료관'에서 주민협의회 회장을 맞고 있는 양충조 회장을 만났다. 사료관은 컨테이너로 꾸며져 있었지만 그 동안 지역민들의 꾸준한 노력의 스며있었고, 제법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고 있었다.



사료관 벽면에는 개미 형상의 그림들과 모형들이 눈에 들어온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개미형상은 경양방죽을 조성할 당시부터 전해오는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개미는 경양마을의 마스코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역협의회에서는 슬럼화되어가는 장소들을 지정하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었다. '경양마을 사랑텃밭'이 바로 그곳이다. 슬럼화 되는 공간을 지정하여 텃밭을 조성하고 지역민들이 무료로 야채를 가꾸며 이용할 수 있는 사랑텃밭으로 변신시키고 있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얻은 자신감이 살아있는 경양마을, 마을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알려지면서 일부 지원 자금이 마련되었고, 지금은 "추억이 깃든 경양마을 만들기 주민협의회" 회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었다. 올해 회관이 완성되고 지역민들의 단합이 가시화되면 경양마을뿐 아니라 빛고을 광주의 자랑스러운 문화적 자산이 되리라 예상된다. 이태연



추억이 깃든 경양마을만들기 주민협의회
광주광역시 동구 경양로 247번길 알대

빛바랜 성적표가 추억을 불러 일으키는 곳



여름도 아닌 어느 한낮에 여름인양 뜨거운 오후, 광주 교육대학교 교육박물관과 풍향문화관을 다녀왔다.

광주교육대학교 캠퍼스의 맨 안쪽에 위치한 교육 박물관은 호남지역의 유일한 교육박물관,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이 걸어온 길과 광주교육대학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다.

1층과 2층으로 구성된 아담한 박물관에는 오랜 역사를 말해주는 빛바랜 성적표, 상장, 교과서는 물론이고 손으로 쓰고 그려서 만든 옛 교사들의 교구들까지, 40대 이상인 우리들의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들이 아기자기하게 전시되어 있다.

여기저기 흠집과 낙서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 시절의 초록색 책상과 교탁 옆에는 추운 겨울 날 우리들의 도시락을 덥혀 주던 난로도 있다. 복도 저 편에서 풍금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복도 끝에 농경생활에 쓰였던 여러 가지 농기구들과 생활용품들이 전시 되어 있다. 벼들과 똑같이 생긴 것 같은 가마니 찌는 틀과 작두 앞에서 대원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 한다. '나 어릴 때 가마니 많이 찼다', '나도 작두질 많이 했다' 고, 교육박물관은 우리 어른들에게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미소 짓게 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다.

1층에 위치한 서호기념홀은 대를 이어 평생 초등교육에 전념한 이명룡 선생과 그의 아들 이재신 선생의 뜻과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조성되어진 홀이다. 이재신 선생의 부인이 시부와 남편의 교육관련 유품을 광주 교육대학교에 기증하여 두 분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정신을 더 숭고하고 더 빛나게 해 준 것 같다.

풍향문화관은 교육박물관과 테니스 코트장을 사이에 두고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교육박물관에서 풍향문화관으로 가는 길은 아름답디 커다란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길 또한 운치 있어 보인다.

풍향문화관의 1층은 동강 하정웅 아트홀(풍향문화관 건립비용중 1억 원을 하정웅 선생이 기증했다고 함)로 광주교육대학교와 부설초등학교 또는 지역민들의 각종 행사에 활용되고 있다. 1층의 한쪽 벽은 독도 지도를 바탕으로 한 아이들의 암벽타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2층은 독도 체험관이 있어 독도에 대한 모든 정보와 지식을 멀티미디어로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3층에 위치한 다문화교육체험관은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풍습, 의상, 악기 등을 체험하면서 아이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해 주는 곳이다. 독도체험관과 다문화교육 체험관은 주로 초등학교생들의 체험이나 교육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김도윤 

여기에 이런 박물관이? 호남지역의 유일한 교육박물관



1986년 호남지역의 유일한 교육박물관으로 문을 연 이곳은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교육 사료의 수집, 조사, 전시, 연구기능을 수행한다. 더불어 지역민들에게 추억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현장학습 공간과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시실 입구에는 서호기념홀이 있다. 서호 이명룡선생과 그의 아들 이재신 선생은 대를 이어 초등교육에 헌신한 분이다. 박경신 여사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전 재산과 함께 20세기 교육 관련 유품을 광주교육대학교에 기증하였다.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호기념관을 조성하여 그 숭고한 뜻과 정신을 기리고 있다.



농경생활 코너는 농경문화 자료를 전시한 공간이다. 우리 삶의 바탕이라 할 수 있는 농경유산을 소개하고 조상들의 땀과 지혜가 담긴 농경자료를 알아보면 옛 것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전시 1실은 우리 옛 교육공간이라 할 수 있는 조선시대 서당 풍경이다. 이곳에서 직접 천자문을 교육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전시 2실은 광주교육대학교의 연혁과 삼국시대로부터 현재까지 한국교육의 흐름을 한 눈에 보여주는 공간이다. 전시 3실은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교육 형태와 제도, 학문사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과거제도에 대한 교육과정이 소개되어 있다.

전시 4실은 개화기와 암울했던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과 6·25전쟁에 이르는 근대역사 속에서 한국교육의 변천사를 볼 수 있다. 전시 5실은 현대교육의 전시실로 시대별 교복과 소품 학습도구들이 진열되어 있고 그 시대의 추억 속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전시 6실은 6~70년대 교실 속 추억여행을 할 수 있다. 전자칠판이 아닌 교사의 손 글씨 자료와 풍금 등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그 시대에 사용했던 물품과 교구가 전시되어 추억 속 그 시절로 되돌아가서 체험할 수 있다. 🌱 이태연 ✍️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박물관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55

☎ 062 520 4080

🌐 <http://museum.gnue.ac.kr/>

모던 스트리트, 문화를 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광주국제아트페어 *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

광주 물총축제 *

뮤지컬 전우치 *

속삭이는 마당 *

광주천 전통 등축제 *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청춘극장 *

아트시네버스 *



광주의 진정한 컬처노믹스(culturenomics)

무척이나 봄볕이 따사로운 토요일 오후였다. 항상 위트가 넘치는 기원종 선생님이 오늘도 역시나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탐험은 어린이 문화원부터 시작되었다. 넓은 공간에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 딸아이가 작년에 어린이 문화원을 처음 왔을 때 무지 안타까워했던 것이 기억난다. 이렇게 좋은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어린 유치원생들을 부러워하면서...



48. 광주견문록VI



창조원 관람은 세 번째이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다소 어둡고 주제도 어렵다는 점이다. 항상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일까?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느긋함이 있다면 또 다른 감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려운 주제로 인하여 개인적인 작품 감상보다는 도슨트의 안내에 의존하고 그 객관적이고 틀에 박힌 설명을 내 것 마냥 받아들인다. 분명 멋진 장소의 좋은 작품들이지만 일반 대중과 동떨어져 운영되고 있는 창조원의 현실이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 비싼 관람료를 내었지만 관람 후에 오히려 입장료가 저렴하게 느낀 경험이 소소하게 있다.

창조원이 그런 곳이었던 한다. 비싼 입장료도 아깝지 않고, 누구에게나 가슴 뭉뚱한 감동이 있고, 그래서 다시 찾고 싶고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곳...

개인적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너무나 사랑한다. 이런 멋진 곳이 우리 광주에 있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한다. 이 좋은 곳을 우리 광주 시민들이 좀 더 애정 어린 눈길로, 깊은 관심으로, 적극적인 참여로 함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곳이 광주의 진정한 컬처노믹스 (culturenomics)가 되었으면 좋겠다. ♡

김도윤

아시아를 품은 빛의 숲

토요팀 일행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직원의 친절함 안내로 관람을 했다. 먼저 문화전당 공간에 대한 일반현황부터 알아보자. 5·18의 역사적 공간인 옛 전남도청 일대에 지하4층 규모로 건립된 문화전당은 2005년 기공식을 했다. 10년이 지난 2014년 10월 준공된 후 2015년 9월 4일부터 부분 개방하고 그해 11월 25일 공식 개관되었다.

한국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 시설인 문화전당은 문화의 생산과 소비, 유통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공간이다.



50_광주견문록VI



건축물 전체 면적은 161,237㎡로 야외광장, 옥상정원, 지하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이 건축물은 국제 설계 경기를 통해 선정된 재미 건축가 우규승씨의 작품이다.

지하 25m의 채광을 위해 천창(天窓)을 70여개 만드는 등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었다. 건축 콘셉트인 '빛의 숲'이 상징하는 낮 시간대는 전시 공연장에서 빛을 받을 수 있고 밤에는 전시 공연장에서 나오는 온온한 불빛을 지상으로 발산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

중정(中庭)은 건물 안이나 안채와 바깥채 사이에 마련된 작은 뜰로 공원 형식을 띠고 있다. 대나무 정원은 문화전당 내부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있고 외곽을 따라 500m 길이로 조성되어 있다.

원형광장은 빛을 받아내기 위한 광장의 하나로 '빛의 우물'이라고도 불린다.

혹자들은 왜 문화전당 건물을 지상으로 하지 않고 지하로 했냐는 의문과 불만을 제기하는데 도청본관과 회의실, 전남지방경찰청본관과 민원실, 회의실, 도청 별관 등 5·18 관련 시설을 역사적으로 보존하려다 보니 지금과 같이 축조되었다 한다.

🌿 기원종 🍃

광주 한 중심에 완성된 기적

팀원들과 약속 장소가 엇갈려 탐방은 조금 늦게 시작되었다. 팀원 기원종님께서 사전 문화전당 관계자들을 잘 섭외 하셔서 편리하게 탐방은 시작되었다. 민주평화교류원, 어린이문화원, 문화창조원, 문화정보원 등 엄청난 규모에 감탄을 한다. 광주광역시 한 중심에 이런 시설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거대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문화창조원은 더욱 신비롭다. 국내외 연구 기관과 전문가 협업을 통해 개발한 첨단 미디어 콘텐츠를 만날 수 있었다. 처음 보는 작품들은 생소했지만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문화정보원은 아시아문화 자원을 수집, 관리, 보존을 위한 자원 센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비교적 친숙한 책자들의 전시, 건축물의 디자인, 해외에서 보존되고 있는 저널, 출판 등 다양한 전시가 되고 있다. 🌱 이태연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 1899 5566

🌐 <http://www.acc.go.kr/>

작품 감상을 넘어 미술시장의 확장이 이뤄지는 자리



전시나 관람은 종종하였지만 국제아트페어는 처음이라 설렘이었다.

광주국제아트페어는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쪽 문화창조원에서 진행이 되었다. 개막식 날이라 세계 예술인들, 관련자들이 개막식 리허설에 분주했다.



문화창조원에 들어서자 입구부터 작품들이 빼곡하게 전시되어 있다. 외국인들도 많이 보이고 관람객들과 참여작가들, 수많은 작품들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많은 전시품을 보느라 다리가 아플 지경이었지만 작품을 하나하나

보면서 작가의 설명 듣고 작품속에 빠져 드는 동안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훌쩍 지나갔다.

5일 동안 열리는 광주국제아트페어는 광주광역시 문화 역량을 보여주는 미술행사다. 해외 13개국 30개 갤러리를 포함한 74개 갤러리와 유네스코 특별부스



1개, 115개의 개인 작가 부스 등으로 이루어진다. 본 전시와 함께 비엔날레 특별전, 강연균·황영성 특별전, 2016 광주 조형페스티벌, 영 아티스트전, 중국 청도시교류전, 한국 전통민화전, 사회리더 드로잉전, 공예기획전 등 다양한 기획전으로 문화광주를 알리는 미술잔치가 펼쳐진다.

특히 유네스코 특별부스, 비엔날레 특별전, 페차쿠차 광주 2016은 전례가 없는 독창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세계 평화와 인류발전에 기여해온 유네스코(UNESCO)가 광주아트페어를 통해 지역미술인들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 김민숙 🖋

광주의 유쾌한 문화반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난해 11월 개관을 하고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유쾌한 문화반란!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을 기대 하고 있었다.

광주 문화체험! 오매! 광주, 오매 좋은거! 등 다양한 이름으로 8개월의 대장정을 시작한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프로젝트 '광주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슬로건을 보면서 '프린지'라는 의미가 뭐지? 왜 어려운 말을 쓸까? 주위사람들에게 물어 봐도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결국 그 뜻을 알게 된 후에 아하? 그렇구나! 의미를 이해하게 되니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쉬웠다.



<프린지 페스티벌 Fring Festival> : 장르나 형식 등 정해진 틀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펼쳐지는 예술 공연 축제라고 한다. 그 실례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열리는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가 그 모태이다. 이 축제는 전 세계 36개국에서 모인 1,000여개의 공연 단체가 200여개에 달하는 공연장에서 1,500여개가 넘는 공연물을 선보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예술제라고 한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에든버러의 거리 곳곳에서 각종 공연들이 개최되어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공연장으로 변한다고

한다. 에든버러축제와 비교는 되지 않지만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은 올해를 시작으로 더욱 발전해나가는 축제로 만들어 갈 것이라 기대를 해본다. 300여명의 풍물패가 시민행렬을 이끌고 마당밧기를 하는 광산 농악 길놀이의 신명나는 공연으로 페스티벌 문을 활짝 열었다.

예술 문화의 광장이 된 금남로에서 5·18민주광장을 거쳐 문화전당까지 길놀이 행진이 펼쳐졌다. 거리가 온통 풍물패의 굿거리장단으로 들쭉거렸다. 문화전당 주변에서 벌어지는 자유로운 버스킹 공연, 체험 문화 프로그램, 프린지 공간구성 프로그램 등이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전일빌딩 앞 <창조의 공간>, 5·18기록관 앞 <열정의 공간>을 비롯하여 <버스킹 공간> 5개소, 금남공원의 <감동의 공간>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시간마다 펼쳐졌다.

특히 감동의 공간에서는 아시아테이 <남아시아 페스티벌>이 열리는 등 이색 공연이 펼쳐져 관람객들의 즐거움이 더해졌다. 거리 구석구석 좁은 공간에서 젊은 아티스트들이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충장로 우체국 앞에 마련된 '공간D'에서는 청소년들의 응원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다. K-POP 광주아이돌 거리축제' 때문에 들려오는 소리, 이 프로그램은 '광주 아이돌을 찾아라' 주제로 하는 경연대회였다.

생동감 넘치는 축제에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젊은 청소년들의 끼를 찾아가는 아이돌의 거리축제가 광주의 미래를 밝게 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 낼 것으로 기대가 됐다. 🍀 김영희 🍀

역사 현장 금남로, 다시 하나 되다

광주프린지페스티벌 행사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은 5·18 정신계승 주먹밥 나누기로 '먹어보면 안다, 그날의 광주'를 콘셉트로 진행됐다.



일행들은 그날을 생각하며 주먹밥을 먹어 봤는데 참 맛이 좋았다. 당시 시민군들이 먹었던 주먹밥은 긴박한 순간, 이웃들이 만들어 주었기에 의미가 더 깊었으리라.

분수대 반대편 '먹어보면 안다, 5월의 광주'를 콘셉트로 꾸며진 '광주의 맛' 공간에서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먹을거리를 즐겼으며, '오매! 맛난거'를 슬로건 삼아 예향의 맛을 알리고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룡알 빵(궁전제과), 남도 대표음식 김치(채자이), 기정떡(무궁화떡집), 상추튀김(신신분식) 등이 저렴한 가격에 선보였으며, 특히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진 춘설빵(삼애다원)은 광주 고유브랜드 춘설차와 함께 눈길을 끌었다.



인근 부스에서는 빨강, 분홍, 초록색 가면을 손에 든 어린이들이 '벗자! 위선의 탈!'을 콘셉트(concept)로 '가면 만들기'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었으며, 방글라데시·네팔·인도·스리랑카·파키스탄 등 아시아 5개국이 참여한 아시아 의상체험과 한복 체험도 인기를 끌었다.

특히 외국인 관람객들은 조선시대 왕, 왕비 복장을 입고 즐거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거리가 온통 축제의 장이 되어 시민들을 품어내는 광경이 참으로 가슴 벅찼다.  기원종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사무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5(금남로1가)
☎ 062 224 0323

수(水)태프가 함께 만든 놀이축제

유난히 폭염이 계속된 지난 23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광주물총축제'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물총을 쏘며 더위를 식혔다. 이 축제는 광주광역시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시민주도형 축제로 올해 3회째를 맞는다.

수태프라는 이름의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만든 시민참여형 축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 문화를 위해 이번 축제는 자발적 봉사자에 의해 진행되어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의 현장이다.

광주 구 전남도청 분수대의 주변은 민주주의 성지이자 주광장으로 불리고 있는 곳이다. 36년 전 아픔이 있는 이곳에서 장난감 물총이긴 하나 금남로에서 총질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를 외쳤던 그 현장에서 참여의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를 이어가는 의미 있는 축제로 승화시키자는 외침도 있었다.

금남로가 물총놀이라는 단순한 재미의 공간이기보다 성숙한 공동체의 놀이, 문화의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축제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행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물과 물총으로 시민들을 모여들게 했다.

광주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울산에서도 동시에 개최되었으며, 13시부터 18시까지 금남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은 물론 어린 유아까지 포함한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많았다.

프로그램으로는 워터존의 물총 싸움과 물난리 디제이 파티 등이 진행되었고, 광주존에는 다양한 먹고즐길거리로 가득했다. 🍃 이태연 🍃

쏘는 것도 맞는 것도 웃고 즐긴다

놀이 가운데 물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 그것도 도심 한가운데서 가족과 이웃이 모이고 썸남 썸녀들이 함께한다면 말이다.

서로 모르는 사람과 물총을 겨누고 웃음을 섞는 자리, 쏘는 것도 웃고 즐길 수 있는가 하면 물총을 맞고 흠뻑 젖어보는 것도 추억 만들기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물총싸움’은 그야말로 불특정 다수 참가자가 모여서 어른, 아이, 외국인, 내국인을 가리지 않고 물총으로 힘껏 물줄기를 내뿜어 상대방에게 웃음탄을 쏘 감당하기 어려운 재미와 짜릿한 쾌감까지도 느끼게 해준다.



‘물총패션퍼레이드와 물총패션쇼’는 방송국 모델센터에서 활동하는 미남미녀들과 발맞추어 평범함을 벗어난 독특함과 남과 다른 나만의 패션을 자랑하는 자리, ‘난장 수트릿 공연’은 금남로 곳곳에서 무더기 퍼포먼스 공연을 펼치는 것이다.

수많은 어린이들과 손을 맞잡은 엄마, 아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쿵쿵거리는 음악에 맞춰 연신 흥미롭고 신나는 합성과 웃음소리로 거리를 가득 메운다. 세계 어느 대학생에게도 질 수 없어 가진 낭만을 마음껏 발산하는 젊음의 향연이 ‘광주전남 대학생 세력전’으로 펼쳐지고 수천 개의 물풍선으로 흠뻑 젖은 온 몸을 던져 즐기는 ‘물난리 디제이 파티’가 물총축제의 정점에 서있게 한다. ♡
한용섭



청년문화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3가

☎ 010 8606 1986

지친 일상에 시원하고 짜릿한 즐거움

초여름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계절이다. 장마철인데도 날씨가 좋아 탐방하기 좋은 분위기다. 금남로도심에서 판타지 연극 공연이 있다 해서 탐방에 나섰다.

판타지 액션 연극 <전우치>는 광주광역시립극단 제6회 수시공연으로 흥미진진한 스토리, 파워풀한 액션과 화려한 안무, 서정적인 노래가 어우러진 작품이다. 도심 속 푸른 숲에서 즐기는 한밤의 판타지 뮤지컬! 지친 일상에 시원하고 짜릿한 즐거움을 선사해주었다.



광주광역시립극단에서 2013년부터 '한여름 밤의 아트 바캉스' 로 기획·제작한 전우치는 벌써 4회째 무대에 오른다. 화려한 군무, 무술, 액션, 드라마가 이루어졌다. 공연을 할 때마다 3~4천 명의 시민들이 운집해서 성황리에 공연이 이뤄지곤 했다. 광주광역시립극단의 대표적인 이 작품이 뮤지컬로 거듭나니 더욱 신선한 느낌이다. ♡ 이태연

마당극에서 뮤지컬로 업그레이드



공연시작 30분전에 공연 장소에 도착했지만 이미 준비된 자리는 만석이었다. 여유롭게 가벼운 스낵을 즐기며 밤 시간의 공연을 기다리고 즐길 줄 아는 관람문화가 자연스레 만들어지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흐뭇했다.

올해로 시즌4를 맞는 전우치는 '전우치 백 투더 퓨처(Back to the future)'라는 부제로 작년까지 공연되었던 마당극 형태의 전우치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뮤지컬로 공연되었다. 자신이 도사 전우치였다는 기억을 잃은 채 살아가던 전우치가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떠나는 모험과 사랑 이야기가 주된 줄거리이다. 청동검을 얻어 세상을 지배하려는 요괴와 전우치의 대결이 긴장감 있게 펼쳐지고, 전우치와 도화 공주의 사랑이야기가 아름다운 노래와 어우러져 온 가족이 부담 없이 한바탕 웃고 즐길 수 있게 해 준다. 🌿 김도윤 🖋

탄탄한 스토리, 파워풀한 액션

뮤지컬로 잘 다듬어진 전우치는 그 스토리 구성이 탄탄하고 짜임새 있을뿐더러 마음 조리게 하는 파워풀한 액션으로 지루함을 완전히 씻어냈다. 화려한 안무와 박진감 넘치는 노래가 조화롭게 뒷받침해주고 있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전우치는 시간을 거슬러 과거와 현재를 미끄러지듯 넘나들며 타임슬립(Time-



slip)의 경지를 보여준다. 시원한 웃음과 함께 풍자와 해학이 덕지덕지 묻어나니 유쾌함 속에 감동까지 몰고 온다. 공연시간은 60분이며 11곡 넘버(노래)로 구성, 타이틀 롤은 배우 김형민이 맡고 있다. 주인공다운 외모와 빼어난 노래와 춤으로 자신의 매력을 100% 발산할 때면 관객들은 그만 '퐁당' 소리도 없이 그의 매력에 빠져버리고 만다. 🌿 한용섭 🖋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60(윤암동)
☎ 062 511 2759

도시속 가야금 병창, 신명의 무대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속삭이는 마당. 개인 주택의 정원을 작은 공연장으로 만들어 1년에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4째 주 공연을 갖은 지도 벌써 3년째, 열여섯 번째 속삭임을 맞이했다. 하선영 대표는 본인이 국악 신인으로서 겪었던 시절을 기억하며 후배들을 위해 가야금 병창단의 속삭임을 기획했다고 한다.

마당을 너머 골목까지 흥이 넘치니 가는 사람의 걸음을 되돌리게 한다. 이미 짝 찬 자리, 담벼락에 다닥다닥 서서 가락에 고개가 리듬을 탄다. 아리랑을 지나 적벽가 중 '삼고초려', 흥부가 중 '흥부가 기가 막혀'를 듣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다른



리듬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1990년 대 초 대학가요제에 나왔던 육각수의 '흥부가 기가 막혀'가 오버랩이 된 것이다.

공연 중간 중간 사회를 보던 분이 가르쳐 주던 추임새.

“일쭉”, “좋~다”, “그렇지”, “이쁘다”

추임새를 넣으면 더 흥겨워지고, 공연자에게 힘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혼자서 추임새를 넣다가 때를 못 맞춰 난감하기도 했다. 끊어질 듯, 끊어질 듯 하면서 다시 힘 있게 시작하는 창. 아이들, 외국인들도 내용은 모르지만 즐거워하며 손으로 박자를 맞춘다.

1시간 30분의 공연 끝을 향해가며 속삭이는 마당의 대표곡인 25현 가야금 병창 협주곡 '아리랑 연가'가 소개된다. 하대표가 참여한 창작곡(황호준: 작사, 하선영: 작곡)으로 국악을 빚어냈지만 대중적인 익숙함으로 아리랑이 전해진다.

아리랑 연가가 끝나자 박수 소리와 앙코르 요청이 끝없이 이어진다. 뱃노래가 울려 퍼진다. 가야금으로 다양한 새소리를 표현하는 게 신기했다면, 이번 국악에 오선 드럼까지 이용해 잔잔한 파도소리를 베이직으로 깔아주며 운치있게 마당에 바람과 파도에 감싸인 바다로 만들어줬다. 🌿 이영화 🍃

봄밤의 흥취가 물씬

올해로 3년째 한달에 1번씩 열리는 속삭이는마당!

우리 고유의 가락을 흥겹게 멋드러지게 듣는 시간! 가야금 병창단 현의노래는 '전통적인 가야금병창의 전승에 충실하며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창작활동으로 대중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라는 기획의도에 걸맞게 속삭이는 작은 마당에 우리가락이 가득했다. 당일 5월 28일에는 그 열여섯번째 속삭임 '안민아의 가야금병창' 의 무대다. 팔도 아리랑을 첫곡으로 적벽가, 흥보가, 25현 가야금병창 협주곡까지 소담스럽지만 멋스런 무대로 관객과 호응 하며 흥겹지만 요란하지 않은 봄의 밤 정취를 물씬 느낀 시간이다.



70_ 광주견문록VI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되는 속삭이는 마당은 매 마당마다 주제가 다르고 공연곡도 다르게 구성된다.

또한 계절별 주제가 다른 마당극으로 금일은 봄 마당이고 다음 달이 마지막 봄 마당이 7월과 8월은 여름마당이 시작된다.

10월22일 가을마당을 끝으로 올해의 속삭이는 마당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
최정오



속삭이는 마당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길 25 3

☎ 010 7587 0540

🌐 <http://cafe.naver.com/singtogether>

어린 시절 동화가 불을 밝힌다



야간 번개탐방을 해 보자는 의견에 이색적이고 색다른 체험을 기대하며 문화재단 앞에서 출발할 때 아직 밝아서 뭘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기우였다.

‘빛고을 관동회 전통등 전시회’ 플래 카트가 눈에 들어오고 오색찬란한 등불이 희미하게 보이더니 어둠이 짙어질수록 선명한 자태를 뽐내며 서로 자신을 봐 달라고 손짓하는 것 같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념 등축제가 열리고 있는 광주천변으로 가족들과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빛고을 관동회는 “견우와 직녀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주제로 60여 개의 전통 등불을 만들었다. 한국의 오래된 문화와 어린 시절 동화로 들었던 <삼죽오>, <전통혼례>, <씨름>, <활 쏘는 고구려인>, <초가집>



등을 재현해 광주천이 문화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뜻있는 축제다.

광주천의 물결에 불빛이 반영되어 눈부시게 아름다운 각각의 등불은 물위에 둥둥 떠다니는 듯 신비로움을

선사한다. 한지로 만들어 환히 비치는 등이 예쁘고 화사하다. 등불이 물위에 둥둥 흔들흔들 새색시처럼 수줍게 춤을 춘다.

포토존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친구들이 모두 모여 있어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마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같은 마음인가 다들 사진 찍기에 바쁘다.

이번 전시회 메인인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모습은 인상적이고 애처롭기까지 하다. 서로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본분을 잊고 일을 소홀히 하여 임금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된 두 사람, 견우는 은하수 동쪽에, 직녀는 은하수 서쪽에서 일을 하다 1년에 한번만 만날 수 있는 운명이다. 그들은 만날 날만 기다리며 열심히 일을 하였고 드디어 만나는 날 은하수가 너무 멀어 발만 동동 굴리며 슬퍼하는 모습을 지나가는 까마귀들이 보고 돕기로 하였다. 까마귀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어 다리를 만들어 견우와 직녀의 하룻밤 사랑을 이루게 해주었다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설화다. 서로 머리를 맞대어 주느라 까마귀 머리가 벗겨졌다는 설화도 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도록 오작교를 만들어준 까마귀들 그들이 사랑을 이어지게 하려는 아름다운 모습은 전설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다.

뜻밖에 우리 어린 시절 동화 속 기억을 되살려 보는 재미는 우리가 문화관광 탐험대를 함으로써 받아보는 큰 혜택이 아닐까 싶다. 🍀 김영희 🍀

광주천에 펼쳐진 건우직녀의 이야기

광주천에 꽃이 피었다. 건우직녀의 이야기가 광주천에 펼쳐졌다. 초파일을 맞이하여 일주일동안 진행된 전통 등 축제는 다시 살아난 광주천에 꽃처럼 환하게 피어났다. 등불에 물고기들이 튀어 오르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였다.

이번 전통 등 전시회는 빛고을 관등회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와 후원하는 행사다. 광주공원 앞 광주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다시 밝아진 광주천의 생태복원 의미도 함께 부여한다.

맑은 광주천변 정점다리를 건너는 많은 사람들은 온온한 전통 등의 멋진 모습과



맑은 광주천의 물소리를 들으며 봄 밤나들이를 즐겼다.

아이의 손을 잡고 온 가족들이 한쪽에 전시된 뽀로로 캐릭터 등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습, 쪽진 머리의 어르신이 지팡이를 내려놓고 멋진 등불을 감상하는 모습이 전통등과 묘하게 어울렸다. 젊은이를 또한 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즐거운 웃음을 짓는다. 광주천의 등빛과 시냇물소리, 시민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모두 행복한 밤으로 저물어간다. 🍃 최정오 🍃



빛고을관등회 동행위원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30 불교회관 101호

☎ 062 385 1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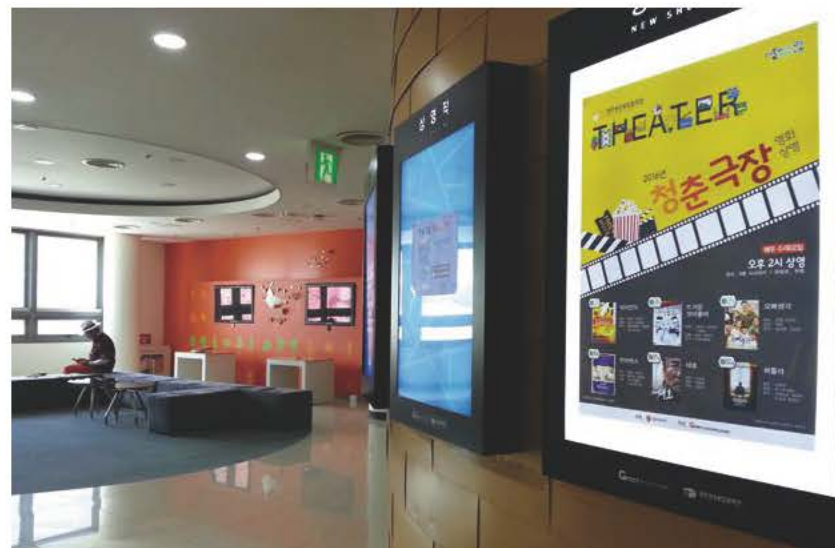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



광주영상복합문화관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96(서석동 47-1)에 서있는 지상6층, 지하2층의 건물이다. 청소년, 일반 시민들에게 문화콘텐츠에 대한 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상품의 전시, 홍보 및 마케팅지원 등을 통해 지역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어 2010년 2월에 개관하였다고 한다.

6층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청춘극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청춘극장은 1955년 소설가 김래성이 발표한 소설의 제목이다. 어디선가 본적이 있는 실내포장마차 이름도 청춘극장이었다. 신성일, 윤정희가 그려진 영화포스터를 간판으로 달고 영업하고 있었다. 1966년 청춘극장을 영화화할 때 1,200:1의 경쟁을 뚫고 광주출신 신인 윤정희가 뽑혀 신성일과 함께 주인공으로 연기한 영화가 생각났다.

청춘극장은 2012년 3월에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라는 영화를 상영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청춘극장에서는 상영되는 영화는 추억의 영화, 어르신 선호 영화를 상영하는데 한 달에 한편의 영화를 계속 상영하며 매주 수, 목요일 14:00부터 운영되고 있다.

시작 할 때 55세 미만은 4,000원, 어르신들은 2,000원을 받고 팝콘은 제공하였는데 지금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팝콘 제공은 안한다고 한다.

우리가 탐험하러 간 날은 마를린 몬로 주연의 '뜨거운 것이 좋아'가 상영되고 있었다. 그 날 기온이 35도가 넘는 오후 2시이고 너무나 오래된 영화에다가 한 달에 8편이나 같은 영화가 상영 되다보니 관객이 올라? 의문을 가졌는데 무더운 날임에도 추억의 영화를 즐기려고 오신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아 좌석이 거의 차서 놀랐다. 하필이면 그날 에어컨 하나가 고장이라 영화관 안이 찜통인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옛 영화를 감상하고 있는 모습에 문화를 사랑하는 광주의 힘을 느꼈다. 🌿 이양자 🍃

작은 영화제들의 산실 G시네마

광주영상복합문화관 6층 G시네마.

'3D디지털입체영상'을 볼 수 있는 THX, DOLBY, DIGITAL 음향 장비 등으로 구성된 첨단 영상극장이다.

총 105석 규모의 3D첨단영상, 디지털애니메이션, 다양성 영화 등 상업영화에서부터 독립영화까지 모두를 상영할 수 있다.

5.1채널의 디지털입체음향시설, 와이드스크린 등 첨단영상을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여러 장비와 시설을 두루갖추고 있다.



78_광주견문록VI



이곳에서 매주 수, 목요일 오후 2시 55분 이상의 시민을 위한 <靑春劇場 (청춘극장)>을 운영한다. 2천원의 관람료로 추억의 영화여행을 떠날 수 있는데 '서편제', '뽕서지에서 생긴 일', '타이타닉' 등 많은 사랑을 받았던 추억의 영화 등을 상영해왔다.

또한 매년 광주영상복합문화관 G시네마에서는 <광주유권자영화제>, <광주여성영화제>, <광주독립영화제>, <광주인권영화제> 그외 영화제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지역 주요 문화콘텐츠 작품 발표 및 비즈니스 행사 등도 활발하게 진행하며 광주시민의 극장 역할을 해내고 있다. 🌱 김양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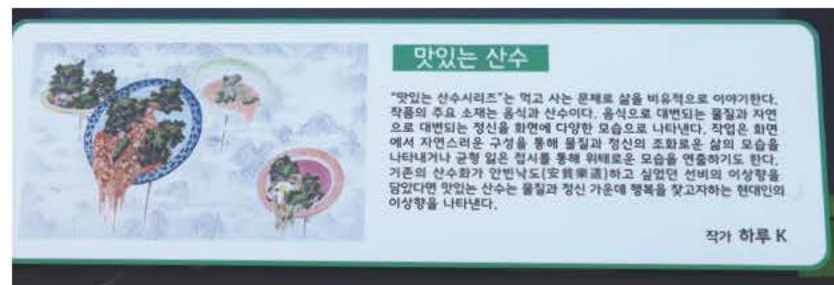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청춘극장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96
☎ 062 350 9340

미술을 싣고 광주를 달린다

광주 시내를 달리는 버스 중에 미술 작품이 랩핑된 Art버스가 시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빗고을 광주를 상징하면서 예향의 도시이자 문화수도 이미지를 표현하는 뽀아내는아트버스, 아트버스가 거리를 누빌 때면 광주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가장 손쉽게 미술 작품과 접할 수 있다.

요즘 이 아트버스를 타 본 시민들은 하나같이 기분이 한층 상쾌해져서 옆 사람에게 미소와 함께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말한다. 참 좋은 일이다. 광고로 가득 찬 버스 외관이나 그냥 밋밋한 외모의 버스를 타는 것 보다 아트버스가 더 특별하고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광주광역시와 지난해 말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술 작품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으로 지역 작가 8명의 참여로 아트버스 8대를



도입하였다.

02번 2대 고근호의 '즐거운 상상' 과 하루K의 '맛있는 산수' 09번 2대, 송필용의 '청류'와 장현우의 '신인류 연주' 37번 2대 강운의 '공기와 꿈' 윤남웅의 '꽃' 1187번 2대, 김해성의 '꿈과 현실을 융합하는 유토피아' 한희원의 '꽃이된 마을 양림동' 이 그것이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에 따라서 광주시는 2016년 올 상반기에 22대의 아트버스를 추가해서 전체시내버스의 3%인 30대까지 늘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따라 문화와 예술이 거리에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편 광주광역시 향후 아트버스 주제는 대중적 친근감과 더불어 원거리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명도를 높이는 일, 작품성 등을 고려한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의향·예향의 표현까지 폭을 넓힐 예정이다.

기대가 되는 것은 1차 때는 광주시립미술관이 작가를 추천하여 참여하도록 하였지만 이번에는 50% 지역 작가를 포함하는 전국대상 작가가 참여한다.

시내버스는 수많은 정류장을 거치게 된다. 버스도 쉬고, 사람도 쉬어가는 곳이 정류장인데 광주비엔날레 입구 승강장은 '아트버스 승강장' 이 된다. The Red Face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로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연계하여 문화·예술적 가치를 극대화시킨 것이다.

길이 15m, 폭 2m크기의 철구조물에 의자를 설치하고 밤에는 LED조명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운치를 더하니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다. 한용섭

달리는 작품감상실 작가도 시민도 즐거워

광주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변신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일상 속에서 쉽게 미술작품을 즐기고 접할 수 있도록 지역작가 8명이 참여한 아트버스가 8대 도입됐다.

좌석02번(고근호·하루K), 천단09번(송필용·장현우), 봉선37번(강운·윤남웅), 1187번(김해성·한희원) 각 2대씩이다.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아트버스는 시내 곳곳을 누비며 ‘보는 즐거움’을 주고 있다. 참여작가들의 반응도 좋다.



미술관 등 막힌 공간에서 벗어나 불특정 다수에게 작품을 선보일 수 있고 버스 내부에 설명을 써놓아 자연스럽게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예술 작품이 그려진 시내버스 이른바 아트버스를 확대 운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아트시내버스 확대 운영을 위해 참여작가 22명도 추가로 선정했다. 광주는 물론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전국적으로 뽑았다. 광주시는 최근 아트버스에 대한 이용객 설문조사 결과 8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향과 문화 도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고 신선하며 재밌고 예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아트버스는 난해하고 어두운 배경의 작품보다는 아름답고 밝은 색채를 띠는 작품이 주를 이룰 거라 하니 기대가 더욱 크다. ♡ 이태연

365일 광주를 누비는 예술버스

문화도시라는 말에 걸맞게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각종 행사와 이벤트들이 개최되거나 만들어지고 있다. 그 하나로 버스에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는 새로운 발상이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지역 대표 청년작가 26명의 작품을 시립미술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작가선정 T/F 심의'를 거쳤다. 대중적 친근감 및 버스 랩핑의 적합도를 감안한 최종 8명의 작가(윤남웅, 고근호, 김해성, 강운, 한희원, 장현우, 하루K, 송필용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여 예향 도시 광주를 표현한 일명 '아트버스' 8대(좌석02번, 첨단09번,



84_ 광주견문록VI

봉선37번, 1187번 각 2대씩)를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각 노선별로 운행하고 있는 작가들의 그림을 소개하자면 02번 버스의 고근호 작가의 '즐거운 상상버스'는 어린왕자, 잭스페로우, 체게바라와 돈키호테, 찰리체플린과 반 고흐 등 로봇으로 패러디 된 웃음을 주는 소재이고 '맛있는 산수'는 현대인의 이상향을 일상의 음식으로 산수화를 표현했다.

첨단 09번은 송필용 작가의 '청류'와 장현우 작가의 '신인류 연주', 봉선 37번은 강운작가의 '공기와 꿈'과 윤남웅 작가의 '꽃', 무등산을 오가는 1187번은 김해성 작가의 '꿈과 현실을 융합하는 유토피아'와 한희원 작가의 '꽃이 된 마을 양림동'이란 주제로 랩핑되어 운행되고 있다.

예향의 도시이자 문화수도를 표방하는 광주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가장 손쉽게 미술작품을 즐기고 접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고 있다. 이로써 광주 도심을 365일 누비는 '아트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에서도 디자인비엔날레 기간 동안 지하철 1편 4량 내부에 작품을 랩핑하여 운행해 오고 있다. 말 그대로 일상이 예술이다. 🌱 기원중 🍃



광주광역시청(대중교통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차평동)
☎ 062 613 4513

시대를 건너온 선물

비움박물관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무등도요 *

한너울 한복체험관 *

한지갤러리 우리 *

국립광주박물관 *

조선대학교 박물관 *



저 아름다운 오브제로 농사를 지었다고?

가득 참은 비워내고 비워내면 다시 채워진다. '비운만큼 채워진다'는 철학적인 이 공간은 입구에 선 순간 아름다운 오브제가 가득하다.

'저런 것이 있었더라면 말인가? 아름다운 저 오브제로 농사를 지었다고?'

어느 날, 옛 광주MBC 옆에 건물이 올라갈 무렵, 굵은 나무기둥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2층까지 빼곡한 나무로 만든 그 오브제를 보며 영혼을 뺏겼다.



옛 농부님들은 예술을 하듯이 농사를 지었었구나, 그러니까 똥항아리가 저리 아름답지~

익숙한 손놀림으로 다뤄주던 주인들과 구수하고 소박한 흙냄새를 갈구하는 농사 도구들은 한 겨울의 한가함으로 무언가를 비워내고 싶을 관람객을 기다릴지니.

질그릇들의 냄새를 맡으며 소박함 속에 풍요로운 시간이 있었음을 느껴보라는 듯이 당당하게 서있는 아름다운 농기구들에게 경의의 눈빛을 보낸다. 🌱

김현숙 ✍



옛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아는 비움박물관

온고지신-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다. 비움박물관을 다녀와서 갑자기 새삼스럽게 이 사자성어가 떠올랐다. 예스러우면서도 어쩔 이리도 새롭고 멋스러운지 감탄스러울 뿐이었다. 특히 비움박물관의 위치 또한 어쩌면 이리도 적절한 곳에 위치했는지 놀랍다.

위치적으로 이곳 비움박물관 있는 곳은 옛 광주읍성의 동문 위치이다. 또한 비움박물관 앞쪽에는 광주 폴리 중 하나인 독일의 건축가 플로리안 베이젠의 서원문제등 건축물이 있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알게 하는 하나의 예라면 다소 억지일까? 어찌되었든 옛 읍성 터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럴까? 비움박물관의 커다란 대문으로 들어설 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옛 성안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들어서자마자 커다란 항아리가 먼저 눈길을 사로잡았다. 뚝향아리란다. 어쩔 이리도 창의적일까? 독특한 주인장의 매력이 엿보였다. 비움이라더니 정말 비움의 전시물을 댄 입구에 전시해놓다니 참으로 기발하면서도 재미났다.

개인이 이렇게 많은 물건과 그 내용 또한 훌륭하고 정말 잘 보존된 보물을 소장하기까지 얼마나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였을까? 전시물 하나하나 마다 사연이 있을 것이다.

한 시간여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또한 많은 것을 내려놓게 한 시간이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혼하고 쓸모없는 것이라 여긴 것이 먼 훗날 추억이 되어 그리움과 정겨움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작은 것에 감사와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다. 🌱 최정오 🍃



비움박물관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43 1

☎ 062 222 6668

🌐 <http://biyumuseum.com/>

인류예술의 모태, 아프리카 조각의 진수를 만나는 곳

이곳의 조각품들을 보면서 문득 스페인 건축가 가우디의 '성가족 성당'을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어 여행을 떠났을 때가 생각났다. 그곳에서 발견한 인물상들에는 분명 아프리카가 스며있었다. 피카소미술관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깊은 영감을 얻었던 기억은 세계 인류의 시작이 아프리카라는 사실, 예술의 시작도 아프리카라는 깨달음에 기초한다. 또한 기본 모티프는 끊임없는 생명력으로 이어지고 변화되고 발전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쇼나조각은 무엇일까? 쇼나조각을 찾아 정리해보았다. '쇼나'는 짐바브웨에서 가장 큰 부족의 명칭이며, 이들은 독특한 석조문명을 이룩했다고 한다.

석수였던 소크라테스의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돌을 조각할 때는 계획적인 디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덩이를 가지고 그 안에 깃들인 영혼을 깨워 원래 담고 있는 형태를 조각해냈다는 것과 같다. 아프리카인들은 애초에 무언가를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속에서 형태를 끌어내는 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한다.



생각해보니 마음속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랑하는 가족이라든가 아프리카 자연 속에서 흔히 만나는 나무, 각종 동물 조각이 가장 많은 이유가 이해가 간다. 조각 재료로 쓰는 'SHONA STONES'은 짐바브웨에서 나는 사문암 종류로 2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색상이 있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고 느낀 것들이 결코 과장되거나 틀린 게 아니란 사실을 발견하니 더 반가운 마음이다.

다양한 미술품들이 갖추어진 이곳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가을 같은 날에는 커피 한잔과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

김현숙

도시 한가운데서 아프리카를 만나다

세계 40여국 5,500여 점의 조각과 그림, 세계 각국의 진귀한 수집품이 광주에 왔다. 입구부터 만국기가 훑날리는게 세계적인 전시물의 위상이 느껴졌다. 세계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임을 암시해주는 것이다.

로비엔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재미난 것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세계의 동전과 지폐부터 현관 앞에 달아놓는 종들, 세계 위인들의 미니어처 등 아기자기 귀여운 수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쇼나조각의 세계에 들어서니 장관이다. 쇼나조각은 아프리카 중앙부에 위치한 작은 나라 짐바브웨의 인구 70%를 차지하는 쇼나부족이 만든 돌조각이다. 조각 외에도 아프리카의 그림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특유의 원색이 인상적이었다.

전시 내내 멋진 조각품들에 한껏 매료되어 시공을 벗어나 낯선 곳을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다. 도시의 자동차 도로 한편에 신비한 짐바브웨 예술의 세계, 참으로 멋진 곳이다. 🌿

최정오



세계조각장식박물관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14(구 대동길거리)
☎ 062 222 0072

무등도요...

조상의 전통을 잇는다는 일의 큰 의미

유물과 유적이 문헌 기록보다 풍부한 정보를 간직하고 있다지만, 발굴된 청자를 보고 청자를 재현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 지역에서 최초로 성취한 이가 바로 고현(古現) 조기정(曹基正) 선생이다. 그는 무등민예사, 무등도요, 무등요, 무등토석문화연구소, 무릉도원, 무등도예연구소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작업장의 주인이었다.

현재 '무등도요'는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하고, 고려청자 연구에 평생 열정을 바친 고현조기정 선생의 작품 전시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1986년 9월 29일 광주광역시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된 조기정 선생은, 1997년에 광산구 연산동에 '무등도예·고현도예관'을 개관하였다. 그는 고려청자 재현에 안주하지 않고 '민예자기 운동'을 추구하였다. 민예자기란 '조상들의 유약과 흙을 이용하되 표현과 조형에서는 현대적인 예술적 감각을 가미해 오늘의 새로운 도자기로 창작'하는 작업이다.

지금 무등도요를 지키고 있는 이는 조기정 선생의 차남 조장현(曹長鉉) 도예가이다.

2007년 12월 20일 조기정 선생이 타계한 후,



유업을 계승하고 있다. 그는 전통도예인 옛것을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현대도예 작업 실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1대 고현의 유전자를 받은 2대 고현이 어떤 예술의 경지를 열어가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다음 말에서 아름다운 그의 열정과 철학이 진실하게 전해진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려 청자이므로 그것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자를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꾸준한 연구를 하여, 확실하다는 청자를 하나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자 작업을 하다가 쉬는 때때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방식, 거칠고 오래된 느낌을 내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청자에 걸맞은 흙과 다른 그릇에 걸맞은 흙이 따로 있으니까요.”  서연정 

옛 영광을 재현하는 고려청자 도요



조장현 도예사는 아버지와 같이 10년을 고려청자 재현사업에 참여하였고, 아버지 호인 고현(古現)을 2대째 쓰고 있다.

옛날부터 모든 장인들은 거의 비슷하겠지만 도공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천한 직업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 습득 과정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식들에게 물려주려 하지 않는다. 아마 고 조기정씨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둘째 아들인 조장현씨가 따라주는





전통문화의 전승이라는 점에서도, 또 한복과 관련된 지역 상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일상생활에서는 불편해서 안 입는다고 하지만 결혼, 명절, 각종 기념일 만이라도 한복을 입어주는 우리 옷 사랑이 없다면 그런 노력은 아무런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특히 청소년들에게 한복을 체험 할 수 있는 한복체험관이 할 역할이 많다. 대중들이 우리 한복을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복 사업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이양자

우리 옷 입어 보고 만들어 보고

충장로 4~5가는 한복거리였다. 1965년부터 한복집이 하나 둘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70, 80년대에는 100여 곳에 이를 정도였다. 지금은 영세한 60개 업체만 남아있지만 가업을 잇는 곳도 있다. 바로 동양주단, 동성주단, 토프론 주단 등이다.

동구는 지난 2003년 전통한복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한복의 거리'로 지정,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나섰다. 한복의 거리는 옛 명성이 되고,



대여문화가 더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한복에 대한 새로운 요구 등 시대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것도 침체의 원인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복의 거리'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해 5월 광주대학교와 동구청, 충장로 한복소공인 60개 업체가 손을 잡고 금남로에 '한복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설립한 것이다.

센터에서는 소공인 특화교육, 한너울 쇼룸설치, 명품 카달로그 제작, 공동전시회, 우리웃데이, 한복경진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복의 거리를 새롭게 하는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있다.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옷의 아름다움과 기능적 편리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복체험관이 마련됐다. 다양한 한복을 직접 입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입는 방법을 배우고 '트릭아트 포토존'에서 재미있는 포즈로 사진촬영도 할 수 있다.

전통소품 만들기와 제기차기, 윷놀이, 공기놀이 등을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존'도 마련되어 있다. 체험관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 김양근 🍀



한너울 한복체험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39 한국투자증권빌딩 3F

☎ 062 228 2348

🌐 http://blog.naver.com/g_hnu

한지갤러리 우리 ●●●

수십번 손동작이 빚어낸 한지미학의 절정



우리종이연구원 원장이자 왕인전통종이공예관 관장인 오석심 종이공예가 명장은 언제보아도 쓸어 올려 단정하게 뒤로 올린 머리와 단아한 생활한복이 잘 어울린다. 자르고, 매듭하는 수십 번의 손동작 형성의 미가 형체로 살아나 도자나 목공예 등과 버금가는 작품은 작가만의 독특한 창안과 연구로 창조해 작품을 이끌어 낸다. 명장의 활약은 광주지역의 공예가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이 주변인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한지 전문공예관인 전남 영암군 군서면에 있는 왕인전통종이공예관 운영 역시 한지와 생활용품과 한지 디자인상품 전시 판매 등 관광산업과 함께 대중적 공간으로 한지공예를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오석심 명장. 자신의 한지공예 작업이 바쁜 와중에도 끝없는 노력과 시도를 게을리 하지 않는 공예가로 정평이 나있다. 한 작품이 탄생되기 위해 수십 만 번의 손질과 화면으로 배치하여 다양한 품격의 미학이 창조되는 작품은 보면 볼수록 열정이 배어난다. 한지를 이용한 다양한 창조 조형 활동의 작품을 기대해본다. 🍀 김민숙 🍀

종이의 마음을 지닌 종이공예 명장 오석심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종이 공예 장인을 만나는 날, 웬지 모를 운치가 있는 날이다. 장인의 공방 건물 앞 야자수가 이색적이다. 아기자기 꾸며진 공방 앞 정원이 빗방울을 머금고 있어 더욱 운치가 있다.

명장의 작업실엔 많은 작품들이 있었다. 종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견고함과 디테일은 참으로 놀라웠다. 광주천이 내려다보이는 운치 있는 공방, 열린 창틈으로 불어오는 강바람에 공방 안 풍경소리가 정겹다. 한지 공예품의 종이 냄새로 잔뜩 취해 명장의 나긋나긋하면서도 웬지 모를 힘이 느껴졌다.

우연히 친구 따라 한지공장에 놀러가서 한지의 매력에 빠졌다고 한다. 거의 독학으로 오늘날 명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재미나게 들려주었다.

2013년 광주시 조례 4조에 의한 명장제도에 근거해 최초의 명장 1호가 된 오석심 명장은 90년대 초 광주시 재활용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 하기도 했다. 평소에도 재능기부 봉사활동과 후배 양성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항상 긍정의 마인드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명장은 나이를 기늙하기 힘든 열정으로 '꿈에서 피어나는 꽃'의 멋진 작품을 만든다. 아직도 순수한 꿈을 피우기 위해 초심의 마음을 간직한 채 열정을 쏟고 있다. 순수한 하얀 무색의 여러기만 한 종이의 재탄생, 멋지고 풍요로운 시간이었다. 🌱

최정오 /

한지갤러리 우리(우리종이연구원)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735
☎ 062 373 1667

아는 만큼 보인다

봄비가 예쁘게 내리는 선거일이다. 공짜로 얻은 휴일 같다. 오전에 일찍 만나서 탐방을 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관광해설사이시며 박물관 자원봉사를 하시는 선생님의 안내로 1층 상설 전시장부터 신창동 유물 전시관과 2층 도자기 전시장을 돌았다.

1층 중앙에서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이 반긴다. 국립 광주 박물관에는 두 개의 국보가 있다. 하나는 통일신라시대 평양의 중흥산성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에 의해 도굴 당할 뻔했다가 이리저리 아홉 번을 옮겨 다녀야 했던 슬픈 사연의 쌍사자 석등이다.



또 하나는 화순 대곡리에서 옛장수에 의해 발견되어 문화재의 가치를 찾은 청동기 시대의 팔주령이다. 팔주령의 세공기법이 우리가 예맥이나 오르도스-스키타이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이고 현재의 기술로도 재현불가능하다니 얼마나 의미 있는 유물인지 모른다.

박물관에 올 때마다 느낀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을, 보이는 유물보다도 그 속에 숨겨진 많은 이야기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앎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반성해 본다. 🍃 김도윤 🍃

신안 앞바다 유물에서 고인돌까지

아침부터 봄비가 부슬부슬 분위기를 돋우는 날씨다. 오늘은 선거일이라 여유가 생겨주중 오전 탐방을 하게 되었다.

이번 3차 탐방은 국립광주박물관 야외전시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참석한 한용섭 팀원의 안내로 박물관 1층에서 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김창중님을 소개받았다. 그는 노령이신데도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탐방 내내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물관 1층 상설전시장을 본 후, 2층 도자기 전시장은 구석기시대에서 삼국시대의 고분 출토품에 이르기까지 전남지역 출토된 유물과 신안 앞바다에서 발굴 인양된 도자기 및 금속유물, 목제품이 망라되어 전시되고 있었다.

박물관 밖은 봄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 본격적으로 카메라 장비를 챙겨 들고 야외에 전시된 유물들에게 접근해 본다. 박물관 규모가 너무 방대해서 그러는지 관람하는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다. 사진 촬영을 하려면 관객들이 있어야 멋진 구도를 잡을 수 있는데 어렵다.



108 광주전통문화



우리가 가장 먼저 찾은 야외 유물은 정원 동쪽에 전시된 청자가마다. 멀리서도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길이가 8.4m로 광주 박물관 전시품에서 가장 큰 자료가 아닐까. 이 가마는 강진군에서 발굴 조사된 것으로 1988년에 이곳에 복원된 것이다. 굴뚝 부분이 파괴되어 있으나, 불을 붙이는 봉통부분과 가마벽, 불창구멍 등이 남아 있어 청자가마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한다.

박물관 입구에서 왼편 야외전시물들은 요형석조물, 전 보안사지 부도 등이 있다. 광주박물관 야외전시물들 관람을 마치고, 입구 쪽을 향하고 있는데 저 앞쪽에 여러 사람들이 입장하는 모습이 보인다. 5-6명의 어린이들과 함께한 엄마들이 박물관에 들어서고 있다. 나는 이때다 싶어 카메라를 들고 그들 쪽으로 향했다. 촬영을 위한 기회다. 찰칵찰칵!! 🍀 이태연 🍀



국립광주박물관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 062 570 7000

차 한잔과 함께 문화재 관람



조선대학교 박물관은 호남선사문화와 김현승시인과 문학인 그리고 수기실(修己)로 구성되어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수업과 맞춰 관람할 수 있고 주말은 단체 예약 때 문을 연다고 한다.

학생들을 위한 재미있는 체험도 할 수 있는데, 폼페이 유적에서처럼 석고를 구멍에 부어 형체를 만들어 보는 '손가락 화석 만들기' 나 전통 장신구인 '곡옥' 활석을 이용해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도 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 대원들이 땀시도 목이 마르다 하여 차 한 잔을 부탁드렸다.

차를 마시기 위해 마련된 공간은 자신 몸과 마음을 바로 세우고 수련한다는 뜻의 수기실이다. 이곳에 앉아 고요한 가운데 몸과 마음을 닦는 선비가 되어

차 한 잔을 마시며 둘러보니 아름다운 연적과 기증된 귀한 서책도 바로 눈높이에 보인다. 묵향이 느껴지고 이 책장을 넘겼을 옛사람들의 모습도 그려졌다.

본격적인 탐방에 나선 우리 대원들은 '김수아 연구원'의 해설로 호남의 선사유적을 발굴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 비전 장치가 있어서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시청각 자료를 더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해냈다. 화면을 보자니 고조선 시대의 발굴유적중 주먹도끼와 숨개찌르개의 각기 다른 용도도 쉽게 이해하게 된다. 더구나 평범해 보이는 주먹도끼 하나로 인해 이곳 한반도가 서구와 수준이 같은 선사문화를 가진 증거가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도자기류는 정득주라는 동문의 기증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데 다양한 도자기의 흐름을 알 수 있었고 부장품으로 넣어진 청화백자의 묘지석도 처음 보게 되어 이채로웠다. 이 고장 출신 인물들과 과거시험에 얹힌 자료들도 재미있었다.

김현승시인과 조선대 출신 문인들까지 정리되어 있다. 세상에 유일할 것 같은 조선대 교가 가사인 '막는 것

산이거든 무느곤 못가랴~'는 조선대 교수를 지낸 김기림 시인이 작사하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설에 흠뻑 빠져들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마무리할 시간, 맨 끝에는 기념 촬영한 사진이 탐방기록 신문으로 인쇄되는 시설까지 갖춰져 새롭고 흥미롭다. 우리는 다들 손에 한 장씩의 인쇄된 탐방신문을 들고 마무리했다. 🌱 김현숙 🖋



조선대학교 박물관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서석실 2층
☎ 062 230 6333 🌐 <http://museum.chosun.ac.kr>



가슴 답답한 날에는 이곳으로

무등산국립공원 생태문화동산 *

광주벚꽃명소 *

신창지구 용수마을 *

풍영정천 *

도심 속 정원 매곡텃밭 *

신암마을 당산제 *

월계동 장고분 *

송화마을 만오정 *

청보라, 매발톱, 히어리 만발한 무등산 다님길

4월 13일, 오늘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일, 일찍 투표를 마치고 탐험길에 나선다. 동적골 입구에 도착하니 새벽에는 쏟아지던 비가 그 기세를 누그러뜨리며 보슬비로 변하였다. 빗속의 산책, 분위기가 그윽하다. 사진 촬영에 어려움이 있어 걱정스러웠는데 점차 날이 갠다. 보슬비가 고맙다. 비에 씻은 나무의 잎사귀들은 연두색 습자지처럼 맑고 투명하다.

깨끗하게 씻은 산을 바라보며 좋은 분들과 함께 걸으니 마음이 절로 치유되는 듯하다. 태고종 사찰인 현덕사 표지가 보이는 곳까지 씨목씨목 걸어간다. 무등산국립공원 생태문화동산이 조성된 곳은 2014년까지 동구청에서 틀림을 식재하여 축제를 개최했던 장소다. 2015년 6월 11일 생태문화동산을 개장하고 탐방객을 맞고 있다.

매발톱의 청보라 꽃이 이슬방울을 머금고 있다. 3월 19일에 딸아와 잤을 때엔 노란 손톱달처럼 한 개씩 달려 있던 히어리꽃은 그 사이 줄줄이 고리를 달고 지고 있으며, 피어나기 시작하던 할미꽃은 모두 졌다. 그때엔 아무 흔적도 없던 땅에서는 푸른 숨결이 번져 올라왔고 터널 모양인 털조장나무는 꽃떨기를 매달고 있다. 한 달도 안되는 사이에 봄이라는 계절은 참 많은 일을 해놓았다.

생태동산의 빨간색 풍차를 지나 동적골 쉼터 쪽으로 올라가다가 '마당 바위'에 잠시 앉는다. 호랑이가 와서 앉았다 가기도 하였다는 넓은 바위 위에 놓인 나무의자에서 이양자 선생님이 가지고 오신 사과와 토마토를 맛있게 먹는다. 무언가를 가지고 오셔서 나누어 주시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오늘 한 가지를 또 배운다. 공부란 끝이 없다.

마당바위에서 잠시 올라가니 버섯 모양으로 오그당당하게 생긴 동적골 쉼터가 나온다. 그곳에서 세 쌍의 노부부들을 만난다. 남자분들은 앞서 올라와서 우리가 앉아 있는 곳에 동석하고 여자분들은 뒤 따라 오다가 체육시설 앞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이 사랑스럽다.

이 주변에 천연굴이 있는가를 물었더니 한 분이 "무당굴이라고 해서 무당들이 굿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자그마한 굴이다."고 알려주신다. 세칭 '무등산타잔 박홍숙'이 살던 무당굴이냐고 물으니 그곳은 아니라고 한다. 우리가 내려갈까를 망설이는데, "이곳까지 왔으니 조금 더 올라가면 왼쪽으로 산길을 돌아서 생태동산 입구 쪽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권하신다. 그 길을 건지 않았으면 섭섭하였으리라. 빛나무의 낙화, 길바닥과 길가의 나무며 풀들에게 봄을 흐드러지게 선물하고 있었다. "이웃을 잘 두어서 나무들이 꽃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양자 선생님, 암만해도 시인이 분명하시다. 도란도란, 우리가 걸은 길은 '무등산자락 다님길'이다.  서연정 



선거날!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을 뽑는 날이면서 우리 팀의 동적골 탐방날이다. 추적거리는 빗소리를 뒤로 하고 투표장으로 가니 나처럼 일찍 선거를 마치고 황금 휴일을 만끽하러 가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동적골 생태문화 동산은 내가 사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아직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이다. 무등산 입구에서 팀원들을 만나고 동적골로 접어들었다.

우리가 탐험할 동적골 초입은 3구간 가족산책로가 시작되는 곳이다. 조금 걸다보니 운림제라는 야외결혼식을 할 수 있는 운치 있는 한옥이 있다.

요즘 결혼식장에 가면 자판기에서 캔 뽑아내듯 하는 기계적인 모습에 식상해 있었는데 이런 곳에서 꼭 소중한 분들만 모셔놓고 '작은 결혼식'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적골은 길이가 길고 물이 맑은 데다 길이 자주둥이나 마집봉 및 새인봉과 연결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책길이다. 원래는 조그마한 농로였는데 2004년 태풍 메기에 쓸려간 수해지역을 현재처럼 말끔하게 정비하였다. 이 골짜기에 대해



116 광주전통문화

여러 말이 있지만 동산(東山)이라는 마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동쪽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에서 유래가 된 듯하다.

이곳엔 맨발 산책로 400m와 왼쪽 산자락을 따라 2km 산책로가 나있는데 운동공간과 가족농장 등이 곳곳에 있다.

자연친화적인 산책로에 철쭉길, 동백, 홍매, 벚꽃, 유채꽃들과 이름도 알 수 없는 꽃들이 있다. 비록 밀자락이지만 많은 꽃을 한꺼번에 봐서 좋다.

계곡에는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팔짝팔짝 노니는 개구리들이 있는 이 길을 걸다보니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떨어진 벚꽃이 꽃길을 만들어 준다.

현덕사 주변에 3400㎡ 터에 2010년 조성했다는 튤립꽃동산이 있는데 지금은 튤립 몇 개만 눈에 띈다. 그래도 튤립과 어울리는 동화에 나올법한 풍치가 있다. 생태문화동산이 끝나는 부분에는 무등산 특정식물 24가지의 씨앗 보관용 <씨드뱅크>를 볼 수 있다.

특히 우리 세대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생인 무등산 자생식물 씨드뱅크가 의미 있게 다가온다. 그래도 <씨드뱅크>에 채워야 할 빈 공간이 더 많다. 더 많은 야생화나 나무들의 씨앗이 꼭 차 있으면 더 많은 교육적 목적이 될 듯하다. 🌱 장미경 🍃



무등산국립공원 생태문화동산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동적골 일대
☎ 062 227 1187

꽃비 맞으며 추억 한 줄 만드세요

60~70년 된 수십 그루 벚나무가 한 무더기를 이루는 상록회관 벚꽃은 이미 오래전부터 광주 송정간도로 벚꽃 길과 함께 시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러다



10여년 이쪽 저쪽 시점부터 시내 여기저기에서 벚꽃 구경을 쉽게 할 수 있을 때부터 그 인기가 다소 시들었다.

머지않아 상록회관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지만 벚나무 군락지는 원형 그대로 보존되며 산책로와 진입로가 새로 생겨 훨씬 좋은 환경으로 남게 된다.

작은 호수공원과 어우러진 '쌍촌동 운천저수지'와 '침단 쌍암공원' 외에도 '운암동 중외공원' 벚꽃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찬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밖의 벚꽃 명소로 '송정공원', '전대 캠퍼스', '운암3단지 안', '광주여상 교정'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광주여상은 매년 4월 1일을 '벚꽃데이'로 정하여 교내 행사를 한다.

오가는 길손에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쌍송간



도로', '풍암동 월드컵경기장', '동천동 광주천변', '칠구재-도곡', '너릿재 구도로' 등도 벚꽃명소다.

특히 광주천을 한층 꾸며주는 동천동 천변 벚꽃 길은 4월 초 광주시민을 벚꽃 열풍 속으로 휘몰아 간다.

이르면 3월 말 조금 늦어도 4월 초순, 아직 아스팔트길이 차갑다고 느껴질 때 광주의 벚꽃은 만개하여 관람객을 부르고 있다. KTX도 개통되어 전국 어디에서라도 광주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꽃비 맞으며 추억을 만들어 가시라. 
한용섭 

운천저수지는 어떻게 탄생되었나

서구 쌍촌동 운천 호수는 지하철 운천역과 상무역 사이 대로변에 있는 도심 속 호수다. 면적은 74,020㎡ 주변 외곽산책로 1.2km 호수내 나무산책로 500m가 조성되었다. 호수 안에는 인공 섬과 팔각정 외곽을 잇는 산책 나무다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호수 외곽에는 벚꽃나무숲이 조성되어있다.

운천호수는 본래 광주 광산군 서창면 풍리민들의 농업용수 관계시설이었다. 하지만 벼, 보리를 재배하지 않고 고등원에 하우스나 도시개발로 인해 저수지의 역할이 필요 없게 됐다. 저수지를 용도 폐지하여 아파트를 건립하자는 검토가



시작되자 뜻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보존이 가능했다.

운천호수는 1960년대에 보트놀이를 했던 연인들의 추억을 안고 있는 곳이었다. 한때는 도시개발로 인해 생활 쓰레기가 비에 쓸려오고 각종 오물과 동물사체, 생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장소로 전락했다. 악취가 진동하며 흉물이 되자 매립하지는 건의도 있었다고 한다.

1995년 운천저수지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폐수 유입 차단과 수질환경 개선에 노력하여 팔각정, 레이저 불빛과 LED조명 빛을 받아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듯한 분수쇼를 여는 등 변화를 거듭한다. 그 결과 지금은 도심 속 명품 호수로 시민들의 정서를 고취시켜주는 아름다운 곳이 되었다.

운천지와 관련된 설화가 있다. 운천지 옆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는데 숲속에는 백석사라는 절이 있었고 사찰 경내에는 석불이 있다.

일제강점기 때 운천지로부터 시오리 떨어진 산골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 단둘이 가난하게 사는 용수는 뽕밭의 석불 앞에 돌덩이를 매일같이 하나씩 쌓으면서 죽은 지 얼마 안된 동생 용덕이를 돌아가신 엄마 곁으로 데려가 달라고 빌었다.

매일같이 빌면서 하나하나 쌓았던 돌이 석불 무릎까지 올라 올 무렵 일본인 부호가 자기 정원에 석불을 세우기 위해 옮겨간 후로 집안에 재앙이 끊이지 않자 석불을 절로 옮겨 놓게 된다. 옮겨간 절에서도 주지스님이 앓아눕자 절에서 방죽에 석불을 버렸다고 한다.

용수는 그것도 모르고 사방으로 찾아다니다 방죽 인근에 당도할 무렵 안개 자욱한 건너편에서 돌부처 모습이 나타나더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동생 용덕이 손을 잡고 나타나자 용수는 그리운 마음에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지만 물속으로 빠지고 난후 다시는 용수가 떠오르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그 일대의 돌들이 하얗게 변해 백석굴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화다.

또한 호수 한 켠에 있는 시비가 있다. 「물 담은 호수는 꿈이요 희망이다 새들의 날개 짓, 연꽃 향기, 흰 구름 아이들의 웃음 속에 운천지의 평화가 있다」 시비에 적힌 운천지의 천(泉)자는 당초 천(川)으로 조각되었다는데 동네 원로 분들이 잘못됨을 알고 본래 구름샘의 천(泉)자로 다시 메꾸고 수정하여 그 흔적이 다른 부분과 다르다고 한다. 도심 속 아름답고 역사가 있는 호수공원을 아끼고 사랑하며 생활 속 습터로 잘 활용하면 좋을까 싶다. 🍀 기원종 🍀



광주벚꽃명소

- 광주천 수변생태공원: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일대
- 상록회관: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일대
- 쌍암공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일대
- 운천저수지: 광주광역시 서구 생촌동 일대

신창지구 용수마을...

세상에서 동떨어진 천상의 공간

73채의 멋진 주택들이 제각각 뽐내며 예쁜 정원과 어우러져 눈길을 사로잡았다. 입구에 용수마을 입주자들이 직접 세운 지석에는 용수마을이라 명명한 이유가 있다.

“앞산은 암 용의 형태이고, 반촌제의 물이 좋아 용수 마을이라 하였으니 용처럼 복되고, 물처럼 어질어 마을에 평화와 행복이 넘쳐흐르도록 이 비를 세워 기원합니다.”



2008년 한국 토지공사에서 ‘우리 마을 아름다운 집’ 공모에서 광주에서 두 채가 입선되었는데 그게 모두 용수 마을에서 나왔듯이 주변과도 잘 어우러지 하늘을 배경으로 선의 아름다움이 한껏 배어나온다.

약간 언덕배기에 위치해 있으며, 아래로는 반촌제 산책로와 연결되어 있어 볼거리가 많은 산책코스로 추천을 하고 싶다.

가로등 디자인이 옛스런 스마트 가로등으로 비오는 날이나 저녁이면 더 운치가 날 것 같다.

담장이 낮아작 집의 고급스런 취향이 고스란히 보여상상과 부러움을 자아낸다.

“이렇게 이쁜 곳에 땅을 밟고, 공기 좋은 곳이 어디 있잔디!! 식구들이 모두 다같이 좋은 곳에서 사니 그게 가장 좋은 점이지.”

대원들은 마냥 이상향처럼 이런 저런 설정에 취해 포즈를 잡고 사진을 찍으며 주택가에 난 산책길로 들어서니 시화가 설치되어 있다. 모두 광주에서 태어난 시인들. 대원 중에 아는 시인도 있었는지 “안도현 시인의 시도 여기가 있네.” 반가이 시를 읽으며 걷는다.

산책로를 따라 내려가면 대략 15,000년 전부터 있었다는 반촌제를 옆에 둘 수 있다. 지난해 꽃 피우고 진 마른 연꽃대사이로 공통마냥 어른 팔보다 긴 잉어들이 떼로 지어 다니며 물 위로 튀기도 하는데 그 크기에 깜짝 놀라 사진 찍기보다는 다른 대원을 불러 보이고는 후회하기도 했다.



“아~~ 이런 건 적어놔야 하는데.. 이렇게 큰 전쟁 볼 수 없어 정신이 나갔나 보네. 애네들 대체 나이가 몇이나 되었을까? 잉어도 오래되면 용이 된다는 전설이 있는데 전설이 실화라면 이쪽근방.. 남쪽은 황룡강, 북쪽은 청룡강, 앞산은 암룡을 닮았다니 이곳에서 많이 용으로 승천했을 것 같네.”

반촌제를 따라 걷다 갈대 사이로 보이는 용수마을.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칼 같이 각을 세운 주택은 마치 고층 아파트와는 다르게 언덕에 위에 있어 더욱 세상과 동떨어진 사막의 신기루 같기만 하다.

🌿 이영화 🖋️

정원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네!

<용수마을>

이호준(시인)

무등 마주보고 그 향기 받아들이며	가슴앓이 치유하는 곳
반촌제 수면 위에 김처럼 모락거리는 꿈	오래도록 익은 묵은 지 같은 사랑으로
은은히 배어드는 곳	함께 안아주며
지신 밟아 일군 터에 오순도순	열정과 지혜가 남실남실 어우러져
복들이 머리 맞대며	고이 숨 쉬고 있는 곳
세월 끝자락에 서서 알토란 같은 정 나누며	

이호준 시인이 써내린 내용 만큼이나 의미가 있고 알토란 같은 정이 넘치는 마을일까? 용수마을은 2004년 토지공사의 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작은 주택마을이다. 우리나라 철기시대 및 원삼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적지 375호와 반촌제가 있어 건너편에 자리잡고 있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전원마을이다.

전국 주거전용 지구중 유일하게 공유지에 세대당 1.7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며, 도로가 넓고 시야도 환하며 좁은 골목은 없다. 도보 10분 이내에 초, 중, 고, 대학교가 2개가 있다. 이만하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천천히 한껏 여유를 부리며 마을 길을 걸여 보았다.



남해 독일마을 못지않게 아름답고 예쁜 주택들... 각각의 독창적인 모습을 자랑하며 미소를 보낸다. 우리가 탐험 한 날은 화창한 날이며, 예쁜 봄꽃들은 각 집의 정원에서 서로 자신을 뽐내려고 아름다움을 뽐내며 발길을 멈추게 한다.

벚꽃, 동백, 철쭉, 산수유, 매화, 장미, 수국 수십 가지 꽃들이 주택의 정원과 길가에 곱게 피어나는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주변을 내려다보니 생태연못 반촌제와 역사공원의 산책로 주변에 초록옷을 입은 듯 싱그러움 가운데 곳곳에 피어나는 형형색색의 꽃 잔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잃은 듯 한참을 내려다 본다.

이곳 주민들은 모여서 자체적으로 정월 대보름엔 달맞이를 하고, 소원 태우기 이름으로 달집태우기 행사도 하여 농악놀이로 집집마다 들어가 멋진 한해를 기원하는 행사를 한다고 한다. 주민들 스스로 마을 공동체의 정신을 실천하며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용수 마을을 만들어 가는 주민들의 위상이 더 부러워지는 오늘의 탐험이었다. 🍀 김영희 ✍



신창지구 용수마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왕버들길로307

풍영정천 ●●●

편리함보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택한 사람들

12명의 수완지구 주민들이 자발적 시민모임을 하고 있는 도깨비도서관에서 들뜬 전문가인 임미숙씨를 만나 풍영정천 사랑모임 이야기를 듣고 왔다.

수완지구가 개발되면서 하나의 랜드마크가 된 풍영정천은 장성에서 광주하남 산업공단, 수완지구, 운남지구를 거쳐 내려와 극락강과 합해져 영산강으로 흐른다.

옛 문헌에는 12개의 정자가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이었으나 지금은 풍영정만 남아있다. 2009년 시작된 '풍영정천 사랑모임'에서는 하천공부를 통해 도심 속 하천이 주는 이점을 알고 초등학교를 상대로 교육하는 일과 모니터링, 마을 축제 속에서 많은 관심과 끌어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섬세한 손길로 놓은 정점다리, 시멘트 길의 편리보다는 풀과 물을 위한 환경도 고민해야 한다는 말에 다시 한 번 자연을 대하는 자세를





돌이켜보게 되었다. 긴 시간 후에도 아이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고 싶어 열심히 공부하고 풍영정천 보호활동을 펼치는 이런 시민모임이 정말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우리 대원들과 함께 아파트 사이를 통과하여 풍영정천을 찾아갔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바로 옆에 다리도 있고 물줄기가 흐르는 모습이 참 좋다. 정말 시원한 바람줄기가 지나간다. “우와~ 여기만큼만 와도 공기가 다르고 시원하구나~.”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하천가에 조성된 자전거길, 산책로에는 싱그러운 자귀나무가 벌써 자태를 보여주고 있다. 마치 아이들이 울망줄망 모여 활짝 웃을 터트리듯 개망초들이 하늘거리는 모습, 노란 나비를 발견하고는 행여 달아날세라 조심조심 촬영하며 한 낮의 풍영정천을 노닐다 왔다. 🌱 김현숙 🖋

도시 속을 흐르는 소중한 생태하천

풍영정천은 장성군 진원면 울곡리 온곡저수지에서 시작하여 광주 하남 산업단지와 수완지구 운남지구 등을 거쳐 광산구 우산동에서 영산강으로 합류하는 지방2급 하천이다. 하천의 총길이는 20km 중 광주시 구간은 7km, 현재 수완지구에서 3km 가량 떨어진 장성군 남면 백운저수지에서 1일, 2만 5천 톤의 하천유지 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도시 속을 흐르는 소중한 풍영정천을 아름다운 생태하천으로 가꾸고자 하천에 대한 공부도 하고 정화 활동도 함께 하는 모임이 바로 풍영정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풍영정천 사랑모임이다. 대표이신 임미숙 선생님을 만나 수완지수도심 속을 흐르는 풍영정천의 역사와 문화를 듣고 배우게 되었다.

풍영정천은 2010년 국토해양부로부터 고향의 강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시민들의 여가활동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장덕동 하남대교에서부터 월곡동 끝웃교까지





2.9km 고수부지와 제방 등의 산책로와 어울보, 정검다리, 풍영정의 정자가 세워졌다.



꽃창포, 물억새, 갯버들, 애기뽕풀, 달맞이꽃 등 들풀과 들꽃들이 시원한 녹색의 향연으로 시민들에게 옛 향수를 느끼게 한다. 심신의 휴식과 건강한 여가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풍영정천 물줄기는 시민들의 더위를 식혀준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2003년도에 시민들이 시작한 광주시민센터의 풍영정천 사랑모임. 하천의 자연생태 보존과 자연을 지키고 아끼는 일에 앞장서는 풍영정천 생태모니터링은 풍영정천을 잘 보존하고 건강한 생태 하천으로 가꾸기 위해 하천의 상태와 변화를 직접 관찰하고 기록한다.

풍영정천의 식물, 나무, 곤충, 새, 물고기 등 각종 동식물들이 살아가기 좋은곳, 사람들이 휴식하고 놀 수 있는 곳으로 풍영정천을 가꾸고자 한다.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도심 속 수변공원 풍영정천을 만드는 일에 시민모두가 함께 노력하며 가꾸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

김민숙 🍃



풍영정천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안동215번길 8

도심 속 정원 매곡텃밭 ●●●

농부의 마음을 일깨우는 도심 속 정원 텃밭

밭을 일구는 사람은 크든 작든 농부의 마음이 짐을 갖고, 이른 새벽부터 잠을 떨치고 내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내 밭을 향해 나간다. 텃밭을 탐방한다고 생각하니 새벽 5시에 절로 눈이 떠졌다.

어릴 적 흙과 더불어 살아온 터라 나도 모르게 그 새벽에 다른 때 같으면 먹지도 않았을 아침밥을 든든하게 챙겨먹고 출발을 했다. 하백 초 후문에 위치, 산자락 끝에 밭이 길게 늘어서 있다. 하얀 꽃말 30여 개가 제 각기 이름을 달고 여기 저기 밭에 박혀 있다.

이슬을 머금은 싱싱하게 자란 채소 잎이 역명에 빛을 발한다.

‘사랑스런 하운이네’ 텃밭에 부부가 나와 풀을 메고, 채소들에게 물을 주고 있다.

손녀 이름이란다. 집에서 가까운 텃밭 분양을 한다는 걸 뒤늦게 알고 분양을 받아



여러 가지 채소를 키우고 있다. 봄에 꽃 피운 가지에는 벌써 어린 가지가 열려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잘 크지 않던 하얀 민들레가 밭에서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며 자랑을 하신다.

그 옆에 ‘우주를 보리라’라는 텃밭은 풀이 무성했다. 풀을 좀 뽑아줄까 해서 큰 풀을 뽑고 있는데 아주머니께서 내 행동을 말리며 “아이고, 그거 뽑지 마. 풀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거야. 그 아빠는 풀 키우고, 딸내미는 그 작은 땅에 뭐가 심었을 걸! 잘 보면 있어.”

길게 자란 풀 사이에서 째 채소가 작고 건강하게 둥지를 틀고 있었다. 맛은 편 ‘건주네’ 텃밭은 아주 잘 가꾸어진 텃밭으로 상추와 부추가 길게 자랐다. 가꾸기는 잘 가졌는데 제 때 거둬야 할 때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일을 했으면 그 결과를 아주 맛있을 때 맛보는 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든다.

여러 어린이집에서 텃밭 체험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광주에 있는 이름 모를 유치원, 어린이집을 건 꽃말 뒤로 토마토, 상추, 고추 많이도 심어 났다.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심어 튼튼하게 자랐다.

도심 안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시골 분위기의 마을과 텃밭, 텃밭 이용자들은 카카오톡을 개설해 한 마을의 이웃처럼 소통을 하고 있다. 🌱 이영화 🍃



도시농업의 꿈을 되살려준 텃밭



텃밭에 도착하니 입구에 보라색 꽃 한 무리가 예쁘게 단장을 하고 맞이해주었다.

‘도심 속 정원 텃밭 은동산’이라는 꽃말이 꽃들과 함께 다소곳이 자리하고 있다. 밭에는 부부 한 쌍이 나와서 상추 등 먹거리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부인은 앉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남편은 서서 손짓으로만 지시하는 모습에 웃음이 나온다.

어디서든 여자들은 일을 놓을 수가 없나 보다. 자식들 집에도 갖다 주려고 많은 양의 무공해 야채를 준비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도심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화초와 야채들이 파릇파릇 싱그럽다. <생각, 마음, 몸도 쑥쑥 파이팅 어린이집>, <태봉골 아이들>, <어여쁜 예은이네>, <너도꽃>, <봄빛 공방>, <우주를 보리라> 등 텃밭 주인들의 꽃말도 재미있다.

새벽부터 분주하게 준비하고 온 보람을 찾기 위해 주인이 잘 오지 않는 남의 텃밭에서 싱싱하게 하고



예쁘게 자란 상추를 한줌, 구색을 맞추기 위해 껌잎 몇장, 쪽갓 몇 잎을 서리했다. 무공해라 대충 씻어서 고추를 넣은 찜밥은 정말 꿀맛이었다. 이런 재미로 텃밭을 가꾸는 건가 보다.

건강을 위해 먹거리도 좋지만, 함께 텃밭을 가꾸는 이웃과 대화도 나누면 공동체 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처럼 지역과 사람을 살리고, 마을공동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도심 텃밭 탐험으로 나도 우리 옥상에 조그만 상자 텃밭이라도 만들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좋았다. 🌱 김영희 ✍️



매곡텃밭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하백초등학교 일대

신암마을 당산제 ...

주민 화합과 안녕을 비는 자리

보호수로 지정된 신암마을 당산나무는 1982년 지정 당시 이미 280년이 된 노거수다. 지금은 300살이 넘었다는데 아직도 푸릇푸릇하고 신뜻한 기운으로 넓은 품안에 지친 사람들을 품어주는 왕버들 나무다.

당산 어린이공원 옆에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당산나무는 풍암지구 개발과 더불어 할아버지 나무를 잃고 외롭게 마을을 지켜왔다. 얼마 전에 마을 사람들이 마주보는 곳에 어린 신랑을 심어주었으니 아직 싹이나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이 당산나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이렇게 푸릇푸릇한 나뭇잎을 거느리며 주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주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진다.



매년 정월대보름이면 지역과 주민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며 주민 화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신암마을 당산제'가 지내진다고 한다. 2016년 2월 22일 정월대보름 당산제에 참여한 서구청장은 “당산제는 마을의 풍요와 무사평온을 염원하는 지역공동체의 의례였으며, 이를 통해 마을의 발전과 동네화합을 다져왔다. 이곳 신암마을 과거 자료를 보면 유친회, 형제회 등 많은 상호부조의 모임을 조직하여 마을의 대소사가 발생할 경우 회의를 열어 해결해 나갔고, 동네 청년들은 어르신들의 안부를 아낀, 저녁으로 여주었으며, 특히 96년도 당시 장수마을 전국 14곳에 지정되어 광주 제일의 장수촌이었다. 이렇듯 풍암골은 아름답고 살기좋은 공동체의 역사가 있고, 그 중심에는 끈끈한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신암마을 당산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행사의 의미를 말했다.

2017년 정월대보름에는 당산제에 참여하여 소원을 빌고 모든 사람들의 무병과 화합을 다짐하고 지역과 나라의 평안을 빌어야겠다. 🌱 이양자 🍃



그들의 깊이와 운치마저 다르다

전국이 활활 타오르는 한여름이다. 에어컨이나 선풍기에서 내뿜는 바람이 아니라 자연의 바람을 풀어 주는 나무가 그렇다. 더구나 그 나무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당산나무그늘이라면, 그들의 깊이와 운치가 남다를 것은 자명하다.

우리 선조들은 마을을 지켜주는 신령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공경과 숭배는 제사라는 의식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제사는 일 년에 한 번 대체로 정초나 정월 열나흘날 밤 자정 무렵에 거행되었다.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비는 행사였기에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하는 큰 행사였다. 신령한 나무라고 마을 구성원이 합의한 나무를 당산나무로 정하고 그 나무에 지내는 제를 당산제라고 하였다.





2016년 2월 22일 월요일, 서구 풍암동 신암마을정월대보름 당산제에 참석하였다. 그날 오후 5시30분부터 풍물패 길놀이가 시작되어 흥을 돋았다. 공원 한쪽에 소원지를 적어 거는 탑이 마련되어 있었다. 흔히 '달집' 이라고 부르는 것을 여기에서는 '소원지탑' 이라 명명하였다. 사람들은 한 해의 복을 비는 각종 덕담을 적어 걸었다. 잔치마당이 펼쳐지니 신이 난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다녔다. 학원에 묶여 지내느라 공원에는 얼굴도 빼죽하지 않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풀려다니는 모습을 보니 절로 흐뭇하다.

지전춤이 끝나자 당산제를 마치고 열린 소원지탑 태우기는 장관이었다. 불길에 모든 흉한 일들을 태워버리는 듯 검푸른 하늘을 향하여 타올랐다.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모든 행사가 끝난 후에는 간단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

날씨는 무척 추웠다. 소원지탑을 태울 때는 날아다니는 불티가 옷에 달라붙어 불구멍이 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도심에서 체험한 당산제는 감동적이었다. 필자는 한껏 뿌듯한 마음으로 시조를 한 수 써서 문예지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둘러보면 주변은 빙 둘러 거대한 아파트들이다. 정월에는 앙상하던 가지들에 푸른 나뭇잎을 풍성하게 늘어뜨리고 오가는 사람들을 맞이해 준다. 병풍처럼 당산나무를 둘러 있는 사람들의 숨결에 당산나무도 즐거운 모양이다. 사람은 나무를 보살피고 나무는 사람에게 그들을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이미지, 도심에서 보기 어려운 무척 평화로운 풍경이다.  서연정 

도둑까지 막아주는 마을지킴이

마을 뒷산 금당산의 가을 단풍이 아름다워 신암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호반에 있던 주막에서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주재소 수석과 조선인 동경유학생이 <여자정신대 문제>로 크게 다툰 피 끓는 조선남아의 항일분사사건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문화재원으로는 마을 어귀에 선사시대의 유물인 입석이 서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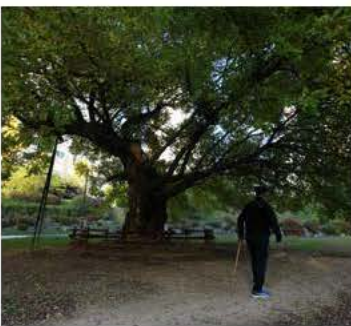
신암마을 당산나무는 어린이공원 내 왕버들나무로 수령이 300년이나 되었다. 1982년 팽주의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정월대보름이면 풍요와 안녕을 기리는 '신암마을 당산제'가 열린다.

'풍암골 신암마을당산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펼쳐 지는 행사는 가족의 안녕과 지역의 평안을 기리는 한편, 전통세시 풍속을 계승하고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기리는 한마당 축제로 진행된다.

식전행사인 풍물패 길놀이를 시작으로 초헌, 메울리기, 아헌, 재배, 종헌, 침작, 소지, 음복, 헌식 등 전통세시풍속을





그대로 재현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당산제가 끝난 후 주민들은 한지에 소원을 적어 소원지탑(정삼각뿔모형)을 태우면서 가족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화합을 기원한다.

당산과 관련된 영험담도 구전되고 있는데 이 마을에는 도둑이 들지 못했다고 한다. 도둑이 물건을 훔쳐 도망을 쳤으나 날이 새서 보니

당산 주위만을 땀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마을에 도둑이 들지 못했으며, 그 이유는 마을을 당산신이 지켜주기 때문인 것으로 믿고 있다. 🌿

김양근 🍃



신암마을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당산여린이공원 앞대

월계동 장고분 ...

아파트 한가운데 시간박물관

첨단아파트 한가운데 역사적 유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차로 지나칠 뿐이었다. 강렬했던 태양은 어둠으로 내려왔지만 도심 속 불빛에서 우리 대원들과 장고분을 찾았다.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삼국시대의 고분군으로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20호다. 월계동 장고분은 무덤의 생김새가 장고와 닮은 전방후원형 고분이다. 1990년대 광주첨단과학단지조성을 앞두고 발굴됐으며 1997년에 현재와 같이 복원되었다.

발굴 결과 삼국시대인 5~6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검을 안치한 석실을 만들고 그 외에 봉분을 쌓았으며 봉분 바깥에는 도랑을 둘러 폈다. 이 무덤은 생김새나 출토유물이 고대 일본의 무덤들과 닮아 한국과 일본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는다. 13,850㎡의 부지에 장고분 2기가 놓여있다.

영산강의 지류를 낀 낮은 구릉에 자리한 장고분.

이 일대는 팽주첨단과학산업단지로 조성됨에 따라 현지 보존을 위한 2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1993년 1차 조사는 시굴조사로서 장고분 2기의 범위를 파악해 보존구역이 결정되었고, 1995년 2차 조사에서는 두 장고분의 주구가 전면 발굴되었다.

제1호분은 규모가 전체 길이 45.3m, 원부 직경 25.8m이다. 장축은 서북서-동남동 방향을 취하고 있으며, 방부는 서북·서쪽을, 원부는 동남·동쪽을 향하고 있다. 주구는 방패형을 띠고 있어서 방부와 원부 폭은 8m인데 반해 허리폭은 14m 내외에 달한다. 석실은 횡혈식 석실로서 현실은 길이 4.5m 내외, 너비 3m 크기의 장방형이다.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덧벽의 높이는 약 2.6m이다.

제2호분은 규모가 전체 길이 34.5m, 원부 직경 20.5m이다. 장축은 동에서 북으로 약간 기운 동서에 가까운 방향을 취하고 있으며 방부는 서쪽, 원부는 동쪽을 향하고 있다. 주구는 제1호분과 마찬가지로 방패형을 띠고 있다. 석실은 연도를 갖춘 횡혈식 석실로서 현실은 길이 3.8m, 너비 2.4~2.5m 규모의 장방형이다.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덧벽의 높이는 1m 정도이다.

두 장고분 모두 석실 내부가 이미 도굴되어 약간의 유물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주구에서는 원통형 토기와 나팔형 토기를 비롯한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독특한 분구형태와 함께 두 장고분의 연대,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1994년 2월 18일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 김민숙 🖋



어둠 속 장고분이 들려주는 이야기

한밤중, 도심의 불빛 속에서 찾은 장고분! 낮 시간의 분주함 가운데 숨어 있다가 한 밤에야 깊은 속마음을 보여주는 듯이 우리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다.

“나야~ 장고분, 너무 심심했는데, 반갑다. 여기 처음이지? 이곳을 소개해줄게.~”
나는 삼국시대라 불리우는 시대로 주축인 세 나라가 한참 세력 다툼을 벌이던 시기에도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잘 나가던 곳이었어. 이 너머에 있는 산동교 알지? 바로 그 동네는 지름이 1.5미터인 수레바퀴가 남아 있는 ‘신창동 유적’ 이야. 그리고 칠천지라 불리는 이 주변은 옷칠이 이미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쓰이던 동네야. 아주 우수한 도료지, 천연 페인트라고~ 그런데 지금도 신기하게 평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첨단’이란 이름으로 개발된 걸 보면, 이 장고분의 주인인 내가 살던 5~6세기 그 시대나 지금이나 최고로 잘나가는 지역의 역할을 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해!~



나의 휴식처 이 장고분 모양은 앞쪽은 네모, 뒤쪽은 원형을 이어 놓은 모양이야. 그래서 ‘전방후원’이라고 불리고 돌무더기가 쌓인 돌무덤으로 구멍 뚫어진 토기도 같이 묻어졌는데 본 적 있을까? 내 무덤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짐승이 해를 끼치지 못하게 지키려고 빙~ 둘러서 도랑도 만들어 놓아서 내가 귀찮은 일 없이 조용히 지내왔지. 그러다가 첨단지구를 개발하던 1990년 발굴되었어. 나랑 같이 생긴 장고분이 저~기 하나 더 있고, 명하동에도 한 기가 더 발굴되어 있단다. 앞으로 기록이 나온게 없어서 나의 무덤을 더 연구해야하니 심심하진 않을거야~ 종종 놀러와!~” 멋진 소나무 앞뒤를 가린 채 늘 고요했던 장고분의 생김새가 정말 이채롭다.

앞으로 많은 연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영산강유역의 웅관묘와 더불어 이 지역만의 독특함을 보여주는 장고분을 무더운 여름날 저녁, 환한 달빛조명 아래 꼭 보러 가기를 권한다. 🌿 김현숙 🍃



만오정, 세상풍파에 지쳐있는가



노대동에 5년이나 살았으면서 만오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효우로를 지나 화순방면으로 가다 보면 노대마을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마을 경로당에 가서 물어보기로 했다.

그런데 팀원들과 노대마을로 가다 길을

잘못 들어서 노대 송화마을아파트 7단지 뒷길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앞 길가에 초라한 정자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닌가. 살면서 가끔은 실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결과는 성공이 되고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실패일 때가 있다. 운전하시는 최 선생님의 실수가 우리를 쉽게 만오정으로 안내해주어 팀원들이 한참 웃으며 반전인생에 대해 논했다.

노대동 휴먼시아 7단지 뒤편의 좁은 사이길에 사람들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만오정은 세상풍파에 지쳐있는 정자였다. 정자 옆에는 고압전신주가 있으며, 관리가 되지 않아 먼지 낀 정자의 마루와 이웃한 식료품납품업체가 같은 마당을 사용하고 있다.

마을의 긴 역사와 조상들의 풍류가 있는 운치 있는 정자를 상상했는데 관리 받지 못해 허술한 천덕꾸러기 같은 정자를 잔하게 느끼며 마을 쪽으로 걸어가 보았다.

자료를 찾아보니 이 정자는 함안 윤씨인 윤희진, 윤희성 형제가 조선말기 학자인 부친 만오 윤하겸의 만년 휴식을 위해 지었다고 한다. 가난하지만 사람을 좋아하는 윤하겸의 주변에는 많은 묵객들이 모였는데 이들을 접대하기 위해 집 옆에 조그만 집을 지었으나 무너지고 다시 장소를 옮겨 지은 곳이 현재의 만오정이라 한다.

윤하겸이 90세인 1902년에 이 정자를 지었는데 하겸에 대한 가의(嘉儀) 직급의 수직(壽職)이 제수되는 경사를 함께 맞게 되었다고 한다. 만오라는 뜻은 뒤늦게야 과거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후회의 뜻으로 붙인 것이라 한다.  이양자 



오늘 내가 간 발자국이 곧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노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분적산이다.

주민들을 만나러 노대마을로 향했다. 윤씨 종가집에 시집와서 40여년 동안 생활해 왔던 나이가 지긋하게 든 여자 분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윤씨 집성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작은 들판에서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 큰 뒤주에 넣어 같이 사용했으며, 자녀들은 노대 서당을 통하여 교육을 시켰다 했다.

그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 정도의 큰 우물이 유적으로 남아있었고, 현재 노대마을의 윤씨는 20여 호가 살고, 다른 성씨도 같이 살고 있다. 터를 경작하여 주말 농장으로 빌려주기도 한다.



마을 뒤편에는 진독서실이라는 이름을 갖는 건물이 있고, 이곳이 서당역할을 했다. 좀 더 좋은 시설을 위해 바로 앞쪽에 신축건물을 지어 문학관으로 사용한다 했다.



나오다보니 마을 벽면에 정재 윤영기라는 독립운동가가 그려져 있어 물어보니 일본 식민지 때 함안윤씨 가문에서 독립운동을 한 어른이라며 설명해 준다.

거기에 “今日我行跡(오늘 내가 간 발자국이), 遂作後人程(곧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글이다.

만오정(晩悟亭)을 찾아 탐험한 것이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 남겨놓은 흔적을 찾아서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현실을 알리고 관심을 갖게 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

최명성 🍃



송화마을 만오정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일대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알암인권작은도서관 *

오월어머니집 *

국립5·18묘역 조형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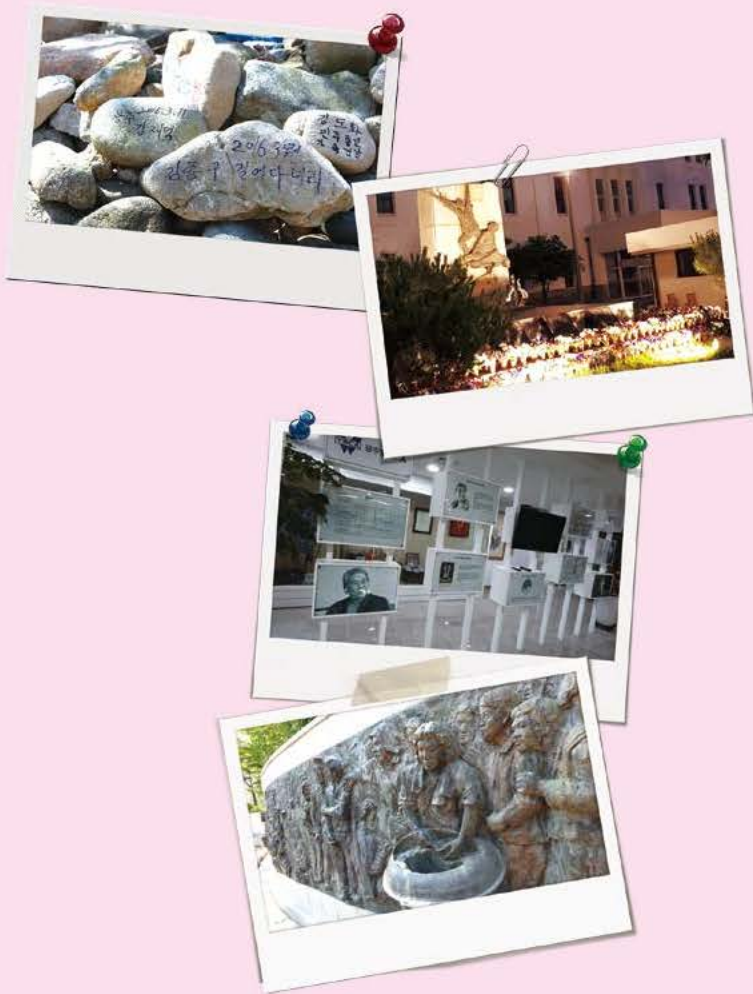
5·18민중항쟁 알림탑(꽃 헌화퍼포먼스) *

애꾸눈광대 이세상 *

소심당 조아라 기념관 *

서은(문병란) 문학연구소 *

백범기념관 *



5 · 18, 인권, 어린이 도서 3038권이 친구죠



안성례 관장님이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기독교 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인 5·18때 무고한 광주시민이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셨기 때문이다. 관장님은 직접 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그 참혹했던 역사의 아픔을 들려주셨다. 환자들의 뒤처리

과정과 환자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왜 그런 참혹한 일이 광주에서 일어나야만 했는지 다시금 마음이 저려왔다.

사복 경찰이 4명씩 따라다니고, 전화로 매일 근황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 어떠한 때는 형사들에게 미리 행선지를 알려주기까지 하셨다니... 만약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면 나는 과연 견뎌낼 수 있었을까하는 마음이 들었다.

안성례 관장님과 명노근 교수님이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해준 것은 “모든 것을 내주어라.” 라는 성경 귀절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따님이 그리셨다는 <세수를 하면서 우는 엄마>의 그림을 보니 그 당시의 상황이 눈에 보이는 듯 하다.

혼자 지내시기 외롭지 않으냐고 하니 3038명의 친구가 있는데 팬클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038권이 책들이 다 친구요,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그 책들은 주로 5·18 관련 인권, 철학, 아동도서들이라 한다. 책을 친구라고 표현하시는 분인지라 혹시 명교수님과 어떻게 만나셨냐고 지극히 흥미로운 질문을 하자, 명교수님과 러브스토리를 수줍게 이야기 하십니다. 지금도 명교수님이 유학가셨을 때 보내셨다는 러브레터를 보관중이라 한다. 명교수님은 최고로 멋지고 자상한 남자였다고 수줍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사랑은 이렇게 소녀 같은 감성으로 돌려놓나보다.

이제는 우아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이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책을 사람으로 표현한 관장님에게는 <알암인권도서관>이 최고의 안식처가 아닐까? 이런 분들이 광주를 인권의 도시로 만들어준 깊은 뿌리가 아닐까!!!

돌아오는 내내 내 자신이 조금 부끄러웠다. 🍀 장미경 🍀



기둥도 동상도 없이 소박한 인권도서관



드디어 6기 첫 탐험일,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집을 나섰다. 도서관 주변을 걸어볼 생각으로 74번 버스를 탔다. '동구노인회관' 정류장에서 내렸다. 인터넷 검색으로 대강 위치를 숙지했는데도 이정표가 얼른 안 보인다. '다담' 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 '다반사' 쪽으로 내려갔다가 '동구노인회관' 쪽으로 접어들 뻔도 하였다. 그러다가 일전 탐험 섭외 때 '장동축협 건너편' 이라던 안성례 관장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시야를 가다듬고 건너편을 뚫어져라 노려보았다. 그래도 이정표가 안 보인다.

횡단보도를 건너 큰길을 직진하니 '동명할인마트', '민들레소극장' 그리고 공용주차장이다. 와, 덩다! 마트에서 생수를 한 병 사서는 빗나무가 흰 꽃잎을 날리기 시작하는 정자에 앉는다. 도대체 내가 오늘 가야 할 곳은 어디에 숨어 있는가? 인권은 천부의 권리라는데 정말 그러한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에 관한 냉혹한 문장이 왜 갑자기 떠오르는가?

제봉로, 동계천로, 동명로라는 도로명주소가 혼재한 골목으로 접어들어 버스들이 다니는 큰길가로 나왔다. '까리따스서원' 을 지나 '무등복사' 를 지났을 때 '보일똥

말똥한' 이정표를 만났다. '알함인권작은도서관 - 인권문화공간' 을 알리는 쇠막대가 날뚝하여 그 위가 잘 안 보였던 것이다.

거창한 대리석 기둥도 동상도 없는 작은 집 앞뜰이 푸릇푸릇하다.

'알함명노군선생기념사업회' 현판과 "알함 명노군 선생께서는 전남대학교에 재직하시면서 시대적 사명감을 갖는 인재양성에 평생을 바치셨던 참교육자 이셨으며, 민주·평화·인권의 5·18광주정신을 앞장서 실천하신 인권 운동가 이셨습니다. 이 정신을 기리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인권 관련 정보 제공은 물론, 인권 사랑방 역할을 하고자 운영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라는 설명글이 붙어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보통 주택 구조이다. 벽을 빙 둘러 책이 가득하다. 이 도서관의 탐험일 기준 소장도서는 3,038권이며 독서회 운영, 인권강연회 등을 열고 있다. 안성례 관장님은 회수를 넘기신 연세에도 정연하고 예리한 언변으로 듣는 사람을 주목하게 한다.

"거대한 물결에 태워져 살아오느라 남편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여 미안하다." 라는 대목에서는 인간적인 면모가 느껴졌고, "광주가 그냥 민주주의 성지가 된 것이 아니고 민주를 쟁취하기 위하여 사람이 죽고 죽어서 독재를 물리치고 된 것이다." 라는 말씀에는 비장함이 있다. 도서관 이름 '알함'은 고 명노군 선생의 호이며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약자라고 한다.

중국에는 신비한 바위 '알함'이 있다고도 한다. 탐험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천부인권' 을 공부하러 오는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선다. 🌱 서연정 ✍️



알함인권작은도서관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74
☎ 062 228 3564

오월의 상처를 치유하고 알리는 곳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광주 양림동! 그곳에서 금요 문화관광탐험대가 광주의 민주 역사를 품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한 공간을 만나고 왔다. 이름만으로도 가슴 뜨거워지는 그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자.

근대와 현대문화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 곳, 예술가의 뜨거운 삶과 정신이 서려있는 곳 양림동. 이곳은 조국을 되찾으려던 이들의 숭고한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시대의 불의에 앞장섰던 오월, 그 뜨거운 기억을 담고 흘러온 한 공간이 있다. 노영숙(62), (사)오월어머니집 제3대 관장은 5월 정신을 역사에 계승하는 일이 오월 어머니집의 존재 이유' 라고 포부를 밝혔다.

오월어머니집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족, 부상자, 구속자 어머니들과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당한 누나, 어머니, 아내들의 모임이다. 노관장은 5·18 당시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이었던 두 살 터울 남동생이 고문 후유증으로 숨지면서 5월 유가족과 인연을 맺었다. 노 관장 자신도 1980년 5월 거리로 나서 주먹밥을 짓고 마실 물을 나르며 5·18 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했다. 구속자가족회



창립회원으로서 5월 구속자 석방운동과 5·18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며 2006년 오월어머니집을 발족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노 관장은 오랜 시간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며 진실에 다가간 5·18이 폄해되고 조롱받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80년대에는 세계 속의 5·18, 90년대에는 대한민국의 5·18, 2천 년대에는 광주만의 5·18, 이제는 그들만의 5·18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민주화운동이 다시 세계 속의 5·18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이상을 밝혔다. 여성보다는 어머니로 불리는 게 좋다는 노 관장은 평화, 민주화, 인권 증진을 위해서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안으로 자리를 옮기자 광주 오월의 모성을 상징하는 집답게 오월어머니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고, 상처를 위로하는 치유 프로그램 중 하나인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한다.

이런 활동들이 오월어머니들이 안고 살아왔던 아픔의 무게를 조금은 지워드릴 수 있게 되길 우리는 바란다. 이런 공간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안정을 취하고, 치유되는 그런 것이 참 감사하다. 🌱 김양근 🍃



시대의 아픔까지 보듬는 큰 어머니들의 집

‘오월 어머니’들의 구성원은 5월 항쟁에서 사망과 부상 또는 구속된 피해자의 가족이며 일부는 본인이 직접 5월 항쟁에 참여한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1980년에 구속자들의 석방과 5·18진실규명 운동, 영치금 전달 등을 위해 ‘구속자가족협의회’로 시작하여 활동하였으며, 1983년 3월 ‘민주화운동실천가족협의회(민가협)’로 명칭을 바꾸어 광주·전남 양심수 옥바라지와 그 가족들 돕기로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고 한다.

광주항쟁 20주년인 2000년 5월에 5·18을 직접 경험한 여성들이 5·18을 바르게

알리고 후손에게 5·18정신을 계승해 주기 위해 ‘오월여성회’를 창설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오월어머니집에서 하는 주요활동이 무엇이냐고 노영숙관장님께 물었더니 첫째는 광주정신의 산실로 ‘오월어머니상’을 제정하여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고난을 당하고도 겹겹히 살아가는 민주인사들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 고귀한 정신을 널리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인권 신장을 위해 국내 및 국외의 단체들과 교류를 통해 연대 협력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는 교육훈련의 장의 역할로 청소년, 주민, 외국인들에게 5·18정신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셋째는 오월어머니들의 건강증진 사업으로 투사가 되어 억척스럽게 살면서 덮어두었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요가, 명상, 상담, 노래, 독서활동을 통하여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타인의 고통을 위해 헌신하는 재활센터의 역할이라고 한다. “여기 여기”라는 그 분들이 가족을 잃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그 분들의 깊은 슬픔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해하는 척하는 나의 이기적인 슬픔이 부끄럽다. ♡ 이양자



오월어머니집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418번길 18

☎ 062 227 0518

민주, 자유의 갈망은 처음도 끝도 없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등에 땀이 흐르는, 몹시도 후덥지근한 날 5·18 국립묘지를 찾았다. 우리 팀의 탐방 주제는 '5·18 국립묘지안의 조형물들' 이었다. 조형물 탐방이라는 목표를 가지니 이제야 곳곳에 자리 잡은 조형물들이 보인다. 그동안 무심히 인식되었던 조형물들의 상징과 의미가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감탄하게 한다.

이곳에 이렇게도 많은 조형물들이 있었던가... 하나 하나가 다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동안 그것들을 너무 간과했던 건 아닐까? 숲만 보았지 숲의 나무는 하나도 보지 못한 꼴이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의미하는 다리를 지나 이제 5월의 영령들을 만나러 간다.



다리 밑으로 흐르는 명당수에 마음을 경건히 가다듬고 5월 영령들을 지키고 있는 조형물들을 만나러 간다.

마침, 기획전시실에서는 민주화가라 불리 우는 홍성담의 '5월 판화전' 이 열리고 있어서 80년대 폭 놓아 불렀던 민주항쟁의 기억을 더듬어 볼 수 있었다.

많은 조형물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참배를 하는 평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10가지 동물의 훑대 모양 조형물이었다. 12간지의 동물 중에서 맨 처음 동물인 쥐와 맨 마지막 동물인 돼지를 뺀 10가지 동물의 조형물로 상징하는 바가 평장히 의미 있다. 국민 즉,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와 자유에 대한 갈망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음을 의미한다고 하니 80년대 그 격동의 시기에 대학생활을 했던 나를 순간적으로 가슴 벅차게 해 준 것이다.

선선한 계절에 이곳의 조형물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자 기약해 본다. 🌱

김도윤 🍃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묘역을 지키는 그들

국립5·18민주묘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하얀 눈과 함께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이나 행락객이 많은 봄, 가을 그리고 무더위가 발길을 잡아두는 여름철에도 우리나라 민주발전을 외치며 군부독재에 저항하다가 희생된 영령들 앞에 참배를 드리는 방문객들의 발길은 계속된다. 우리 광주·전남지역은 물론 멀리 강원도나 제주도에 이르는 타 지역 분들과 피부 색깔과 눈동자의 색도 다른 외국인들에 이르기까지 참배를 하려는 사람들의 정성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시간까지 묘지 일대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게 한다.

그런데 참배객들의 방문이 끝나고 담당 직원들마저 퇴근한 후 적막이 흐르는 국립묘지를 묵묵히 지키는 조형물들을 아시는가?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만나보셨는가?

묘지에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조형물들을 일일이 눈여겨보는 분들은 많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62 _ 광주견문록Ⅶ



그래서 밤낮가리지 않고 추우나 더우나 눈비 아랑곳 하지 않으며 1분 1초도 흔들림 없이 국립 5.18민주묘지를 지키는 조형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구분하는 돌다리 밑으로 분수가 되어 하늘높이 솟구치는 명당수에 그늘진 마음을 씻고 다리를 건너면 반월형으로 조성된 민주광장이 구심점을 강조하는가 싶더니 5월 영령을 두 손으로 받드는 형상을 한 추념문이 눈앞에 우람한 모습으로서 있다.

추념문을 통해 참배광장으로 들어서면 희생과 배려의 상징이며 영령들의 숭고한 뜻이 영원함을 말해주는 촛대형 조형물이 12시간 중에서 맨 처음과 마지막인 쥐와 돼지를 빼고 나머지 10개만 새겨진 모습으로 참배단을 반원으로 감싸고 있다.

광장 중앙 좌우측에는 웅장한 모습의 환조 청동조각품 2점이 있는데 하나는 대동세상과 무장항쟁시민군상으로 80년 5월 당시 불의에 대항하여 뜨겁게, 그리고 서로 나누며 한마음으로 투쟁했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묘역으로 통하는 불이문(不二門)과 5·18민주항쟁추모탑은 당간지주형 40m 높이 탑신이 있다. 중간에 두 손 모아 추모와 부활을 뜻하는 난형조형물이 생명과 씨앗의 의미를 담아서 민주·인권·평화의 화신으로 영원한 새생명이 되도록



지켜주고 있다. 추모탑을 중심으로 묘지 쪽 벽에는 80년 오월 10일 동안의 항쟁 일지를 묘사한 ‘오월민중항쟁도’가 청동부조로 설치 되어 있다. 송기숙님의 글을 김승남님이 쓴 추모탑의 유래와 김준태님의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가 부조 양단에 자리 잡고 있다.

구묘지로 이어지는 길에는 군부독재와 맞서 싸운 민중항쟁의 봉화불과 승모루도 있다. 평장으로 1,000여명의 유공자를 안장할 제2묘지와 시민들의 헌수를 통하여 조성된 공원임을 기념하기 위한 ‘시민헌수기념비’와 민주·인권·평화 통일을 시로 표현한 詩碑길도 있다.

구묘지에는 북구자원봉사단체에서 만든 5·18형상구조물과 부산시민 황명자님이 기증한 참배 제단, 그리고 5월 단체와 부산사회 단체간 교류를 통해서 세운 ‘영·호남 사랑과 우정의 기념비’를 빼놓을 수 없다.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돌탑과 독일인 기자고 위르겐 힌츠페터 기념석이 영원한 등불이 되어 구묘지를 지키고 있다.

국립5·18민주묘지는 민주성지 광주를 찾는 분들에게 때로는 자신의 아픔을 오히려 치유할 수도 있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참배도 드리고 근현대사의 흐름을 느껴보시면서 일순간도 쉬지 않고 묘지를 지키는 조형물들과 마주서보고 싶다면 5·18국립묘지를 찾으면 된다. 🌱 한웅섭 🖋



5·18기념문화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 062 360 0518

🌐 <http://518Road.518.org>

5·18민중항쟁 알림탑(꽃 헌화퍼포먼스) ...

오월광주, 꽃으로 기억해요

연두의 푸르른 앞이 너울너울 춤추던 오월의 어느 날. 탐험대원들을 따라 옛 도청 앞 5·18사적비 앞에 다다랐다. 어느새 누군가 내손에 쥐어준 작은 꽃 화분 하나. 엄숙함과 숙연함, 그리고 먹먹함, 5·18을 말로만 전해 들었던 나는 직접 사적지에 와서 헌화 추모를 해본 경험이 없던 터 36년 전 민주화의 꽃을 피우기 위한 분들 앞에 나는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해 뛰라도 했나? 나에게 물음을 던져본다.



‘님들이 계셔주셔서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자유를 만끽합니다.’

‘기슴에 깊이 감사를 새기게 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념비 아래 놓고 간 여러 개의 작은 화분에 담아진 다양한 꽃들. “꽃으로 광주를 기억하자”는 헌화 추모 행렬이 진행되고 있다.

화분에 작은 팻말에 이름이나 글귀를 담아 작년에 이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헌화하며 추모에 참여하고 있다.

옛 전남도청 등 광주시내에 산재한 5·18민중항쟁 사적 표지석 주변을 꽃으로 장식하며



기념하는 일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보원 도슨트인 김현숙님이 시작하였다.

2015년 4월에 보았던 5·18유공자인 김향득 사진작가의 ‘불편한 진실, 오월전’에서 화순, 목포 등 광주인근의 5·18사적지 기념석들이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는 모습을 보며 광주시민인 우리는 광주시내의 5·18사적지에 대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반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5월이 오면 광주는 찬란한 봄 햇살과는 다른 무거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36년이 흘러 상처가 다 나았을 것 같지만 광주시민들 마음은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감추어져 있을 뿐이죠. 그렇지만 이제 아시아의 민주, 인권, 문화의 중심도시로써 시민 스스로 당당하게 주인 된 표식으로 꽃으로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ACC(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본격적으로 오픈하게 되면서 민주광장의 ‘5·18민중항쟁 알림탑’에 가족단위, 학생들, 전국에서 광주를 탐방하러 온 분들을 상대로 500명 이상이 헌화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꾸준히 하다 보니 자청해서 물을 주시는 5·18유공자와 광주시청의 협조,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인 도슨트 선생님들과 지인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 화분을 놓으며 감격해 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보았고 저 역시 5·18때 받았던 상처가 많이 치유된 것 같아요.”

봄이 열리는 4월부터 11월까지 각양각색의 꽃을 통해 광주시민들의 희생과 열망이 긍정적인 승리의 역사이기에 자부심을 갖고 ‘오월광주 꽃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봄을 기다려 봅니다. 🌱 김민숙 🖋

울분과 슬픔을 넘어 꽃으로 피어나다

이제는 울분과 슬픔보다 예쁜 꽃으로 기억하자! 하얀 탑 아래 작은 화분들이 둘러지면서 예쁜 마음을 담은 꽃들이 피어났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우리의 기억 속에 차마 말로는 다 못할 힘든 기억을 이제는 예쁜 꽃으로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둘 모여 작은 화분 행렬을 이룬다. 아름답고 숭고하다.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밤늦게 찾은 아빠는 나지막하고 짧지만 의미 있는 설명을 다정히 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응, 이 곳은 좋은 일하다 지금 이 세상에 없지만 이렇게 꽃을 가져다놓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있네.”

아이는 아는지 모르는지 “응, 응”을 연신 대답하고 화분을 한번 들었다 놔다 하는 모습이 흐뭇하다. 화려한 조명불빛에 예쁜 꽃들이 더욱 환한 미소를 보이는 듯 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군중들의 합창소리가 멎지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5월의 따스한 하루였다. 🌱 최정오 🖋



5·18민중항쟁 알림탑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일대



그날을 이야기하는 오월의 증인

광주의 5월을 맞이해 5·18에 관련한 인물 및 악극 공연이 있다 하여 팀원들과 공연을 보러갔다. 50~70대까지 어르신들이 콕콕 들어차 있고, 뒤에 서계시는 분도 계셨다.

악극의 내용은 이세삼님의 5·18경험담과 이후 기막힌 가족사에 관한 이야기이다. 피에로 복장을 한 거인이 목에 아이 인형을 매달고 나오며 악극이 시작되었다. 피에로는 이세삼님이 맡은 역으로 주인공이다. 호리호리한 키 큰 체격에 깜짝 놀랐다.



악극이라 거침없는 말과 풍자에 여기저기 웃음꽃이 피어난다. 이야기는 5·18때 다쳤던 눈과 또한 잠깐 가졌던 도망이란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죄책감이 가져다 준 인생 변화. 결코 인생역전이 아닌 기구한 운명의 시작이 된 것이다.

공부가 하고 싶었던 여동생에게 은연 중 친한 동생이었던 5·18때 함께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준 동생의 형에게 결혼을 하도록 밀었다. 결혼 후 여동생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지만 결혼의 불행을 숨기려 노력하며 집에 가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매제란 사람은 동생의 5·18 희생을 정부의 사카린 같은 제안에 속절없이 욕심 많은 인간으로서 바닥을 보여주며 흔들린다. 이 세삼님 아들은 가끔은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너희 아버지는 애꾸눈”이란 놀림에 상처를 많이 받았으며 아버지가 가족들도 내팽기고 5·18 관련 진상규명이나 활동 하는 것을 보고 고등학교 때가출을 해버린다.



이세삼님 아내는 가출한 아들을 찾느라 2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다 이세삼님의 지나친 5·18에 대한 활동에 힘겨워하며 떠나 결국 가족이 해체 되어 버린다. 이러한 생의 과정을 겪으며 몇 번 자살시도가 있었다. 꿈에 죽었던 친한 동생과 여동생을 보며 자신을 추스르고 민철(아들)이를 찾기 위해 1인 광대로 공연을 시작하며 전국에 5·18 진상을 알리고 세상의 민철이에게(젊은이들) 아팠던 시절을 기억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호소를 하는 멘트로 끝을 맺는다.



가족 해체가 악극을 통해 보여져 추후 소식이 궁금해 조심스럽게 물었으나 말할 때가 여전히 아닌 지 다른 말을 하며 말을 돌리신다. 5·18이 공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아픔을 기억하면서도 광주의 공동체적 의를 갖춘 세상을 만드는 데 원동력이 되길 바라며 할 수 있을 때까지 애꾸 눈 광대 공연을 놓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이 세삼님. 겪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차마 뭐라 말할 순 없다. 다만 안으로 기도를 한다.

“..... 고맙습니다.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영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인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윤상원, 박기순 열사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 작곡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관객들이 함께 불러 보며 악극이 시작된다. '애꾸눈 광대'의 주인공 이지현(이세상)님을 만나기 위해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바쁜 일정으로 도저히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연극을 보고 나서 잠시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 연극을 보기 위한 자리는 조금은 엄숙함이 흘렀고, 색소폰 등 연주를 하는 장년층 봉사단이 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들려주어 따라 부르다 보니 36년 전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처참한 역사의 현장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웠다.

이세상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애꾸눈 광대는 어떤 사연을 안고 바람처럼 구름처럼 이 세상을 누비고 다니며 “보고 싶다 내 새끼야”를 외치는 사연은 무엇일까요? 연극은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궁금한 호기심에 불을 댕기며 공연장에 있는 나는 무엇을 연기 위해 온 것일까요?

오월극 '애꾸눈 광대'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에서 투쟁하다 한쪽 눈을 잃은 이지현(이세상)씨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처음엔 2012년 연극인 신동호씨와 손을 잡고 일인극 '애꾸눈 광대'를 제작했다. 연극을 배운 적은 없지만 직접 오월이야기를 절절하게 풀어냈다. 하지만 주인공 '광대'의 개인기

위주로 극이 흘러가면서 완성도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 작품은 버전 UP 과정을 거치면서 극중 자아를 표현하는 2명의 남, 여를 투입해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악극' 형식을 도입해서 배우들의 연기와 노래, 악기 연주 등이 어우러져 흥미를 더하고 탄탄해졌다고 한다.

'애꾸눈 광대'는 집을 나간 아들을 찾는 광대의 이야기로 이 작품은 이세상씨가 1980년 5월 27일 최후의 항쟁지인 도청에서 동네 시는 동생과 함께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동생은 계엄군의 총에 죽었고 그는 계엄군의 폭력으로 한쪽 눈을 잃게 되면서 일어나는 가슴 아픈 오월 광주 우리들의 이야기다.

'애꾸눈 광대' 악극이 끝나고 이세상님과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처제들이라고 소개를 하시며 농담을 하신다. 그리고 잠깐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연극에서의 내용처럼 과거에 대한 집착과 장래에 대한 불안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지내온 세월에 대해 후회하며 어두운 기억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이세상님의 밝은 모습이 다행이다 싶었다.

마치고 밖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참 후에 빨간 티셔츠에 멋진 사나이 한 분이 지나가기에 누구신지 보았더니 광대 옷을 벗어 버린 광대 '이세상'님이시다. 확 달라진 발랄한 모습에 몰라볼까 싶었다. 키가 웅장하게 크시고 호남형이신 '애꾸눈 광대 이세상님'의 앞날에 더욱 밝고 희망찬 미래가 함께하기를 기원해 본다. 🍀 김영희 ✍️

이세상

☎ 010 4190 5180



광주의 어머니 소심당 조아라



역사와 예술이 공존하는 양림동에 자리한 소심당(素心堂) 조아라(1912~2003년) 기념관은 조아라 선생이 생전에 아끼셨던 70년 된 백일홍이 있는 아담한 정원과 함께 남구 제중로 46번길 3-6(양림동)에 있다.



1층에 자리한 유물전시관에서는 조아라 선생이 40여 년간 헌신 했던 YWCA 등 여성운동들에 대해 만날 수 있다. 무궁화 훈장을 비롯한 유품들은 항상 가난하고 험벗은 민중과 함께하며 청빈을 몸소 실천했던 조아라 선생의 단면을 보고 느끼게 해준다.

발걸음마저도 숙연하게 하는 목재계단을 오르면 기념관 2층 창문 저 멀리 무등산이 아련하게 들어온다. 이곳 사진전시실에서는 조아라 선생의 1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이르는 모습들을 연도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선생님의 흔적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다.

여성·평화·인권·민주화 운동의 선구자인 소심당 조아라 선생은 지난 1912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수피아 여고를 졸업했으며, 재학 시절인 1931년에는 수피아 백청단 은지원 사건 주동자로 1936년에는 신사참배

거부로 1달간 옥고를 치렀다.

1945년부터 광주YWCA 상무이사, 총무를 거쳐 1973년부터 1982년까지 광주YWCA회장을 지냈으며, 5·18민중항쟁 기간 동안에는 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 6개월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또 성빈여사 시설장, 소화자매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소외계층을 위해 헌신했으며, 1987년부터 2003년까지 5·18민중항쟁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다 그 해 7월 소천 했다.



조아라 선생의 1주기를 맞이하기 전인 지난 2004년 조아라 선생 기념 사업회 창립총회가 있었다. 조아라 선생의 사랑과 헌신의 삶을 조명하며, 이 삶 속에 녹아 있는 여성운동,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다. 지난 2005년부터는 지역사회에 선생의 정신을 더욱더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광주YWCA 2층에 기념실을 조성했다. 그리고 꼬박 10년 만에 독립된 공간이 확보된 것이다.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하며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해 애쓰셨던 조아라 선생. 인권, 복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조아라 선생의 마지막 소원은 평화통일이였다. 조아라 선생은 고향에도 불구하고 1992년 9월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에서 열린 남북여성토론회에 한국여성계 대표로 참석하며 통일의 물꼬를 트는 일에 앞장섰다. 아흔이 가깝도록 역사의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여성, 인권, 사회복지, 평화 운동에 헌신하며 험 없이 달려온 삶이었다. 늘 험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된 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정직한 삶을 사셨던 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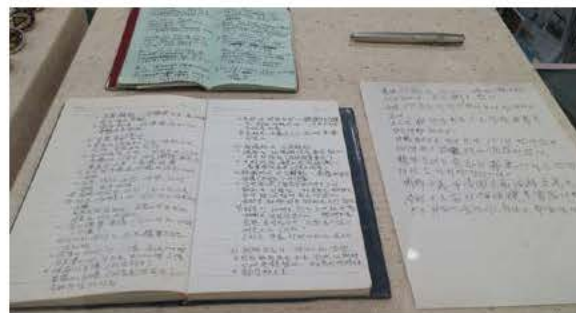
이제 '광주의 어머니' 소심당 조아라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해 마련한 기념관을 통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 김양근 🖋

민주화와 여성교육에 헌신

이번 탐험으로 광주 선교1번지 양림동산 주변에 자리 잡은 광주의 어머니 조아라(1912~2003) 기념관에 다녀왔다.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겨우 찾은 기념관은 양림동 호남신학대학 맞은편 2층 건물이었다. 조그마한 이정표라도 곳곳에 있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쉽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조아라 선생이 생전에 아끼셨던 70년 된 백일홍이 있는 아담한 정원과 함께 지상 2층 341㎡ 규모의 기념관은 2003년 7월 소천할 때까지 생의 마지막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 백일홍은 '그리움'이라는 꽃말이 있다. 1층 정원을 지키고 있는 백일홍도 여름부터 가을까지 조아라 선생에 대한 애뜻함을 대신해 꽃을 피운다. 화려하게 꽃을 피우지만 며칠 못 가는 다른 꽃들과 달리 백일홍은 7~9월 사이 세 차례나 꽃을 피운다. 9월 초까지 홀로 고고하게 붉은 꽃을 피우는 백일홍은 생전 민주화와 여성 교육을 향해 애쓰던 조아라 선생의 삶과 닮았다.

“이 모든 사건은 저지른 사람, 만든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 또한 하나님과 역사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 언젠가 전부 드러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고



누군가 불을 질러 왔기에 그 불 끄려 간 사람이다.

그런데 이 나라의 법은 어떻게 된 법이길래 방화범은 안 잡고 불끄려간 선의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죄인 취급하는지 그것이 의아스럽다.”

위 말은 5·18광주민주항쟁 관련 군사법정에서의 최후 진술 중 한 구절이다. 이처럼 고난의 한복판에도 비켜서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우셨던 분이다. 이외에도 성빈역사 시설장, 소화자매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소외계층을 위해 헌신했기에 <낮은 땅의 어머니>로도 불리셨다.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하며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해 애쓰셨던 조아라 선생님의 마지막 소원은 평화통일이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1992년 9월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에서 열린 남북여성토론회에 한국여성계 대표로 참석하며 통일의 물꼬를 트는 일에 앞장섰다. 아흔이가깝도록 역사의 현장에서 타인의 삶을 위해 헌신하며 험없이 달려온 삶이었다. 늘 험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된 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정직한 삶을 사셨던 분. 이 많은 것을 일일이 어찌 다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 장미경 🍀



<직녀에게>의 시인

이별이 너무 같다.

슬픔이 너무 같다.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를 알고 있을 것이다. 시인의 시에 곡을 붙여 사랑받는 대중가요이다. 노래방에서 문병란 시인을 모르는 사람도 흥얼거리는 <직녀에게>……. 칠석이 며칠 전이었다. 이 시에 등장하는 연인 ‘직녀’가 더욱 곡진하게 떠올랐다.

순환도로가 지나가는 지산동 언덕에 ‘시인의집’이라는 간판을 단 건물이 있다.

바로 부근에는 목조아미타불좌상 및 복장유물이 보물로 지정된 자운사가 있고, 건너편 멀지않은 곳에 희디흰 애기동백 꽃이 고결하게 피는 오지호 화가의 초가가 있다. 더 위쪽, 지산유원지 쪽으로는 저마다의 특색을 보이는 찻집과 밥집이 무등산관광호텔과 신양파크호텔 있는 곳까지 즐비하다.

사람들은 여가를 즐기러 가는 길에 살짝 돌린 눈길에 걸리는 4층짜리 건물에 붙은



‘시인의집’이라는 간판을 좀 생뚱하게 느꼈음직도 하다. 그동안 문병란 시인의 건물인 줄 알았다. 그런데 강당과 사무실을 포함한 1층 만을 빌려 쓰고 있음을 이번 탐험에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시인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시인의 유품에 라벨을 붙이는 등, 문병란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는 기초 작업을 수행 중이다.

이곳은 서은문학연구소로 출발하였다. 2016년 7월 4일 공식 카페(<http://cafe.daum.net/m-b-l>)는 단체의 정식 명칭이 ‘사단법인 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로 변경되었음을 공지하고 있다. 2016년 2월 12일에 허가증을 교부받은 이후, 새롭게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장조카 문명기 씨가 작은아버지인 시인의 생애와 작품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도착하니, 이근모, 공옥동, 황일봉, 김홍호, 문명기, 김경숙, 김숙희 씨 등 단체 관계자들이 반갑게 맞아주신다. 탐험대 2년 생활 중 이러한 환대는 또 처음이다. 문학적 스승 문병란 선생에 대한 존경에서 우러난 참석이라고 느꼈다.

🌿 서연정 ✍️

민중을 위해 시를 썼던 시인의 집

많은 문인들은 그를 한국의 저항시인과 거리의 교사로 기억하고 있다.

1980년 5·18광주민중화운동 배후 조종자로 지목되어 고초를 당했지만 줄곧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는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김준태 시인은 그의 시를 지식인을 위한 시가 아니라 고통 받고 억압받는 다수의 민중들을 위한 시였다고 했다. 문병란 시인은 조선대학교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서은문학연구소를 열어 문예창작 활동과 시 낭송반을 운영하면서 좋은 작품을 소개하고 품평회를 갖다 2015년 9월 25일 타계하셨다.



노벨문학상 후보에 두 번이나 올랐으며, 시집을 32집이나 내셨다 한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직녀에게'는 노래로 불리어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다.

서은문학연구소는 문병란 시인 생전에 시작되어 시민문학과 민족문학의 재정립을 목표로 현대시의 난해성을 극복하고, 민족적 통합의 시대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학습과 연구 작품 감상의 창조적 도량을 열고 문학 속에서 사제동행의 실천문학을



이루기 위해 창립한 단체였으며, 2008년에 시인의 집 1층에 독서실과 세미나실을 마련하여 연구 활동을 하였다.

그의 많은 애호가와 동호인, 문화생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 중에 문병란 문학관 건립(미정)과 타계 1주년 추모행사(2016년 9월 27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은(문병란)의 문학을 소개하여 많은 독자에게 널리 알려 큰 울림을 주는 세계적인 문학연구소가 되었으면 한다. 🌱 최명성 🖋



사)서은(문병란) 문학연구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106번길 4 5, 101호

백화마을에 담긴 깊은 뜻 간직



토요일, 학동에 있는 광주 백범 기념관에 갔다.

광주 동구 학동 역사공원 내에 변함없는 둥근 테 안경을 끼고 계신 김구 선생님이 우리에게 악수를 청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악수를 하셨을까? 손바닥이 반들반들하다. 공원 가장자리에는 백범 선생님의 좌우명의 글귀들이 새겨져 있다.

옆에는 백화아파트가 있다. 이 자리는 광복 이후 고국으로 돌아와 거처할 곳이 없는 동포들이 현재 광주천에서 움막을 짓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 때, 백범선생이 빈민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판잣집 100가구를 건립하셨다는 곳이다. 100가구가 화합하며 지내라"고 당부하며 '백화마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이곳에 1992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판잣집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165가구의 백화아파트가 들어섰다.

백범 김구기념관은 488㎡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전시실과 세미나실 등을 갖췄다. 기념관 건립에는 광주시와 보훈청, 백범문화재단이 내놓은 12억4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애달픈 귀국 동포들의 정착촌에 백범 선생의 뜻을 기리고 아름다운 사연을 간직한 광주 백범기념관이다. 건립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액을 내놓은 독지가는 (사)백범문화재단에 신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일 백범문화재단 이사장(83·전 광주시 교육감)은 "광주백범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 17년 만에 그 빛을 보게 됐다"며 "각계의 후원으로 건립된 기념관을 광주시에 기부해 역사 교육공간으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실내로 들어가 해설사를 만나게 되었다. 해설사의 이야기 중 백범 김구가 사형을 선고 받은 날 처음 전화기가 연결되었고 고종이 그 전화로 김구의 사형을 내리지 말라고 해서 구사일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문명의 이기가 한 애국자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전화기가 없었으면 백범 김구의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

말로만 듣던 백범일지와 임시정부 상하이와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도 잘 나타나 있다. 총에 맞아 피가 묻어 있는 김구 선생의 옷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아프다. 얼마 전에 본 영화 <암살>에서 안옥윤(전지현)이 16년 전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라던 마지막 대사가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가 떠올랐다. 정의를 실천하는데 16년이 걸렸지만 안두희가 짓값을 받는 데는 47년이 걸렸다. 이렇게 직접 보니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에 대해 다시금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다. 영화 <동주>에서 '윤동주'와 '송몽규'가, <귀향>에서 '영욱'이 가 오버랩 되어 떠올랐다. 이렇게 아픈 역사의 시대 배경이 많이 상영되는 것은 그만큼 김구 선생님 같은 진정한 애국자가 그리워서 아닐까?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적어 놓은 백범일지를 보니 영웅이기 이전에 아버지로서의 인간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막 나오려는데 헐레벌떡 뛰어온 두 여학생들이 있다. 자원봉사란다. 그 학생들이 역사에 대해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장미경 ✍️

“100가구가 모여 화목하게 사십시오”



오늘은 문화관광탐험대 ‘광주 백범기념관 탐험’ 주제로 기념관에 다녀오게 되었다. 광주 백범기념관은 백범 김구 선생과 백화마을의 아름다운 사연을 알리고, 선생의 뜻과 열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곳이다. 2014년 11월 기공했으며 올해 5월 준공했다. 488㎡ 규모로 지상 1층(주차장), 지상 2층(전시실), 지상3층(교육실 및 사무실)으로 구성됐다. 전시실은 백범 김구 선생의 생애와 활동이 시대 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백범일지 복제본과 영인본으로 진열되어 있다. 영인본의 경우 관람객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 지역 오방 최홍종 목사에게 남긴 ‘화광동진’ 회화와 백범 김구 선생이 서거한 뒤 백범학원생 일동이 슬퍼하며 남긴 ‘만장’을 축소·복제해 전시했다. 광주와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 1016인의 이름도 새겨 넣었다. 백범문화재단이 위탁운영 단체로 선정돼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백범기념관에서 백범께서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보았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계셨다. 또 백범의 연보도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백범 일지’를 읽어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시기와 이동시기, 이동경로와 백화마을의 뜻도 알게 되었다. 백화마을은 백범께서 화목하게

살라는 의미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한다. 이곳 학동 1013번지 일대는 일제 강점기 때, 고국을 떠나 살다가 해방이 되어 귀국한 전제戰災 동포들 어려운 삶의 터전이었다. 해방 후 환국한 김구 선생은 1946년 9월 과거 자신을 보살펴 주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지나온 자취를 찾아 나섰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여정은 부산·진해·한산도·여수·순천·보성·광주·함평으로 이어졌다.

광주 대성초등학교에서 열린 ‘김구 선생 환영 기념강연회’에서 당시 광주 시장인 서민호씨가 환영인사를 하면서 귀국동포 전제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말하자, 김구 선생은 그동안 여러 곳에서 성금으로 받은 선물·해산물·육산물·금품 등을 모두 전제민들 위해 사용해 달라고 기증했다. 당시 귀국동포 전제민들은 1920~30년대 광주천 정비사업으로 학동 8거리 일대에 조성된 갯생촌에 움막을 치고 살고 있었다.

독립운동가 서민호 광주시장은 김구 선생의 회시금을 종갓돈 삼아 갯생촌 850평의 대지에 4~45평의 작은 건물 100여 가구를 세워 전제민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에 김구 선생은 ‘백 가구가 화목하게 살라라.’는 의미로 ‘백화百和 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2011년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백화마을의 옛 모습은 사라지고 마을의 아름다운 인연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에 사단법인 백범문화재단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과 백화마을의 아름다운 사연을 알리고 선생의 뜻과 열을 기리기 위하여 ‘광주백범기념관’을 건립하였다. 🌱

김양근



백범기념관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599

☎ 062 233 2477



동네에서 만난 예술

‘화사한 마을극장, 화사한 마을극단’ *

광주아버지합창단 *

외할머니댁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난타공연 *

통기타 그룹 농장다리 *

시화마을 금봉미술관 *

노대동 송화난장음악회 *

팝콘냄새처럼 구수하고 정겨운 마을극장

7월의 늦은 오후 화정4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2층 마을극장 입구부터 팝콘 냄새가 난다. 들어가 보니 동장 이해경님과 화사한 마을극단 단장인 안해옥씨 등 몇 분이 나와서 주민들을 위한 음료수와 팝콘을 준비하고 있다. 초등학교 7~8명이 준비를 돕고 있다. 관객이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인 것이 음료수와 팝콘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따르는 경비 문제다. 결국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만 팝콘 만드는 기계를 구입하여 제공하기로 했다 한다.

영화 시작 전에 무대에 올리는 어린이 마을극단 공연 때문에 초등학교생들이 7~8명 정도가 바쁘게 준비하고 있던 것이었다. 먹거리 제공과 어린이 단극(短劇) 공연은 주민참여를 유도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다. 자녀들이 공연하는 것을 부모와 가족들이 참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홍보 효과 때문이었다. 주민 참여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믿었던 화정4동 주민센터의 운영위원회의 노력이 얻어온 결과다. 이런 노력으로 마을극장은 주민들의 행복한 만남의 장소로 변하였다. 소통, 화합, 나눔의 장소로 거듭난 마을극장은 화정4동을 화사하게 밝혀주고 있다. 🌱

최명성 🍀



마을사람들의 열정으로 만든 화사한 마을극단

화정(花亭)동의 화지는 화담사의 화(花)자와 마을 이름인 송정리에서 정(亭)자를 따서 붙여졌다고 한다. 원래 논밭과 소나무 숲이 많은 곳으로 1970년대부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점차 확장 발전되어 현재 4동까지 분동되었다. 지금은 마을만들기 사업공모를 통해 예산 지원을 받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며 새로운 마을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역문화 거점 마련을 위해 생각해낸 마을극장은 주민센터 2층, 작은 도서관은 3층에 자리하고 있다. 주민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2층에 만들어진 극장은 다용도로 활용되는데 강의실, 마을 행사, 영화보기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회사한 마을극단’ 운영은 기존의 극장을 더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5년 4월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응모한 성과다.

2015년에 ‘이수일과 심순애’ ‘홍도야 울지마라’ 이 두 편의 연극을 각각 3회씩 공연하였는데 호응이 대단했다. 이에 2016년에도 재선정되어 어린이 극단 연극 2편과 ‘양로원 탈출기’라는 제목의 연극을 기획, 서구민들을 대상으로 출연자 모집이 끝나 7월부터 연극 연습에 들어간다고 한다.

두 편의 연극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15명의 배우들과 연출자, 집행자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 기쁜 일, 슬픈 일, 화나는 일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을까 생각해본다. 하지만 한번 성공을 맛본 극단의 단장님은 작년의 좋은 점만을 생각하고 올해의 공연에 대한 기대로 긍정적인 열정과 자부심으로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올해 예산은 1,500만원인데 이 예산으로 만들어내는 연극에 주민들의 열성과 노력, 관심이 더 보태어져서 아마도 10배~100배의 이윤으로 화정 4동의 주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연극관계자들과 후원자들, 지지자들 모든 주민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올해도 좋은 작품을 기대해 본다. 🍀 이양자 🍀



화정4동 주민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엄화로83번길 3
☎062 350 4443

광주아버지합창단 ...

삭막한 세상에서 아버지들끼리 주고받는 위로

아버지들이 합창단원이 되는 것, 어쩌면 삭막한 사회에서 행하는 취미활동 중 최고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말없이 미래를 걱정하고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 존재다. 아버지들이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자신에게 내려진 무게를 털고 서로 위로하며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의미심장한 일이 아닌가.

연습시간은 매주 월요일 2시간(오후 8~10시)을 기본으로 공연이 있을 때는 일주일에 2~3회 모임을 더 갖는다. 각자의 자발적인 후원금과 회비로 운영되고 합창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인 연주의 형태에서부터 중창과 합창의 파트 구성, 파트별 음역 구성, 무대매너까지 공부한다. 현재 지휘자인 윤원중씨를 중심으로 K팝, 오페라, 뮤지컬, 민요, 가요, 종교음악 등을 공부하며 실력을 쌓아나가고 있다. 광주아버지 합창단은 1년에 17회~20회 정도 공연을 하는데 매년 정기연주회, 이웃사랑음악회, 가족사랑음악회, 청소년음악회, 자선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특히 어려운 이웃을 찾아 공연하고 수익금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인다. 아마추어라고 하지만 잔잔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였고 운영 중 어려움은 광주시와 광주교육청, 광주문화재단에서 후원을 받기도 한다.

광주아버지 합창단이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최명성 🍀



평범한 아버지들의 열정적 하모니

아직도 더위가 가시지 않은 8월 넷째 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모두 다 퇴근한 중흥동 전남대학교 동창회관에 우리의 아버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여기는 음악을 사랑하고, 노래를 좋아하는 평범한 아버지들이 순수한 열정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광주아버지합창단>이다. 어머니 합창단이라는 이름에 익숙해진 우리들이지만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30대부터 60대까지, 직업 역시 다양하지만 모임의 성격과 추구하는 방향이 같다보니 시종일관 같이하는 시간이 늘 즐겁고 화목할 수밖에 없다. <광주아버지합창단>은 매주 월요일 두 시간을 연습한다. 물론 공연이 있는 달에는 미리 한달 전 부터 일주일 두 번 정기적인 연습량을 가진다. 각자의 직업 특성상 시간을 맞추는 일이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목적이 같은 사람들의 구성은 80% 이상의 놀라운 출석률을 기록한다.

아버지들이 노래를 부르며 스스로 행복해져간다면 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요즈음 가족 간에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소통의 부재 속에서 음악은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게 해 줄 것이다.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으면 알 수 없었던 많은 것들, 앞으로도 계속 노래를 부르며 행복해지는 아버지가 되어갈 것이다.

합창은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공감의 두드림이며 서로를 사랑으로 이어주는 최고의 언어이다. 합창을 통해 가족의 화목함과 아름답고 건전한 아버지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들이 잠시 청춘시절로 돌아가는 시간이, 가슴 속 깊이 묻어놓았던 추억을 꺼내보는 행복한 밤이 매주 월요일이 아닐까? 🌿 장미경 🍃



말이 없어도 조화롭게 어울리는 멋진 공연

난타 프로그램 시작한지 3년 째. 두각을 나타내 전문가의 욕심을 끌어낸 친구가 있는가하면, 그저 난타의 즐거움으로 난타가 마냥 좋은 친구, 누군가의 앞에서 공연하는 게 좋아 난타를 친다는 어린 친구 등 난타를 접근하는 것도 들쭉날쭉.

삼성 재단의 꿈 재능 지원이 1년 후 끊겼지만 여전히 아이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센터장님의 강단 아래 사비로 북을 사고, 강사비를 내며 여전히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이 큰 공연을 마치면 자신감과 능력이 더 올라 더욱 연습에 매진하는 것을 보고 센터장님은 요즘엔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는 데 더 신경을 쓴다고 한다.



드디어 아이들 모두 모여 토요일에 있을 삼성 재단에서 펼쳐진 공연을 위해 꿈 재능의 경연 연습을 시작했다.

신들린, 혹은 현란한 손의 스냅을 보여주며 헝가리 무곡을 치는데 채도 보이지 않는다. 군무처럼 손이 딱딱 서로 같이 움직이며 북을 두드리는데, 공기 중 음파가 발생하며 심장이 파동을 따라 두근두근, 칼 군무를 선보이면서도 애들은 웃으면서 옆 사람과 조율하며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이렇게나 멋진 연습공연이었는데 실제 봄봄봄 공연에서는 얼마나 더 멋졌을까? 그 앞에 올망졸망다음 가수 아이들이 형과 언니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취미로도 좋으리라. 그 박동에 생의 활력이 절로 생기고, 부피가 자기 몸보다 큰 북을 조절하며 옆 친구들과 함께 눈빛으로, 채로 서로 소통하는 것을 바라보니 어찌면 난타의 원 제록 너 버벌 페스티벌(Non-verbal festival) 연상이 된다.

사회생활에서도 굳이 말이 없어도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며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이영화 🍀

예상치 못했던 감동

놀라웠다. 감동이다! 어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큰 감동을 주는지 아이들의 진지한 연주모습과 그들의 눈동자 표정에 이미 아이들의 연주가 어떤지 어떤 곡을 하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그저 그들의 움직임과 공연 중간 중간의 짧고 멋진 흥을 돋는 소리에 모든 나의 정신이 사로 잡혔다. 아무런 준비 없이 와서 더 그럴까? 그냥 그런 멋지고 감동의 무대에 박수만 보내는 게 너무 미안한 순간이었다.

아이들의 미래에 멋지고 행복한 날들이 가득되기를 바라며 짧지만 너무나 강렬한 감동을 준 아이들에게 고마운 맘을 전하며 오늘의 멋진 탐방을 마무리한다. 🌱
최정오 🍂



외할머니댁 지역아동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84 / 2층
062 524 2076

통기타 그룹 농장다리 ...

기타와 함께 7080 추억과 낭만 속으로

통기타그룹 '농장다리'는 리더 최인종씨를 비롯하여 윤영표, 박래균, 김강 등 아마추어 기수 5인이 2012년 3월에 결성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룹으로 동명동 커뮤니티센터 앞에 위치한 농장다리에서 주말마다 통기타 공연을 한다하여 '농장다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농장다리의 유래라던가 철도길이 폐선이 되고 푸른길로 조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내겐 '농장다리'라는 팀 이름 또한 친밀하게 다가왔다.

결성 이후 농장다리는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 충장축제, 토요일시장 문화장터, 세월호 추모 콘서트 등의 다양한 음악공연에 초청되어 사랑을 받고 있다. 팀원들은



각자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있어 평일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주말이나 공휴일, 저녁 시간 등을 이용해 공연을 한다고 하니 참 열정적인 음악인들이 아닌가 싶다.

오늘 공연 같은 경우에는 7080 세대들의 그 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감미로운 노래와 기타 연주가 갑자기 내리는 비와 더불어 더 센치멘탈 해지게 만들고 오랜만에 감성에 푹 젖게 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농장다리의 '돌아오라 소렌토로'를 빗소리와 함께 들으며 수잔 비에르 감독의 영화 '다시 뜨겁게 사랑하라(LOVE IS ALL YOU NEED)'가 떠올랐다. 영화 속의 배경이었던 레몬농장의 상큼한 레몬향이 노래에 실려 빗물에 녹아든 듯한 느낌이다. 7080의 음악과 낭만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농장다리'의 공연을 추천해 본다. 🍋 김도윤 🍋

캠페인 송부터 시작했던 공익 통기타 그룹

2012년 3월에 창단된 '농장다리'는 동명동에 있는 농장다리에서 주말마다 통기타 공연을 한다고 하여 그룹 이름도 농장다리라고 한다. 폐선부지에 푸른길이 조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공원길이 되었는데, 추억으로 멀어져간 농장다리의 낭만을 기억해두고 싶은 생각에서 그룹 명칭을 지었겠지 싶다.



사람이 모이고 뜻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간다는 통기타그룹 '농장다리'는 창단된 이후로 지금까지 KBS광주방송 빛고을 가요 차차차, 광주교통방송 운전가요앨범 등 지방 방송국 출연은 물론 푸른길 농장다리 거리공연, 광주 충장축제, 세월호 추모 콘서트, 토요일시장 문화장터

콘서트 등 다양한 축제와 추모행사 거리공연 등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 작곡가 10여 명이 모여서 '사람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문화 콘서트'라는 이름을 달고 공연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당시 교통사고율이 높았던 광주광역시 불명예를 씻기 위해 "바빠도 쉬어가자 빨간불이 켜졌구나...아이들이 줄랑줄랑 손 흔들며 미소 짓네~ 정지선에 멈춰서고



출발할 땐 천천히~♫” 교통안전 캠페인 노래를 만들어 무대에서 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은 문화사랑 시민연대와 도시락-찾아가는 음악회 등과 손잡고 국민과 함께 사랑과 추억을 노래하는 통기타그룹 ‘농장다리’로 거듭났다. 5인조 그룹(전업 가수가 아니라 각자 직업을 따로 두고 주로 주말이나 근무시간 외에 필요에 따라서 공연 활동)을 형성하여 U-스퀘어 안전콘서트만 130회 이상 참여하는 등 광주·전남 뜻있는 문화행사와 버스킹 공연을 한다. 차원이 다른 시민 밀착형 그룹 ‘농장다리’, 다시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그룹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 한용섭 🍃

농장다리(최인종 리더)
☎ 010 4602 1797

시화마을 금봉미술관 ...

주민들의 열정이 만든 시화문화마을

문화(文化)동은 문(文)동의 문(文)자와 각(角)동의 화(化)자를 합해 문화동이라 칭하였다. 동(洞)명에 걸맞게 동민들은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화가 있는 문화마을”을 조성했다.

이후 주민들의 노력으로 시화(詩畵)가 있는 마을은 문화와 자치가 공존하는 전국 명소가 됐다. 독창적인 마을 공동체 자치 모델로 전국적 지명도를 획득하여 지방자치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벤치마킹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나들목 정면에서 보이는 무등산을 배후에 두고 시화를 매개로 생활 문화를 가꾸어 문화중심 도시의 문화 관문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관 부지는 16,268㎡로 금봉 미술관(건평 944㎡ 지하 1층, 지상 2층)에는 갤러리, 아트숍 금봉전시관, 수장고, 문화교육장, 연구실이 있고 커뮤니티센터(898㎡ 지하 1층, 지상 1층)에는 대강당, 작은 도서관, 열린카페, 홍보관으로 건립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위해서는 대강당을 유료로 임대도 하고 있다.



아트숍에서는 사군자, 문인화, 산수화, 사생화, 서예 등 광범위한 예술활동을 펼쳐온 금봉 박행보 화백을 만나볼 수 있다. 생략과 가필을 통한 창의적 기법을 이용, 동양화의 함축미를 추구해온 박행보 화백의 작품이 무척 반갑다.



동네 주민들의 열정이 살기 좋고 품격 있는 명품 마을을 이뤄낸 좋은 본보기인 것 같아 뿌듯했고 젊은 세대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 기원종 🍀



시화문화마을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대로 81
☎ 062 265 5627

노대동 송화난장음악회 ...

노대동 호숫가에 함께 꿈꾸는 동네

무척 무더운 하루다. 이 더위를 누그러뜨리고 활기를 되찾게 해줄 마을 공연이 있다고 해서 노대제로 향한다. 노대제는 '생태학습원'으로 꾸며져 근처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는다. 호수를 빙 두른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물과 수초와 잘 다듬어진 수목의 기운을 함께 느낄 수가 있다. 분적산을 병풍처럼 둘러친 아파트 단지 사이에는 진남유치원과 노대동성당이 자리하고 있다. 매마침 해 저물녘, 막바지 태양이 성당을 향하여 빛살을 쏘아준다. 마치 구원의 구체적 형상화처럼, 일몰이 성당을 더욱 아름답게 비춰내는 시각이다.

공연 시작 전, 우리는 민관기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2009년부터 '송화공동체'를 만들어 이끌고 있다. 지긋한 연배지만 검은 모자를 쓰고 오렌지색 티셔츠를 입은 모습에서 나이를 뛰어넘는 젊은 열정이 느껴진다.





2013년 ‘송화마을주민협회’가 발행한 노대동 마을사 『함께 꿈꾸는 동네』 발간사에서 그는, “공자님의 말씀대로 고기반찬 없이 거친 나물 먹고 물마시고 살아도, 도리에 어긋나는 짓으로 부자가 되고 신분이 높아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대동 세상! 열어보자.”고 말하였다. 마을공동체 형성을 향한 의지가 읽히는 부분이다.

“난장음악회는 윤정식씨가 맡아 수고한다.”는 민판기 씨의 말에 윤정식씨를 주목하였다. 윤정식씨는, 난장음악회 전반을 지휘하였다. 사회자로서 구성된 말씀씨를 보여주며 좌중을 취락편락하였다.

음악이 흐르면 공연자와 객석 사이의 빈 공간으로 나와 나름대로의 흥에 취하여 춤을 추는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오늘도 오셨소잉.”하는 사회자의 말에 객석은 웃음이 출렁거린다. 공연 내내 유쾌함을 제공해주는 그의 노력, 보이지 않는 재치가 돋보였다. 후에 그 할머니의 성함이 오복년씨이고 “노대, 송화촌 난장음악회의 마스코트”로 알려진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곳에나 몸으로 흥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주변에 웃음을 전파해주는 것 같다.

이 음악회의 흐뭇한 점은 어르신과 어린이 등 주민들이 공연에 참여하고 음향, 조명 등 행사 전반에 걸쳐 역할을 분담한다는 점이다. ‘햇빛 아코디언 동호회’, ‘하멜리움 기타동호회’, ‘피닉스밴드’, ‘시낭송’ 등의 공연도 재미있지만 ‘조하리 밸리댄스’의 밸리댄스는 눈에 띄게 멋졌다. 세 명 댄서들이 뽐어내는 엄청난 에너지에 모두 즐거워하였다. 🍀 서연정 🍀

마을공동체의 상상력이 꽃피는 송화촌

일요일! 나른한 오후, 우리 팀은 노대 축제장을 향해 각자 5시 30분에 무대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제 58회 노대 송화촌 난장음악회. 시간은 7시였고 호수 주변에는 행사를 준비하는 공동체에서 2명씩 짝지어 쓰레기를 줍고 있다.

오늘의 주제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이고 광주광역시청에서 후원을 한다고 한다. 우리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송화마을 공동체를 이끌어 오는 주체인 주민협의회 위원장인 민판기씨를 만났다. 지역의 축제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점차 인간의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삭막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즉, 스스로 흥이 나고 에너지를 계속해서 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2009년도부터 송화마을 난장음악회를 시작했는데 바깥 공기가 차가운 때는 쉬고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개최한다. 2013년에는 노대동 마을 축제(매년 10월 마지막주 일요일)로 발전되어 20여개의 동아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축제의 꽃은 축제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맛있게 만든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주민들의 행복감을 배가시켜주는 역할을 하여보기 좋았다.

철저하게 배금주의,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현실에서 사라진 마을공동체. 문화적 상상력이 침잠된 동네를 어떻게 활기 넘치고 인심과 정이 넘쳐나며, 사람 냄새가 폴폴 나는 동네로 복원해 낼 것인지를 고민한 송화공동체 주민 자치조직이



자랑스럽다. 그들이 사람을 만나고, 이끌고자 노력했기에 오늘의 이 축제가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 최명성 🍴



노대동 송화난장음악회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호수공원 일대



최고의 여행은 사람여행

- 김치준 도예가 *
- 고려인마을 *
- 새날학교 *
- 다문화종합지원센터 *
-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 광주힐링가든센터휴 *
- 아름다운가게 헌책방 *
- 찾아가는 아름다운 심시일반 밥차 *

흙을 사랑하며 흙과 함께 사는 도예가

도예가 김치준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흙인(土人)’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그는 흙을 사랑하며 흙과 함께 살고 있다. 현재 무등산 자락에 공방을 짓고 작업하고 있는 흙에 대한 그의 열정은 때로는 그릇과 향아리들로 드러난다. 백토물 옷을 입힐 때도 또는 아무런 옷을 입지 않은 채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는 그의 말은 곧 그의 인생관이자 철학일 것이다. 이토록 흙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지닌 그는 유난히 무등산에 관심이 많다.



208 _ 광주견문록VI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무등산은 광주의 상징이자 호남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등산을 떠올릴 때 정상 근처에 있는 입석대와 서석대를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무등산에는 그 외에도 볼거리들이 즐비하다.

그 중에서도 산의 중턱쯤에 있는 너덜경은 단연 손에 꼽을만하다. 너덜경은



풍화작용으로 단애면(斷崖面)에 떨어진 암석군을 일컫는 말로 무수히 많은 바위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어 멀리서 보면 독특한 장관을 연출한다.

김치준 작가는 이 너덜경의 모습에서 우리네 서민들의 삶을 보았다고 한다. 각각의 바위들은 가까이서 보면 그 자체로는 하나의 불품없는 바위일지도 모르지만 이것들은 등산객들에게 천연의 쉼터를 제공함은 물론이거니와 뒤엎키고 서로 의지하여 커다란 집단을 형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완성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너덜경의 자연스럽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에서 작가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내고 희망을 품고 밝음을 찾아가는 광주의 서민들의 삶을 보았으며 순박하고 진실한 면을 읽어내고 있다.

작가의 작품들과 함께 만나 마음속에 있는 진솔한 작품의 세계를 접하면서 흙 한 덩어리가 그릇의 형태로 만들어져 용모를 갖추고 생명을 얻기 위한 그의 흙에 대한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 김양근 ✍️

도자기를 넘어 설치작가로



김치준 작가를 만나러 갈 때 도예가로 알고 나섰다. 그런데 막상 만나본 작가의 세계관은 사방으로 열려 있어서 도자기 공예작가라는 테두리에 가두기가 어려웠다. 뭐라고 해야 할까, 결국 작가에게 물어보니 자신은 ‘설치작가’라고 한다.

사람들이 ‘조형설치작가’라고도 하지만 작가는 ‘조형’이라는 낱말마저도 떼어버리고 싶어하였다. 설치작가는 조형 설치, 조형 표현을 위하여 다양한 장르와 재료를 다룬다. 흐르는 물결처럼 달변인 작가에게서 들은 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순한 일품공예가 아닌 즉 편리와 효율적 기능만을 위한 도자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메시지와 감성의 표현물로서의 설치 작업을 하며, 장르를 뛰어넘는다는 게 내 작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도자기를 넘어 흙을 넘어 편리와 쓰임을



넘어, 편리와 효율성이 떨어져 불안정하고 불편하지만 어디다 쓰는 물건인가를 묻고자 한다. 도자기 작가 입장에서도 어디다 쓸까 하는 마음으로 만들면 그릇이고 흙이 가지고 있는 이 기묘함은 무얼까, 하고 흙의 물성을 따라가면 표현의 작가가 된다. 기능이 주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느낌을 흙에 부여했을 때 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물성을 따라가니까, 모양이나 기능을 벗어나서 아주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 이것이 내 작업 포인트이다.”

운림동 작가의 집 대문을 들어서니 건물 벽을 캔버스 삼아 도자기로 그린 그림에 동공이 활짝 열린다. 처음에는 찌그러진 그릇 모양인가 했는데 들여다보니 온갖 모양의 입매를 형상화한 조형물이다.

미소 띠고 찌그러지며 파안대소의 표정들을 벽에 고정시키고 그 아래에는 또 잔뜩 쌓아두었다. 더욱 멋진 상상을 일으키는 오브제는 벽면 왼쪽에 놓인 화분이다. 나무가 푸른 가지들 그릇들을 향하여 벌어 있는데, 푸른 잎사귀들이 살구빛 그릇들과 어울려 사람들이 사는 세상 모습 한 폭을 연상시킨다. 예술가의 작업실답다. 🌱 서연정 ✍️



김치준도예가
광주 동구 운림길 75번길 20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고려인들의 터전

월곡동에 있는 고려인협동조합이라는 건물을 찾아 골목길 안에 들어가자 신기하게도 외국어가 들리기 시작했다. 고려인들을 위해 벌리는 사업이 4가지인데 카페 2곳,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협동조합이 운영 되고 있다. 우리나라 유일의 고려인지원센터이기에 고려인들이 한국에 오면 맨 먼저 이곳에 와서 살다가 직장을 구하면 다른 곳으로 옮긴다. 현재 월곡동에만 3~4,000명 정도가 살고 있어 인구포화상태로 센터의 규모와 크기로는 이들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상담 중이다. 고려인들은 독립군의 후손들 또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하지만 다문화, 외국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나라에서 누리고 있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려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없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 운영자들이 돈이 안되니 이들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고려인들에겐 체류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단기비자로 들어와 불법 체류한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의료혜택, 복지혜택, 교육



212 | 광주전문목사

혜택들까지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안타깝다. 다행스럽게 광주에서는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어 도움을 받고 있으나 상위법이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



이천영 목사님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 사업을 맡게 되었냐고 문자 소릴하게 웃으시며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신다. 자신도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가 공단 생활도 하고 껌팔이까지 하며 지냈단다. 학력 미달로 군대도 못가게 되자 점성고시를 통해 예비고사를 치르고 운 좋게 원광대 영어교육과로 진학을 했다. 광주의 사립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잘 지내고 있었던 시절, 우연히 평동공단에 근무하는 고려인 노동자가 월급을 받지 못했더니 도움을 청해왔다고 한다. 옛날 공단에서 고생하던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서 해결하자 함께 있던 고려인 근로자들의 부상자 처리문제가 있어 또 해결해주다보니 입소문이 나서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이 사업에 발을 던게 되었다고 한다.

또 우연히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아이를 잠시만 맡아 달라며 맡기고 떠나가 돌아오지 않자 이 아이를 돌보다보니 그 아이의 교육문제를 해결 할 길이 없어 2004년 '길거리학교'라는 이름으로 교육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지금은 새날학교라는 정식인가를 받은 다문화 대안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은 능력이 없고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안하면 안 되는 사정에 휘말려 그냥 운명으로 생각하며 받아들였다고 한다. 말씀은 그렇게 겸손하게 하지만 교직에 근무하면서도 광신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여 목사의 자격까지 갖춘 것은 본인의 소명을 잘 알고 준비하여 그 길로 들어선 게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 이양자 ✍️

그들을 받아 준 곳은 광주였다

1992년 1월 소련이 붕괴되면서 배타적인 민족주의 운동 확산으로 고려인들은 직장에서 추방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어 다시 연해주 지방에 모여들었으나 그 곳에서 어려움에 처하였다. 태어나 자란 땅에서조차 차별과 박해가 이어져 또 다시 유랑의 길을 나서야 했다. 유랑의 인생에서 정착을 하고 싶어 조상의 땅 대한민국으로 눈을 돌려 '제발 살게만 해달라'며 애원했으나, 국가는 '가난하고 헐벗은 동포는 필요 없다'며 온갖 법률을 적용, 문밖으로 내동댕이쳤다. 과연 이들의 유랑에 국가는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

한국에 어렵사리 정착을 했지만 처음에는 정부는 지원과 관심도 없고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것도 알아주지 않았다. 그들을 받아준 곳은 광주였다.

2000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우즈벡 출신 고려인 신나탈리아씨의 1년치 체불 임금 해결이 계기가 되어 고려인 지원사업이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고려인 대모라 불리는 신조야가 한국에 입국하여 어려움에 처한 고려인동포들을 틈틈이 돕기 시작하였다.

2004년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신조야씨가 국내 재입국하게 되었으며 20여 명의 고려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2005년에 고려인 30가정이 광산구 월곡동에 고려인 마을을 마련하게 되었다.

2009년부터 센터를 운영하며 새로 입국하는 고려인들의 한국어 통역을 비롯하여 미취업자들의 숙식제공과 취업알선, 각종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주고 있다. 2013년에 고려인마을협동조합(K-COOP)이 설립되었으며, 2014년에 드디어 비영리법인 고려인마을설립 허가를 받게 되었다.

이제는 협동조합도 만들고 자체적인 어린이집 운영, 고려인마을주민지원 센터, 고려인마을지역아동센터, 쉼터, 고려인마트, 여행사를 운영하며 살고 있다. 고려인마을협동조합은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하지 않고 고려인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곳의 주요 사업은 주민상담센터 운영과 미취학 아동을 위한 어린이 집,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아동센터 운영 등이다. 그러나 국내 거주 고려인들의 상황은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아 보인다. 정부의 도움이 필요로 하지만 다문화도 아니요, 이민자도 아니라는 이유로 오히려 도움을 거의 못 받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도 이곳 월곡동에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음식이 있고 러시아 슈퍼마켓 등이 있어 작은 이태원에 와 있는 기분이 들었다. 수많은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한국의 여름을 보내고 있다. 왜 하필 광주에서 정착을 했냐고 하니 비록 언어장벽과 저임금, 열악한 근로환경에 힘겹지만 그래도 이곳이 국내 도시 중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입을 모은다. 🍃 장미경 ✍️



고려인마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일대

국경 없는 시대 보물이 될 아이들

새날학교는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자녀들이 한국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주CBS 후원으로 설립된 학교다. 기업인, 의료인, 방송인, 종교인, 대학교수, 초·중·고 교사단체인 교직자선교회와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새터민센터, (사)광주산업정보교류협회 등이 협력하였다고 한다.

초·중·고 통합형 대안학교로 2007년 1월에 폐교된 삼도남초등학교 자리에서 미인가 대안학교로 출발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1년 6월에 전국 최초로 초·중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로 학력이 인정되면서 학교운영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입학생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고려인마을 대표인 이천영 목사님이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5학급



정원 75명으로 초등학교 1학급 15명, 중등학교 2학급 30명, 고등학교 2학급 30명의 소규모학교이다. 새날학교는 중도입국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다. 중도입국 자녀란 국제결혼을 통해 입양된 외국인 자녀와 해외유학생 자녀들, 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며 기르던 자녀, 새터민 출신으로 학령기를 놓친 자녀들이다.

북한 이탈주민,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러시아, 캄보디아, 네팔, 방글라데시, 고려인 등 15개국 출신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가정형편에 의해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초·중학생들은 홈스쿨 제도를 도입하여 기숙사처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해준다. 고향을 떠난 어린 학생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위탁기간이 초등학생 6개월, 중학생 1년은 너무 짧은 것 같아 위탁기간을 좀 더 연장시킨다면 학생들이 원적학교에서 더 잘 적응할 것 같다고 한다.

수업 끝 종이 울리자 다양한 아이들이 복도에 나와 웃고 떠들며 잡담하는 모습이 우리의 평범한 학생들과 같이 행복해 보인다. 하지만 어머니의 재혼이나 유학, 입양 등 다양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정든 고향을 떠난 아이들의 밝은 얼굴 속에는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었을까? 짐작할 수가 없다.

잘 키우면 보물이 될 수 있는 이 아이들이 그들의 새로운 적응을 돕는 새날 학교에서 반드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
이양자



‘더불어 함께’를 실천하는 배움터



새날학교는 지하철역 서쪽 끝의 평동 역에서 차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 이 학교는 탐험을 마친 상태에서 보면 지금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는 이천영 목사님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으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역경을 딛고 설립된 학교다.

처음에는 코시안 학교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미지가 좋지 않아 학교명을 공모하고 ‘새날학교’로 개정하여 2007년 1월 개교했다. 광산구 평동사무소 내 교실 2칸에서 개교하였고 외국인 학생 수의 증가로 3월에 광산구 평동 초등학교 부속 건물로 이전했다.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에 해당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들이자 평동 초등학교 측에서 안전사고 염려로 나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물색한 것이 폐교된 지 10년 된 삼도초등학교였으며, 2009년 2월부터 교정과 교사를 선생님의 노력과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현재처럼 훌륭한 시설로 변화시켜왔다 한다.

다문화 축제와 음식나누기를 통해 인성 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한국어 능력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사들은 한국어 교과교육 10명, 외국어 교육 6명, 상담교사 2명 등이 있었고 학생들은 수업료가 면제되며, 전국에 분교가 9곳이 있었다.

기숙사는 운영하지 않지만 홈스테이 케어를 하기 위해 광산구 월곡동에 30여 평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지정된 교사와 같이 생활을 원하는 학생 7~8명 정도 숙식을 한다. 수익자 부담으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내고 있다. 다문화 학생들을 보았을 때 공동체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다가왔으며, 학교에서도 가끔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학교의 노력을 볼 수 있었다.

올해(2016년 2월)의 쾌거는 처음으로 대학 합격자를 3명이나 배출한 것이다. 학교를 방문했을 때 김영경 교감선생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설명하는 수고를 하였고, 따뜻한 마음으로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생활에 최선을 다하시는 교직원 여러분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 최명성 ✍️



새날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29(삼도동)

다만 태어난 나라만 다를 뿐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다문화 가족센터를 찾았다. 바로 코카콜라 공장 앞이다. 코카콜라가 세계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제 다문화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베트남을 여행했을 때 만난 어느 아가씨가 한국 남자를 만나서 한국에 가서 사는 게 희망이라고 서툰 말로 한 적이 있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코리아드림이라도 있는 것일까? 코리아드림을 찾아서 온 그들에게 과연 한국은 생각만큼의 이상향일까? 사실 어느 국적의 사람을 만나 시는 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서로 간의 사랑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다문화라는 말은 낯설지가 않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그들에게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다.

1층 복도 앞에는 다문화가족들의 희망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비록 서툰 글씨 숨겨지만 그 마음만은 같다고 해야 할까? 웬지 모르게 감동적이었다! 거창한 것도 아니다. 이주 여성들의 희망사항은 한국어 교육 이수 후에 적절한 일자리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 다만 태어난 나라가 다를 뿐이다. 🌱 장미경 ✍️

다문화여성들의 친정집, 다문화인의 사랑방

다문화 가정에 대해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2006년이고, 광주북구다문화지원센터가 사단법인으로 창설된 것이 2008년으로 전국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한다. 현재 이용자는 5천 5백 가정(중국국적, 베트남, 필리핀 등순)으로 일반적인 결혼이민자, 배우자, 자녀, 노동자 등 중심이며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핵심으로 오후 3시까지 수업을 매일 100명 이상이 참여한다고 했고, 또 방문 서비스까지 한다. (센터 프로그램은 가족관계, 다문화 행복장터, 가족생활, 각 국가의 체험관, 가족돌봄, 아시아소리모아합창단, 작은도서관 등 수많은 과목이 진행 중이었다.)



센터장님의 운영 철학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로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누구라도 프로그램을 찾아오면 거절하지 않는다며 목요일은 저녁 9시까지 개장하고 일요일은 휴업이라고 한다.

책임감과 퀄리티가 높은 직원들이 다문화가족과 함께 지내는 센터는 친정집과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결혼 당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매매혼 성격을 갖는데다 사전교육도 못 받아 옥박지르고, 무시하고,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한국어를 배우고 모임에 참가하면 가출을 의심하거나, 나쁜 물이 든다는 논리로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혼란에 빠뜨리거나 허탈감에 빠지게 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로부터 다문화 가족에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 최명성 🍃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광주광역시 거점)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95(양산동)

인권교육의 산실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각화동 종합상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서 보니 정면에 횃집이 즐비하다. 식당들 사이의 중앙 계단으로 올라가 3층으로 간다. 좌우로 스크린 골프장이 먼저 나타나고 왼쪽으로 짙은 푸른색이 연구소다.

최완옥 소장을 만나 드린 첫 질문은 장애인과 장애우 중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가였다.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장애우’가 아니라 ‘장애인’입니다.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장애우’는 우리 연구소에서 쓴 고유 명사입니다.

1985년도에 서울에서 최초로 연구소가 생기면서 ‘장애우’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하였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 인권센터’ 등 한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각각 사용되던 용어에 대한 궁금증이 비로소 해소된다.

연구소의 부설기관으로 ‘광주장애우인권센터’와

‘희로애락평생 교육센터’가 있다.

‘(사)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창립10주년 소식지 《참 좋은 세상》에 의하면, 2005년 12월 15일 북구 유동에서 “개소 당시 비상근 소장과 상근 직원 한 명이 전부”였다. 현재는 10명의 직원이 인권센터와 연구소에서 장애인의 권익과 정책 발굴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연구소의 중심사업은 장애인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일, 관계부처에 장애인에 관한 정책제안, 인권교육 등이다. 여러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구소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들’은 후원자들이다.

이야기를 통해, 특히 인권교육으로서의 장애인을 대하는 에티켓 교육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알 수 있었다. 장애의 유형에 따라, 각각 존재자에 따라 장애를 겪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데도 우리는 흔히 일반화하고 보편화시키는 우를 범하며 살아간다. 장애인과 자주 접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인데 현재 우리는 장애인과 섞여사는 사회가 아니다보니 장애인들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최완옥 소장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때, 인도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인도자의 팔꿈치를 잡게 합니다. 계단 앞에서 인도자가 “이제 계단입니다.”라고 말하고 계단을 내려간다고 해도 시각장애인은 계단의 높낮이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도자의 팔꿈치는 계단을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높낮이가 변화됩니다. 시각장애인은 그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계단이라는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화장실은 본인이 요청하지 않는 한 용변을 보는 내부까지 따라 들어가지 않는 게 예의입니다.”

최완옥 소장과의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웃음기 없던 진중한 그의 말들이 메아리로 들린다. 🍀 서연정 🍀

복지나눔을 실천하는 곳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오후 2시, 각화동 종합상가 앞에 도착했다. 뿔집이 즐비한 가게를 끼웃끼웃 해가며 3층으로 올라갔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낡은 계단과 어두침침한 복도를 지나 (사)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들어갔다. 한 장애우가 반갑게 맞아준다. 저 분들은 3층까지 어떻게 올라올까? 왜 이리 복잡하고 어두운 곳에 사무실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났다. 최완옥 소장은 높아진 임대료가 감당이 안되어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2008년 4월 30일 장애인들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한 '광주장애인인권센터'를 개소하였다. 이후 지역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하여 인권 침해 및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사)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창립되었다. 이 연구소는 복지나눔을 실천하는 마음 따뜻한 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 장애인단체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힘든 삶을 침묵은 희망의 세상으로 만들자는 뜻 하나로 시작한 게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최완옥 소장은 장애인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기에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하신다. 장애인이라고 뭉뚱그려 판단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존중해 달라고 부탁하신다. 다 맞는 이야기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자라는 이유로, 비장애인의 무관심과 편견에 의해 인권은 소홀히 취급되어 있다. 특히 인권과 문화의 도시인 광주 지역의 장애인은 더욱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다. 장애인은 더 이상 고립과 배척의 대상이 아니며, 보호와 재활의 객체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현실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교육을 받고 나서도 가정이나 시설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장애인이 많은 현실에 가장 절실한 게 뭐냐는 질문에 소장님은 일자리 찾기를 하신다.

소장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장애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 가장 많은 장애는 노인문제, 곧 치매란다. 백세시대가 도래함에 장애문제는 곧 노인문제라는 것이다. 장애문제는 남 일이 아니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다음 강연을 위해 일어서는 소장님의 마지막 말에 가슴이 답답해진다. 🌱

장미경 ✍️



(사)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248번길 39, 각화동종합상가 217호

광주 8경에 자리한 남구힐링가든센터



대촌은 황금들판이 아름다운 곳으로 '광주 8경'에 들어가는 동네다. 충절의 상징인 포충사와 근거리에는 오이나 박 같기도 한 '동아'가 생산되는 곳으로 양과 동정은 우리나라 최초로 생긴 향약의 본 고장이기도 하다.

향약 모임 장소인 '양과 동정'과 빛고을공예촌이 바로 길 건너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대촌 들판 가운데 남구에서 시민들의 휴식을 위해 세운 곳이 '남구힐링가든센터'이다.



힐링이 될 만한 품목들이 준비된 곳으로 닥터피쉬 체험도 상시 준비되어 있고 다육이 같은 식물을 이용한 힐링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 우선은 주변 풍광에 눈을 빼앗기게 되는데 푸른 잔디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정경이 방문객들을 편안하게 한다.

한적한 시골이지만 광주에서 멀지도 않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이곳에 들러 즐거운 시간, 편안하고 힐링이 되는 남구 힐링가든 센터를 둘러보시길 권한다. 🌿

김현숙 🍃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자연휴식처

남구의 끝단, 대촌에 유치원생들과 가족들이 자주 나들이 가는 힐링가든센터를 탐방한다. 작년 이맘 때 즈음 찾아왔었는데 무엇이 변했을까 기대하며 도착한 힐링가든센터, 5월이 지난 아쉬움을 몇 송이의 진홍색으로 갈색 줄기에 매달려 있는 장미 넝쿨이 반갑다.

가을은 멀었는데 초록이 넘실거리는 길가에 한들거리며 피어있는 코스모스, 기분 좋게 탐방 대원을 기다리며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다.

2013년 남구청에서 양과동에 농어촌 테마 공원화 일환으로 세 개의 사업장을 지원해 만든 힐링가든센터, 시민에게 휴식을 사업주들에겐 여러 가지 판매 및 체험학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내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우리 원에 농원의 힐링 가든 휴, 전문 플로리스트가 운영하는 힐링 플라워

가든이 센터에 입점해있고 이 두 곳에서는 식물체험, 허브향기 주머니, 목재화분 만들기, 용기화분 만들기 등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훈 봉사단에서 운영하는



닥터 피쉬 체험이다.

플로리스트가 운영하는 힐링 플라워기든은 유리 볼 안에 미세먼지나 습도조절을 하는 식물들을 넣어 키우기 쉬우면서 집안의 데코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작품들을 팔기도 한다. 그 중 특이한 식물 중에 스칸디아 모스라고 초록, 분홍, 보라, 갈색 등의 예쁜 색깔의 이끼를 보게 됐다. 공기 중의 수분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원산지인 북유럽에서는 천연 습도계라고 불린다고 한다. 환경이 지나치게 건조해지면 해변처럼 딱딱 굳어졌다 습기가 많은 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다시 보들보들 해지기 때문이다.

이끼들이 그러하듯 공기 정화, 탈취, 새집증후군 제거, 음이온을 발생한다. 색깔은 미네랄에 천연재료를 혼합하여 발색제로 썼다고 한다.

물을 직접적으로 주게 되면 안 되고 10년에 1cm정도 자라나 번식도 힘들다. 가격은 약간 비싸나 이끼의 신기한 특성 때문에 집안에 들여놓고 싶은 심정이 불끈거린다.

주변에 영어마을이 있고 빛고을공예창작촌, 포충사가 있다. 가는 길에는 지석동의 고인돌까지, 시내가 아닌 자연과 더불어 하루를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갖기에 적극 추천한다. ♡ 이영화 ♡



아름다운가게 헌책방 ●●●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름다운가게 헌책방

책 한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났다. 아름다운가게 헌책방!!! 헌책방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아름다운가게에서 운영하는 지역 최초의 헌책방이라고 한다. 책을 기증받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풀뿌리 단체를 돕는데 쓰는 착한 책방이라고 한다.

팀원의 소개로 찾게 된 이 곳은 헌책방이라는 느낌은 전혀 없고 아름다운 카페의 분위기다. 용봉동 변화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7층 건물 내 4층을 활용하고



있었다.

도로변 창가는 탁자가 놓여있어 고객들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는 풍경이었다. 그밖의 공간은 다 책으로 둘러 쌓여있었다.

2만 여권 다량의 책 이외에도 공정무역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와 재사용디자인 브랜드 '에코파티메이리', '공정무역' 상품 등 재미있게 나누고 즐길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유익한 쉼터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 이태연 ✍

"책 나와라 똑딱! 꿈나와라 똑딱!"

아름다운가게는 재사용 나눔 가게로 이미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우리 광주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 도시에 120여개의 매장과 국외 까지도 가게가 퍼져 있다. 재사용 활동을 통한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변화, 그리고 공익과 착한 마케팅이 윤리적 소비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곳이다.

결국 전국적인 체인과 파는 물건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기증품들이다 보니 비슷한데 좀 특색있는 곳이 용봉동에 있다.

그 이름 '아름다운가게 헌책방'. 어쩐지 묵은 추억이 느껴지는 이곳이 아주 귀한 존재임을 직감하고 우리 문화관광탐험대는 한걸음에 달려갔다.

2009년 문을 연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 광주 용봉점은 독지가의 공간 제공과 기업체 후원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함께한 책 주주 캠페인을 통해 기증받은 도서로 시작됐다. 2만 여권의 다양한 도서와 아동전집은 물론 음반, CD, DVD,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제품과 소규모 생산자를 돕는 공정무역 제품, 재사용 디자인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수익금은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들과 나누며 가게를 꾸려오고 있다.

대개 연초에는 나눔 봇다리를 풀고 연말에는 수익 나눔을 통해서 지역사회 저소득층 개인이나 취약계층을 돕는 단체를 지원해주고 있다.

책방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활동 천사'라는 별명을 가진 주부와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과 힘을 빌리고 있다. 자체기록에 의하면 지금까지 자의든 타의든 죽어가고 있는 헌책 58만 여부를 구매하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주며 기부를 실천한 기부자는 7만 5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 대책 차원에서 살펴보면 150만kg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5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탄소 절감 효과를 나타낸 실적이라니 얼마나 친환경적일까? 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일손이 바쁜 주부님들의 아이를 맡아 돌보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봉사한다고 한다. 🌱 한용섭 ✍



아름다운가게 헌책방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90-3
☎ 062 514 8975

가슴에서 가슴으로 봉사하는 따뜻한 밥차

따뜻한 정을 담아 따끈한 밥차가 십시일반 무료 급식을 하고 있어 찾아간다. 이동급식 밥차는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먹거리만이 아닌 더불어 사는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정과 정성을 나누며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있었다.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는 단체는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사)자비신행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봉사하는 정신 자세로 서 있는 분에게는 서서, 설 수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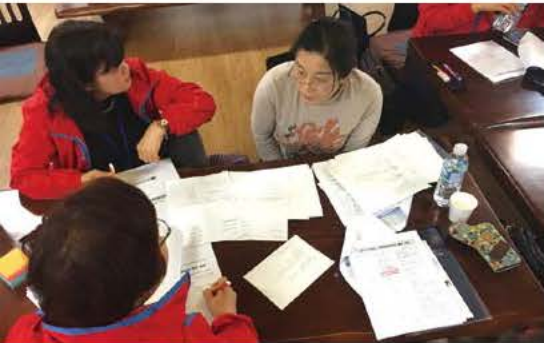
분에게는 앉아서 가슴에서 가슴으로 봉사에 임하고 있다.

자기를 낮추어 두 손으로 공손하게 봉사하는 과정도 수행의 일부라고 하며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음식을 준비 할 때는 내가 먹는 것 이상으로 정결하게 차린다고 하니 효와 박애 정신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 같다.

(사)자비신행회 사업은 독거노인 밀반찬 및 간식지원 사업, 어르신 무료식당 운영, 어르신 생필품 및 정서 지원 사업, 십시일반 사랑의 밥차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었다.

🌿 기원종 🖋

문화관광탐험대 | 발간기념식



문화관광탐험대 | 월요팀



문화관광탐험대 | 금요일팀



문화관광탐험대 | 주말팀



제6기 문화관광탐험대 활동을 마치며



김도윤

이 시대에 내가 누릴수 있는 것들이 제일 가치 있는 문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쁘고 재미있고 의미있게 누린 나의 일년의, 문화의 한 부분을 여기엔 남깁니다.



김민숙

우리 지역의 친숙한 문화·역사·관광·숙박·음식·명인·명소를 찾아 방문하여 사진도 찍고 스토리텔링도 만들어보는 우리 지역 문화를 특성화, 상품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양질의 관광서비스로 광주의 대외경쟁력을 한층 드높일 것으로 기대하면서 보람된 유익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김양근

내 눈 높이만큼, 내 손바닥만큼 밖에 보지 못했던 제가 광주를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광주의 문화를 알리게 되어 행복합니다.



김영희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감여행을 꿈꾸며 문화관광탐험대의 큰 역할에 자부심과 긍지로 신나게 탐험하며 즐거워했고, 알찬 추억 속에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본다.
Smile.....



김현숙

가을날 무동의 단풍이 하늘로 올라가는 지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마당에 노랗게 익은 모과 향을 느껴 보신적이 있으세요? 왕두의 거대하고 하얀 손가락조각은요? 승리를 표시하는 손가락은 민주주의를 사수했던 광주시민들이 회생을 상징하듯 뼈대가 드러난 모습이라 볼 때마다 가슴이 시려오곤 해요. 알고 보니 그 형쨌쨌? 주위를 둘러보면 광주 곳곳은 '이야기창고'입니다.



기원중

매화향 가득한 봄부터 무더위와 폭우속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열정을 다해 탐방한 결과 문화의 멋과 맛을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서연정

가을은 나무의 계절입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빛의 축제장입니다. 나무가 새눈을 트던 4월부터 열기에 늘어지던 8월까지 광주의 유의미한 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서로 다른 빛깔로 자신을 드러내는 나무들과 만났습니다. 『광주전문록 VI』 발간은 탐험대 활동의 정점, 보람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매년 돌아오는 화양연화(花樣年華)의 시절을 그저 누리는 것일까요...



이양자

오랫동안 열정을 다해 살아온 인생 1막을 잘 마무리하고 귀한 휴식을 즐기며 인생 2막을 준비하던 중 잠시 문화관광탐험대에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지를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화

광주와 연애에 빠진 초짜 탐방자.



이태연

여유로움을 가슴 가득 담고 행동하는 사진작가.
다양한 광주의 명소를 탐방하는 기쁨~
재미있는 활동이었다.



장미경

탐험대 활동을 하면서 광주의 구석구석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고, 언제부터인가 광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느꼈습니다. 즐거운 경험, 소중한 시간을 보낸 탐험대 활동이었습니다.



최명성

지식만 갖고 있던 역사학도로 우리지역의 생동감 있는 문화에 공감을 느끼면서 열정을 갖고 우리 모두를 생각하고 싶은 나.



최정오

멀리 있거나 화려한 것 보다는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삶이 풍요로울까요?
안녕하세요? 제6기 문화관광탐험대 최정오입니다^^ 광주의 숨겨진 소소한 문화를 탐험 해보는 멋진 기회를 갖게 되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한용섭

야무지게 짜인 계획을 따라가지만 다하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움으로 남죠. 그래서 아직도 우린 탐험 중입니다.
저는 오늘도 민주의 광장 일대와 항쟁의 거리, 아시아문화전당과 예술의 거리, 양림동 문화마을을 잇는 광주 구도심 관광벨트의 꿈을 꾸며 발길을 옮깁니다.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견문록



발 행 처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
062, 670, 7400

발 행 일 2016년 12월 6일

발 행 인 서영진

글 사 진 제6기 문화관광탐험대
김도윤, 김민숙, 김양근, 김영희, 김현숙, 기원종, 서연정,
이양자, 이영화, 이태연, 장미경, 최명성, 최정오, 한용섭

편집위원 서연정, 이영화, 이태연

팀 장 박규호

담 당 조아라

만 든 곳 주식회사 성문당
61486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16번길 4
062, 222, 2555

ISBN 979-11-86088-04-3

ISBN 978-89-968403-0-5(세트)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a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5032351)

